

승통100주년 기념 학술대회

春菴 朴寅浩 先生の 삶과 민족운동



- 일 시 : 2008년(포덕149년) 1월 17일(목) 오후 1시~4시 30분
- 장 소 : 공주산업과학대학 (예산캠퍼스) “컨벤션 홀”
- 주 최 : 예산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 주 관 : 동학학회후원회
- 후 원 :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천도교중앙총부/예산군
예산문화원/예산군농민회/독립기념관/동학농민혁명군예산군유족회

승통100주년 기념 학술대회

春菴 朴寅浩 先生의 삶과 민족운동



- 일 시 : 2008년(포덕149년) 1월 17일(목) 오후 1시~4시 30분
- 장 소 : 공주산업과학대학 (예산캠퍼스) “컨벤션 홀”
- 주 최 : 예산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 주 관 : 동학학회후원회
- 후 원 :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천도교중앙총부/예산군
예산문화원/예산군농민회/독립기념관/동학농민혁명군예산군유족회

승통100주년 기념 학술대회

春菴 朴寅浩 先生의 삶과 민족운동

<1부 행사>

- 점심식사 : (12:00-13:00, 대학구내식당)
- 식전행사 : 국악한마당(13:00-13:30)
- 개회식 : 13:30-14:20

사회 / 이 선 영(동학학회후원회 총무간사)

- 국민 의례
- 청수봉전
- 심고 및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
- 내빈소개 : 고 남 중(예산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명예회장)
- 대 회 사 : 박 중 서(예산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회장)
- 격 려 사 : 김 동 환(천도교 교령)
- 격려인사 : 김 삼 흥(독립기념관장)
- 축 사 : 최 승 우(예산군수)
- 축 사 : 홍 문 표(국회의원)
- 축 사 : 권 국 상(예산군의회 의장)
- 축 사 : 이 용 면(예산문화원 원장)
- 영 상 물 : “춘암 박인호의 생애와 삶”
- 기념촬영 및 휴식 : 참석자 전원

〈2부 행사 : 학술세미나〉

(14:30~16:30)

사회 / 주 선 원(동학학회후원회 운영위원장)

• 기조강연 : 동학 천도교의 민족운동 승맥(承脈) ^{라 동양}

김 삼 응(독립기념관장)

• 발표 및 토론

- 제1 주제 : 내포지역 동학혁명과 박인호 ^{정호}

박 성 목(예산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 제2 주제 : 1920년대 민족운동과 박인호 ^{정호}

임 형 진(경기대 교수)

- 제3 주제 : 무인멸왜기도운동과 ~~박인호~~ ^{정호}

성 주 현(독립기념관 연구소)

- 종합총평 : 김 한 식

(선경대학원대학교 총장, 前 동학학회 회장)

• 폐회선언 : 한 광 석(동학학회후원회 회장)

목차

대회사	박종서(예산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회장)	4
격려사	김동환(천도교 교령)	6
축사	최승우(예산군수)	8
축사	홍문표(국회의원)	10
축사	권국상(예산군의회 의장)	12
축사	이용면(예산문화원장)	14
기조강연	동학 천도교의 민족운동 승맥(承脈)과 통일운동 김삼웅	15

<발표논문>

내포지역 동학혁명과 춘암 박인호	25
-------------------	----

박성묵

1920년대 천도교의 민족운동과 박인호	46
-----------------------	----

임형진

춘암 박인호와 무인멸왜기도운동	68
------------------	----

성주현

총평(김한식)	89
---------	----

<부록> 춘암 박인호 약력	92
----------------	----

대회사



존경하는 내외귀빈 여러분.

공사다망하심에도 불구하고 춘암 박인호 선생의 체취가 서려 있는 충절의 고장 예산까지 왕림하시어 '승통100주년기념 춘암 박인호 선생의 삶과 민족운동에 관한 학술대회'를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예산의 위상과 기개를 드높였던 많은 인물이 있었지만, 일평생 송죽같은 굳은 절정과 심지로 민족을 위해 진력을 다하고 희생하셨던 춘암 박인호 선생이란 분이 예산 출생이란 점은 매우 자랑스럽고 자부심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패정치로 나라의 기강이 무너져 백성의 고통이 날로 높아 가고 외세의 국권침탈이 노골화되어갈 때 보국안민이란 기치로 내포 동학혁명운동을 직접지휘하시고 일제 강점기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 3.1운동을 주도하신 점, 그리고 일제강점기 민족운동의 마지막 종장인 무인멸왜기도운동을 펼치셨던 선생의 독립운동은 우리 민족운동사에서 길이 빛나는 운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동안 춘암 박인호 선생에 대한 조명은 커녕 관심과 기억조차 없이 흘러온 세월이 한 세기가 흘렀습니다.

오늘 학술대회를 통하여 민족의 위대한 성인이면서 너무나도 알려지지 않았던 춘암 선생의 지고하신 품격과 숭고한 실천정신이 다시 살아나 가슴에 깊이 새기고 후대들에게 참 교육의 지표로서 선양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우리 근대사에 큰 자취를 남겨 놓으신 춘암 선생의 업적과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계승하는 것은 한 개인의 힘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춘암 선생의 지고한 삶을 흠모하는 여기 모이신 우리 모두의 역량과 결속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오늘 이와 같은 행사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하여 주신 최승우 예산군수님, 그리고 민족운동의 역사와 함께해 온 천도교의 김동환 교령님, 그리고 본 대회에 깊은 관심과 선양을 위해 참석해 주신 김삼웅 독립기념관장님, 본 대회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주시는데 정성을 다하시는 한광석 동학학회후원회 회장님, 그리고 남다른 애향심과 민족애를 가지시고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도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이 대회가 부족한 점이 있지만 민족의 위대한 스승 한분을 찾고 그 숭고한 정신과 열이 계승 발전할 수 있는 큰 획이 되길 기대하면서 여러분의 건강과 행운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 1월 17일

예산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회장 **박 중 서**



격려사

예산지역 유지 여러분!

이 행사에 참여하기 위하여 원근을 불문하시고 왕림해주신
귀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지역 출신의 춘암 박인호 선생님은 근세조선시대에 내환
과 외침으로 조국과 민족이 위기에 처해 있을때 동학농민혁명을
진두지휘하시고 1919년 일본의 침략에서 독립을 되찾기 위
하여 기미년 3.1 독립운동을 주도한 천도교의 4세대도주 였습
니다.

춘암상사께서 5만의 동학군을 통솔하시며 부정부패척결과
척양척왜를 외치며 수많은 목숨을 바친 동학농민혁명에 앞장서
활약하신지 114년이 흘렀고 생의 최후까지 멸왜기도를 하시다
가 환원하신지 68년이나 지나 갔지만 오랜 세월 그 어른의 거
룩한 삶이 널리 알려지지 못하였는데 늦게나마 이지역의 동학
농민혁명기념사업회 박종서 회장님과 「예산 동학혁명사」를 집
필하시고 예산동학혁명기념사업회의 박성목 사무국장님, 온갖
어려움을 극복하며 지켜오신 갑오동학농민혁명유족회 이용우
회장님 등 여러분들의 노력과 특히 최승우 예산군수님, 권국상
예산군의회 의장님의 적극적인 협조로 오늘 「춘암 박인호 선생
의 삶과 민족운동」이란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갖게 되었음을 진
심으로 환영하옵고 아낌없는 격려를 드리웁니다.

천도교가 3·1운동 당시만큼 300만 교인이 모이는 왕성한
교단이었다면 선대교조님들이 남긴 청사에 빛날 업적을 세상에
널리 알릴 수 있었을 것인데 3·1운동이후 천도교는 일제로부

터 너무도 혹독한 박해를 받으면서 교세는 날로 쇠약해져 갔습니다. 그래서 후학으로서 제 도리를 다하지 못하고 있음을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어두운 밤이 아무리 버티어도 밝아오는 여명에는 이기지 못하고 뽕뽕 얼어붙은 동장군이 위세를 떨쳐도 따듯한 봄바람 앞에서는 비켜서지 않을 수 없는 循環의 理致를 다시 한번 느끼고 있습니다.

천도교경전에 ‘쇠운이 지극하면 성운이 온다’ ‘산하대운이 진귀차도 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춘암상사님의 삶을 살펴보는 관점 한가지는 춘암상사께서 一生을 바쳐 천도교의 진리를 살피는 일이고, 또 하나는 춘암상사님의 日常生活를 면밀히 살피는 과제라 하겠습니다.

동학이 있었기에 춘암상사님의 삶이 있었고, 춘암상사님의 성품이 맑으시고 남다른 애국애족의 정성이 있었기에 동학 천도교의 신앙생활을 한결같이 할 수 있었으리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것은 지나간 사실을 살펴보는 것으로 다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을 오늘의 교훈으로 삼고 미래를 제대로 판단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동학정신은 어떤 일을 해야 할 것인가?

물질문명에 오염된 人間의 심성은 자기만 잘살겠다는 各自爲心의 동물적 심성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편할 날이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천심을 되찾고 사람이 한울 같이 모시자는 人乃天의 참뜻을 알도록 모든 종교인, 철학인, 정치인들이 정신개혁을 해야 합니다.

백년 전 동학운동에 앞장섰던 춘암상사의 정신을 이어받아 새로운 세상을 열어 가는데 이곳 예산이 점화점이 되어줄 것을 간절히 기도하며 격려사에 가름합니다.

포덕 149년(2008) 1월 17일

천도교 교령 김 동 환 심고

축사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리며, 오늘 이처럼 뜻 깊은 춘암 박인호 선생의 승통 100주년기념 학술대회의 자리에서 축하와 새해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동학의 역사와 박인호 선생의 업적을 재조명하기 위한 학술대회 준비에 수고 많이 하신 박종서 회장님, 동학학회후원회 한광석 회장님과 관계자, 동학농민혁명예산군유족회 이용우 회장님과 유족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패널로 참석하신 김삼웅 독립기념관장님, 경기대 임형진 교수님, 부천대 성주현 교수님, 선경대학원대학교 김한식 교수님, 예산동학농민기념사업회 박성목 사무국장님, 자리를 빛내주신 홍문표 국회의원님, 예산군의회 권국상 의장님을 비롯한 내빈과 군민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역사란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역사는 반복된다는 교훈을 잊지 말자는 뜻이라고 봅니다.

이것이 모든 경우 다 적용된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역사라는 것이 후대에 의해서 재평가가 계속되고 그 과정에서 잊혀진 역사가 다시 장중한 모습을 드러내기도 한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역사는 과거를 통해 오늘을 비쳐주는 거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학자나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쉽게 접할 수 없고, 또 잘 알려지지 않은 것이 바로 동학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19세기말 부패한 봉건사회와 서구 열강들의 침략에 맞서 '반봉건 반외세'의 기치를 내걸고 봉기한 역사 이래 가장 큰 민중운동인 동학농민혁명과, 민족대표 48인이시며 겨레의 참스승으로 존경받고 있는 춘암 박인호 선생의 높은 정신과 사상, 그리고 독립운동에 헌신하신 업적이 올바르게 조명되지 못한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러한 뜻에서, 오늘 이 대회야말로 동학농민혁명과 춘암 박인호 선생의 업적을 계승 발전시키는 새로운 전기가 됨은 물론, 우리의 소중한 역사를 계승 발전시키는 뜻 깊은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모쪼록 오늘 행사가 그동안 제대로 조명되지 않았던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와 춘암 박인호 선생의 숭고한 업적을 새롭게 조명하여, '망각의 역사'를 '살아있는 역사'로 복원하는 새로운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예산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의 무궁한 발전과 자리를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알차고 보람된 새해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 1월 17일

예산군수 최 승 우



축 사

안녕하십니까?

무자년의 초입에 춘암 박인호 선생이 동학혁명운동과 독립운동에 헌신한 실천적인 삶을 새로 조명하고 선생의 숭고한 일을 유지 계승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하신 예산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박종서 회장님을 비롯한 많은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춘암 박인호 선생은 예산태생으로 1893년 광화문 복합상소와 보은집회 때 전국의 동학조직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동학교단의 실질적 지도자로 부상하여 예산을 중심으로 한 충청도 해안 지대의 책임자로 임명되어 농민군을 통합하는데 크게 기여한 분입니다.

춘암 박인호 선생의 많은 노력으로 충청도 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 동학의 조직적 기반이 탄탄했고, 춘암 박인호 예하의 접주 급들도 가장 많은 수를 확보하고 있었으며, 광화문 복합상소와 보은집회 때 선생의 역할이 커진 가운데 갑오년 충청도 지역은 사실상 춘암 선생이 가장 중추적인 동학교단의 핵심 인물로 부상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천도교와 10여개의 동학농민혁명 관련 단체들이 활동하고 있지만 몇몇 단체를 제외하고는 겨우 이름만 이어가고 있는 실정이고, 그 몇몇의 동학농민혁명 관련단체마저도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을 구현하려는 실천적 활동에는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학농민혁명의 계승에 있어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과거 회고적인 사고에 갇혀 있어 이 땅의 민중들에게 미래 지향적인 희망을 제시하지 못하고 신세대들에게는 동학농민혁명의 생명존중정신, 평등사상, 자주정신 등 새로운 정신적 가치관으로 와 닿게 하는 정신계승 운동이 조금 부족하기에

이러한 문제들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고 대승적인 자세에서 풀어 나가려는 예산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의 노력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기를 희망하면서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가 보다 번창하길 바랍니다.

2008년 1월 17일

국회의원 **홍 문 표**



축사

오늘 2008년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민족 동학혁명사에 길이 남을 춘암 박인호 선생의 삶과 발자취를 재조명해 보는「승통 100주년 기념 춘암 박인호 선생의 삶과 민족운동에 관한 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오늘 학술대회 준비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예산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박종서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기초강연과 주제발표를 위해 먼 걸음을 하여주신 김삼용 독립기념관장님을 비롯한 여러 교수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의 학술대회를 빛내주시기 위하여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신 최승우 군수님과 천도교 김동환 교령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들을 비롯한 갑오동학농민혁명군 예산군유족회 이용우 회장님과 각급 기관·단체장님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산군은 예로부터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마다 충신·열사들을 불문하고 민중들까지 봉기하여 목숨을 바쳐 조국을 구해낸 충절의 고장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춘암 박인호 선생께서는 봉건적 사회질서를 타파하고 외세의 침략을 물리치기 위하여 1883년 동학에 입도하여 예산, 홍주 등지에서 동학농민운동을 펼치셨

습니다. 뿐만 아니라 1919년 3·1운동 때는 민족대표 48인 중의 한 사람으로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하여 항일 독립운동을 해 오신 훌륭한 지도자 이셨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지도자분을 세상에 알리지 못하고 이제서 그분의 위대하신 업적을 기리는 자리가 된 것이 매우 부끄럽습니다만 박종서 회장님께서 이러한 자리를 마련한 것이 참으로 다행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애국충정과 헌신적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춘암 박인호 선생의 애국애족 정신과 조국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다시는 쓰라린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 힘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모쪼록 이번 학술대회를 통하여 민족운동의 큰 지도자 이신 춘암 선생에 대한 연구가 더욱 폭넓게 이루어져 기록하고 숭고한 생애를 되새겨 보는 뜻 깊은 시간이 되시길 기대합니다.

끝으로 무자년 새해를 맞이하여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 1월 17일

예산군의회 의장 권 국 상

축사



우리고장 예산이 낳은 춘암 박인호 선생의 삶과 민족운동에 관한 학술대회에 임하여 축하의 말씀을 드리게 됨을 실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외래 문물의 도래와 함께하여 삼국시대의 불교 및 조선시대의 유교와 근세 개화기의 천주교·기독교가 전래되었으되 민족종교가 쇠락하던 터에

아시는 바와 같이 춘암상사(春菴上師) 박인호(朴寅浩)선생께서는 오늘의 예산군 삼교읍 하포리에서 태어나셔서 1883년 민족 종교인 동학(東學)에 입도 하시어 수운(水雲) 최제우(崔濟愚), 해월(海月) 최시형(崔時亨), 그리고 의암(義菴) 손병희(孫秉熙)선생에 이어 1908년 1월 18일 동학의 개명교(改名敎)인 천도교(天道敎) 제4대 대도주(大道主)로 도통(道統)을 이어 받으심으로써 천도교가 척왜(斥倭)의 가치를 높이 들고 민족자존(民族自尊)을 외치면서 그 중심세력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1910년 12월에는 고려대학교 전신인 보성학원 설립에 의한 교육사업을 비롯하여 1920년의 월간잡지 “개벽(開闢)” 발간 등 민족항쟁의 전면에 서시고 1919년 기미독립만세 시에는 대동결기하여 만세운동을 주도하심으로써 평생을 민족운동에 몸 바치신 분입니다.

금번 학술대회가 선생의 구국민족항쟁운동을 조명하고 민족종교인 천도교가 후학인 우리 모두에게 귀감이 되고 후세에 찬연히 빛나기를 기원합니다.

2008년 1월 17일

예산문화원장 이 용 면

동학 천도교의 민족운동 승맥(承脈)과 통일운동

김삼응 (독립기념관 관장)

역사의 진행은 때로 곡선으로 때로 원형으로 때로 나선형으로 그리고 때로 뒷걸음치기도 하지만 종국적으로는 전진한다. 전진하는 과정에서 걸림돌에 넘어지고 역류에 부딪치고 간혹은 난파되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발전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역사에 기대다.

21세기를 맞이한 우리 사회는 그 어느 시대보다 복잡하고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정치적으로는 몇 차례 민주적 정권교체가 이루어졌지만 갈등의 요소는 아직도 남아 있어 통합이 요구되고 있으며, 경제적으로는 고유가 시대를 맞아 실물경제의 불안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더욱이 사회적으로는 물질만능의 가치기준이 설정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는 우리의 가치문화는 뿌리째 흔들려 점차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다.

이러한 사회 현상과 문제의 해결 방법으로는 최근 개혁을 통한 구조조정, 부정부패 척결 등이 나열식으로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의식개혁을 통한 정신개벽으로 참된 인간성의 회복이라 할 수 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그 시대가 안고 있는 문제점과 모순을 해결하려는 다양한 방안이 전개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역사적으로 잘 인식되고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동학 천도교는 어떠한 역할을 하였을까.

동학 천도교가 창도된 이후 우리나라 근현대사는 민중의 구국사로 맥락지어진다. 천도교는 민족사의 시련과 발전을 자체적으로 극복하고 영광되게 민중 앞에 그 방향과 진로를 제시하여 왔다. 우리가 흔히 천도교를 민족종교이며 구국의 이념과 행동을 역사와 함께 해왔다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역사적 배경과 맥락을 통해 그 성과가 역력하기 때문이다.

동학 천도교 1백년, 근대 1백년

동학 천도교의 발전사를 살펴보면 한국 근대 1백년과 궤를 같이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조선조 말엽에 이르러 통치이념인 유교가 쇠퇴하고 삼정(三政)이 문란하여 민생이 도탄에서 헤멜 때 서양의 물질문명과 함께 천주교가 들어왔지만, 민생은 갈 길을 찾지 못하고 저마다 각자위심(各自爲心)으로 혹은 정감록 등의 참위사상에 사로잡히고 혹은 천주교로 귀의하고 혹은 직접 저항으로 민란을 일으키는 등 혼란한 사회 모습이었다.

이러한 가운데 기성 종교는 백성과 사회를 구제할 힘을 잃었고, 이미 그 존재의 가치를 상실하였으므로 새 시대 새 문화에 맞는 새 종교가 나올 수밖에 없는 역사적 필연성을 갖게 되었다. 마침내 동학 천도교는 한울님의 가르침을 받아 새로운 종교 신앙으로써 수운(水雲) 최제우(崔濟愚)에 의하여 창도되었다. 천도교는 교조를 대신사(大神師)라고 존칭하고 있다.

최제우는 어려서부터 풍부한 상상력과 뛰어난 총명으로 기성 종교사상을 탐구한 끝에 이를 극복하고 나섰다. 일찍이 대신사는 어지러운 세상을 올바르게 건질 수 있는 참된 진리를 찾아 구도에 힘썼다. 어려서 배웠던 유교의 경서를 거듭 상고하고 불교를 탐구하기도 하였으며 당시 서양에서 들어온 서학에 관심을 가져보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것으로는 세상을 건질 수 없음을 통감하였다.

새로운 문화변혁의 시대가 다가온다는 것을 예견한 최제우는 암흑 속에서 헤매는 창생을 구하려는 열렬한 구도심에서 집을 떠나 새로운 구도의 길에 나섰다. 그래서 혹은 음양과 복술의 글을 연구하기도 하고 민속신앙의 주술을 탐구하기도 하고 활쏘기와 말 타기를 하는가 하면 장사도 하면서 여러 방면에 걸쳐 사회의 인심풍속을 살폈다. 이와 함께 치열한 기도와 사색의 구도생활을 거듭하고 고행을 쌓다가 32세에 이르러 울산에서 어떤 도인으로부터 천서(天書)를 받았다. 이로 인하여 최제우는 천성산 적멸굴 등에서 더욱 수도와 고행에 정진하였으나 아직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최제우는 당초에 어지러운 세상을 바로 잡고 도탄에 빠진 창생을 구할 큰 도를 얻기 위하여 가사도 버리고 유산을 탕진하면서 20년 가까이 전국을 편답하

였으나 이렇다 할 소득이 없음을 한탄하고 크게 결심한 나머지 1859년 10월 자신의 고향인 용담으로 돌아왔다. 최제우는 용담에서 큰 도를 얻기까지는 산 밖으로 나가지 않기로 맹세하고 이름 제선(濟宣)을 제우(濟愚)라고 고쳤다. 이는 어리석은 세상 사람을 건지겠다는 굳은 결심을 뜻한다. 이러한 각오로 용담정에서 수도에 정진하던 중 37세 때인 1860년 경신년 4월 초 5일 마침내 한울님의 가르침을 받아 천도(天道)의 진리를 깨닫게 되었다. 이때를 천도교의 창도 원년(布德 元年)으로 하여 현재 149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다.

최제우는 신을 “먼데서 구하지 아니하고 가까운 내 몸에 모신다”고 하여 시천주(侍天主)의 새로운 사상을 내세웠다. 이를 서학인 천주교와 다른 이름으로 동학이라 이르고, 포덕을 시작하자 많은 사람들이 모여 들어 동학은 경상도를 중심으로 하여 경기 강원 충청 일대까지 널리 퍼지게 되었다. 그러나 당시 유교를 국시로 하던 조선 조정은 동학을 이단으로 몰아 최제우를 체포하여 1864년 3월 10일 대구 관덕정 장대에서 처형하였다. 최제우는 순도하기 전 후계자로 해월 최시형(海月 崔時亨)에게 도통을 잇게 하였다. 최시형은 천도교에서 제2세 교조 신사(神師)로 존칭되고 있다.

1861년에 동학에 입교한 최시형은 성실한 신앙인으로 북점 주인에 이어 포덕 4년 8월 14일 교조로부터 동학의 도를 이어 받았다. 신사는 최제우의 순도 후관의 탄압을 피하여 지하 포덕을 통하여 30여 년 동안 산간벽지로 은신하면서 사인여천(事人如天) 사상을 내세우며 경상도뿐만 아니라 전라도 충청도와 강원도·경기도 그리고 멀리 황해도와 평안도까지 교세를 계속 확장하고 경전을 간행하는 등 동학의 종교적 기틀을 마련하였다.

이리하여 1892년 11월에는 전주 삼례역에서 수천 명의 교도들을 모아 교조의 억울한 참형에 대하여 무죄를 주장하고 신앙의 자유를 요구하는 근대적 시위운동 이른바 신원운동(伸冤運動)을 일으켰다.

이듬해 1893년 2월에는 서울 광화문 앞에서 복소 신원운동을 전개하고 이어 충청도 보은 장내리에서 수만 명이 모여 20여 일간이나 대대적인 평화적 신원운동과 척왜양창의 운동을 전개하였다. 하지만 정부 당국은 동학의 요구를 일시 효유로써 방편적으로 달래다가 더욱 심하게 박해하는 한편 동학에 대한 탄압이

날로 가혹해지고 사회개혁의 시대적 요구에 따라 1894년에 마침내 동학혁명이 일어나게 되었다.

동학농민혁명을 주도한 동학

동학농민혁명은 1894년 1월 10일 전라도의 집주 전봉준 손화중 김개남 김덕명 등에 의하여 기포되어 대규모로 거사된 근대적 민족 민중혁명이다. 이 혁명에서 동학혁명군은 반봉건 반침략의 기치를 올리고 12가지의 폐정개혁인 근대화의 요목을 내걸었다. 그 주요 내용은 평화적 해결, 탐관오리 척결, 횡포한 부호 처단, 불량한 유림의 응징, 노비문서 소각, 천민에 대한 대우개선, 과부의 개가허용, 무명잡세 폐지, 지벌타파, 외세구축, 공사채일소, 토지 평균분배 등이다.

동학혁명에 참여한 주요 인물로는 동학혁명 총기포령을 내린 최시형을 비롯하여 전봉준 손화중 손병희 김개남 손천민 김덕명 최경선 김봉득 오하영 손여옥 김도삼 이종훈 홍병기 이방언 오권선 신재런 서우순 이용구 김연국 김복용 박인호 박희인 오창섭 김구 등이다.

동학농민혁명은 근대국가건설의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으나 일본의 개입으로 좌절되고 말았다. 그러나 동학혁명의 햇불은 봉건제도를 타파하고 근대화의 신기원을 마련한 새로운 역사의 장을 열고 그 정신은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동학혁명 이후 신사계서는 또 한 번의 관의 탄압으로 도피생활을 하여야 했으며, 1898년 6월 2일 경성감옥에서 순도하였다.

해월 최시형은 동학의 도통을 받고 순도할 때까지 수운의 기본사상을 더욱 확대 발전시켜 평등사상(平等思想), 양천주(養天主), 대인접물(待人接物), 용시용활(用時用活), 이천식천(以天食天), 천어(天語), 이심치심(以心治心), 삼경(三敬: 敬天 敬人 敬物), 내수도문(內修道文), 내칙(內則), 천주직포(天主織布), 만유시천주(萬有侍天主), 물물천사사천(物物天事事天) 등의 사상을 전개하여 어린이나 여성을 막론하고 일체 평등하게 대하도록 강조하였다. 또한 “만사지(萬事知)는 식일완(食一碗)”이라 하여 모든 것이 밥 한 그릇에 달려 있음을 말씀하였으며 “땅 아끼기를 어머니 살 같이 하라”고 늘 강조하였다.

천도교 3세 교조는 의암 손병희(義菴 孫秉熙)이며, 존칭은 성사(聖師)이다. 손병희는 동학혁명으로 와해된 교단의 조직을 수습하는 한편 일본에 망명하여 그곳의 조선 지사들과 국사를 의논하고 박종경 장경낙 이광수 홍성운 등 64명의 인재를 뽑아 유학을 시키는 등 꾸준히 재기의 준비를 하였다. 그리고 이와 때를 같이하여 서북지역 즉 평안도를 중심으로 하여 황해도 지역에 교세를 크게 확장하여 나용환 나인협 등의 지도자를 배출하는 한편 수백여 개의 포(包)를 조직하였다.

갑진개화혁신운동 전개

손병희는 동학의 조직이 새롭게 정비되자 1904년에 이르러 갑진개화혁신운동을 일으켰다. 이 운동은 이해 8월 30일을 기해 전국의 교인이 360여 지역에 진보회(進步會)를 조직하고 일제히 흑의단발(黑衣斷髮)로 혁신시위를 일으켰다. 독립의 기초, 정부개혁, 군정 재정 정비,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 등 네 가지의 강령을 세우고 부패한 정부탄핵, 민회운동 전개, 생활개선, 탐관오리 축출, 잡세혁파, 나아가 교육제도 개선과 산업부흥 등을 도모하는 연설과 집회를 열어 민권의 신장과 문화혁명의 개혁 의지를 보였다.

그러나 이 운동은 이용구 등 일파의 배신으로 실패하게 되자 성사께서는 포덕 46년(1905) 12월 1일을 기해 그 동안 불려오던 동학을 천도교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공포하는 동시에 천도교중앙총부를 서울에 설치하여 근대적 종교체제를 확립하는 한편 친일적인 이용구 등 일진회원 60여 명을 출교 처분하였다. 성사의 활동은 단순히 종교적인 활동에만 머무른 것이 아니라 사회현상의 모순과 정치비리를 타파하고 신앙의 자유를 추구하고 자주 자강을 이룩하는 민족주의적 시국관을 가지고 있었다.

그 후 손병희는 춘암(春菴, 朴寅浩. 존칭은 上師)에게 대도주의 직을 승계시키고 일제의 강점 이후에도 10여 년 동안 교세확장과 교육사업을 통하여 구국운동에 심혈을 기울였다. 성사는 망명지 일본에서 개화된 모습을 직접 보고 이때부터 무엇보다도 민중계도를 위한 문화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키로 하였다. 즉

망국의 원인은 낙후된 민도에 있다고 보고 범국민적인 민중교육을 통한 민도의 계도와 고양만이 자주 독립의 첩경이라고 판단하였다. 성사께서는 1906년 일본에서 귀국하여 먼저 출판사업과 교육사업에 투자하였다.

이리하여 1906년 3월부터 사립보성학교에 80원을 기부한 것을 비롯하여 흥화학교, 광명학교, 석촌동 소학교 등에 20원부터 80원까지 보조하였다. 그리고 1910년 12월 21에는 현 고려대학교의 전신인 보성학원과 경영인수계약을 체결, 3만원의 부채를 정리하고 정식으로 경영권을 인수하였다. 또한 1909년 11월부터 매월 10원씩 보조금을 지급하던 동덕여학교(현 동덕여자대학교)를 1914년 12월 27일 역시 인수하여 경영하였다.

그 외에도 1910년 천도교에서 직접 간접으로 관여한 사학으로는 양영학교, 양덕여학교, 보창학교, 삼호보성소학교, 문창보통학교, 창동학교, 대구의 교남학교와 명신여학교, 청주의 종학학교, 봉양의숙, 보명학교 등이 있다.

뿐만 아니라 1908년부터 전국 시군에 800여 개의 교리강습소를, 서울에 사범강습소를 설치하는 등 민족교육 차원에서 교육사업을 광범위하게 전개하였다. 한편 언론활동으로는 1906년 6월 17일 『만세보(萬歲報)』를 창간하였다. 만세보는 국한문을 혼용하면서 서민 대중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한자 옆에 국문으로 토(루비)를 달아 대중교육의 실천의 장으로 역할을 다 하였다. 『만세보』에는 신소설 ‘혈의 누’ ‘귀의 성’ 등을 연재하여 신문소설의 신기원을 이룩하였다. 그리고 1910년 8월 월간지 『천도교회월보』를 창간하여 1937년 폐간될 때까지 통권 292호까지 발행하였다.

1910년 일제의 강점 이후 폭압적인 식민정치와 무단정치에 항거하던 천도교는 1919년 3월 1일 기독교·불교 등 종교계 대표들을 규합, 거족적인 3·1만세운동을 주도하였다. 3·1운동을 준비하면서 기독교계에 5천원을 제공하는 등 많은 경비를 천도교에서 부담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중화·일원화·비폭력화의 3대 원칙 아래 민족대표 손병희 등 33인의 이름으로 독립선언을 선포하였다.

천도교에서는 손병희를 비롯하여 김완규 권동진 권병덕 나용환 나인협 양한묵 이종훈 이종일 임예환 박준승 오세창 최린 홍병기 홍기조 등 15명이 서명하

였다. 이 외에도 48인으로 박인호 노헌용 인종의 안성덕 등이 참여하였다.

전국으로 확산된 3·1운동에는 각 지방 교구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는데 1919년 말 수감자 총 1만 9천 50명 중 천도교인이 1천 3백 64명이나 되었다. 특히 경기도 화성군에서는 일본군에 의해 집단적으로 방화되거나 참살을 당하였는데 고주리에서는 김홍열 김성열 김주남 김홍복, 제암리에서는 안정옥 안종엽 안봉순 홍순진 안종환 안유순 안무순 김정현 등 천도교인 30여 명이 희생당하였다.

천도교, 일제와 치절한 투쟁 벌여

3·1운동 이후에도 천도교는 일제에 끊임없이 항거하였다. 1922년 이종일과 천도구국단을 중심으로 전개한 제2의 3·1운동, 1926년 4월 만주에서 천도교와 정의부·형평사와 연합전선으로 조직한 고려혁명당운동, 1930년대 만주지역에서 김일성과 민족통일전선을 구축하여 무장항일운동을 전개한 조국광복회운동, 그리고 1936년 8월부터 일제의 멸망을 촉구하는 무인멸왜기도운동 등 조국의 독립을 위하여 투쟁하였다.

고려혁명당 사건은 천도교 정의부 형평사가 중심이 되어 대일무장항쟁을 전개하기 위해 1926년 4월에 만주에서 결성되었다. 여기에는 이종훈 홍병기 최동희 이동락 이동구 김광희 김봉국 등이 참여하였다. 이들은 1927년 일경에 피체되어 2년의 옥고를 치루기도 했다.

1930년대 중반에 접어들어 일제가 만주침략을 기도하면서 조선의 병탄기지화에 열을 올리자 천도교는 1936년 8월 14일 지일기념일을 계기로 전교인에게 식고(食告) 때마다 일본의 멸망을 기원하는 특별기도운동을 전개하였다. 이를 무인멸왜기도라고 한다.

이듬해 1937년 일제가 중일전쟁을 일으키자 이 기도와 더불어 전국의 교인들을 대상으로 독립자금모금을 결정하고 전국을 4구역으로 나누어 자금을 모금하였다.

그러나 이 운동은 1938년 2월 일경에 발각되어 검거 선봉이 붙어 중앙의 간부를 비롯하여 수백 명의 교인이 황해도 사리원경찰서에 압송되었다. 이 사건으로 최준모 김재계 한순희 김경함 홍순의 등이 치안유지법으로 구속되었으며, 김재계 손필규 이강우 김정삼 등은 고문의 후유증으로 출옥 후 곧 사망하였다.

1930년 대 중반 이후 항일무장투쟁이 만주와 압록강 두만강 등 국경지대를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전개되었다. 이때 만주지역의 장백현, 함남의 갑산군 풍산군 삼수군의 천도교인들은 조국광복회와 연계하여 대일무장항쟁에 적극 가담하였다. 주요한 인물로는 박인진을 비롯하여 이진화 장백현총리원장, 이경운 풍산군총리원청년당대표 등이 있다. 특히 박인진 등 함경도 일대에서 대일무장항쟁 운동에 적극 참여한 천도교인들은 일제 말기의 가혹한 탄압과 박해 속에서도 끝까지 민족적 양심을 지키면서 항일운동을 전개한 대표적인 사례를 남겼다.

천도교는 한때 사회주의자들과 연계하여 독립운동을 전개하였다. 대표적인 것이 6·10만세운동과 신간회 창립이다. 1926년 6월 10일 순종의 인산일을 기해 3·1 운동과 같이 전민족적 만세운동을 추진하려던 사회주의자들은 단독으로는 어렵다고 보고 천도교측과 연계하여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리하여 사회주의자들은 천도교의 박래홍 박래원 손재기 등과 접촉, 만세운동을 전개하였으며 이 운동으로 박래홍 양재식 민창식 백명천 등이 옥고를 치루었다.

6·10만세운동으로 사회주의와 연계를 가진 천도교는 민족협동전선으로 민족주의를 표방하는 신간회(新幹會) 창립에도 적극 참여하였다. 신간회 창립에는 권동진 오세창 이종린 박래홍 등 서울과 지방에서 수백 명이 가담하여 활동을 하였다.

일제는 1937년 중일전쟁 이후 전시체제로 전환하면서 보다 확고한 식민정책을 위하여 황국화(皇國化) 정책을 추구하였다. 이와 같은 식민정책은 천도교에도 강요하였다. 이때 교단의 지도자 일부가 일제의 회유와 협박에 굴복하고 일제의 정책에 협조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일부 지도자와 교인들은 끝까지 일제에 항거하여 독립운동을 전개하였다.

광복 뒤 통일정부 수립운동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는 일제에서 벗어났으나 미·소 양국에 의해 국토가 남북으로 갈라지고 분단세력이 득세하면서 민족주의 세력은 다시 밀려나게 되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천도교는 남북 분열을 저지하기 위한 운동을 전개하였다. 제3차 유엔총회에서 남북 총선거 결의가 있었으나 남북이 각각 단독 정부를 세우려 함으로 천도교에서는 1948년 3월 1일을 기해 북한 전역에서 통일 총선거를 크게 외치고 남북 분열을 저지하기 위한 일대 시위를 일으키기로 했다. 이를 3·1재현운동 또는 남북분열저지운동이라 한다.

이 운동은 영변 희천 개천 등 일부에서만 성공하고 거사 직전 북한 당국에 탄로되어 각 지역에서 2만여 명의 천도교인이 검거 투옥당하고 주도자 김명희 박용완 주명득 배의찬 김일대 등 87명은 평양감옥으로 압송당하였으며 이들은 최고 사형에서 4년형의 중형을 받았다.

그 후에도 천도교는 영우회라는 비밀결사를 북한 전역에 조직하여 민족통일을 추진하다가 1950년 4월에 발각되어 평양감옥에 165인과 해주감옥에 47인을 비롯하여 각 지역에서 515명이 처형당하였다.

한국의 근현대 백 년 동안 천도교는 항상 민족 그리고 민중과 함께하였다. 한말 왕조사회해체기에는 동학혁명과 갑진개화혁신운동을 일으키고, 국권상실기에 3·1운동을 비롯하여 민족연합전선운동으로 고려혁명당운동, 6·10만세운동, 신간회운동, 조국광복회운동 등을 전개하였다. 그리고 해방 후 민족분열기에는 남북분열저지운동과 영우회운동 등을 통해 통일운동의 한 축을 담당하였다.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고려한다면 큰 성과를 이루지 못한 듯 하지만 민주적 자주적 통일운동의 정신은 계속 이어져서 통일운동의 밑알이 되고, 통일의 그날에 더욱 높이 평가될 수 있는 역사적 의미를 지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동학 천도교의 민족운동은 근대적 민족주의 운동의 일관된 정통성을 계승하면서, 통일민족국가 형성을 추구한 천도교의 가치인 '보국안민' '후천개벽' 운동과 일치하는 역사적 의미를 가진다.

우리나라의 통일을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변 4강의 외세가 가져다 줄리는 없다. 통일은 한국의 한국화에 있다. 한국화는 민족의 동질성회복을 의미한다. 민족의 동질성회복은 상처된 이념을 극복함을 말한다. 이는 양자택일의 배타적 흑백논리가 아니라 다양 속에 모든 것을 수렴하는 자유민주적 가치의 포용적 개방화를 의미한다.

따라서 천도교는 바야흐로 남북교류 화합의 열망을 통일의 열기로 승화시키고 민족의 동질성회복을 위한 새로운 한민족 후천개벽의 통일문화 창조에 앞장서야 할 역사적 사명을 안고 있다.⑤

내포지역 동학농민혁명과 춘암 박인호

박 성 목 (예산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순 서

1. 들어가는 말
2. 박인호의 출생과 포덕활동
3. 교조신원과 광화문 복합상소
4. 10월봉기와 동학농민혁명의 전개
5. 맺 음 말

1. 들어가는 말

구한말은 견제와 균형의 정치권력 구조가 무너지고 기이한 정치형태로 나타난 세도정치로 나라의 기강이 무너져 탐관오리의 부패와 수탈이 자행되고 밖으로 는 외세의 조선침탈이 본격화 되자 나라의 운명은 풍전등화에 놓이게 되었다. 부패권력을 행사했던 당시 지배층으로부터 직접적 수탈의 대상자였던 민중들은 실의에 빠진 좌절과 고통은 극에 달했던 시기였다. 민중의 삶 자체가 붕괴되었던 이시기에 민중들의 심성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조선민중 뿐만 아니라 전 인류의 아픔을 조선반도에서 대변한 우주적 비전의 인물¹⁾ 수운 최제우에 의해 1860년 동학이 창시되었다.

동학사상의 핵심은 시천주(侍天主) 사상이다. 여기엔 평등주의 혁명주의 민족주의 사상을 내포하고 있으며 교리자체가 혁명의 이념과 실천을 이끌어내는 강한 사상적 지도원리를 제시하고 있다

비교적 평야지인 예산지역에 1880년 경 동학사상이 유입되어 봉건적 모순 속

1) 도울 김용옥 역주 『東經大全1』 214쪽(Man of Cosmic Vision)

에서 억압받고 있던 지역 농민들에게 조심스럽게 퍼져나갔다. 급기야 호남지역에서 보국안민과 반외세의 기치를 내걸고 1894년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나자 다른 지역에서와 마찬가지로 예산을 비롯한 내포지역에서도 예외는 아니어서 그간 침예하게 대립관계에 있던 유림을 포함한 반농민군과의 준 전시상태였던 내포지역에서 춘암 박인호는 일명 '10월 혁명'을 봉기하여 주도했다.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동학농민혁명은 한국근대사의 전개에서 뿐만 아니라 그것이 직접적인 실마리가 되어서 청일전쟁이 일어났다는 점에서 동양 삼국의 근대사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친 일대 사건이었다. 그리고 청일전쟁의 본 무대와 이로 인한 직접피해와 가혹한 주둔비용을 부담했던 곳이 춘암 박인호가 이끈 덕의포 지역 천안 온양지역의 농민들이었으며 그 여파는 본거지인 예산 쪽으로 확산되었다.²⁾ 이것은 내포지역 동학혁명의 발발원인을 제공했던 사건이었다.

따라서 한국사에서 일어난 사건 가운데 가장 많은 연구가 동학혁명 분야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내포지역 동학포덕과 교단형성의 기틀을 마련하고 두령으로써 동학농민혁명을 주도했던 춘암 박인호 선생과 내포지역 동학농민혁명운동에 대한 연구와 관심은 몇 가지 자료에 한정되어 있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인 것 같다. 더구나 한국사회 내부적으로 민주화가 어느 정도 성취되어서 그런지 최근 들어 이 분야에 대한 연구가 침체되고 외면된 듯한 분위기가 다.

이에 본고에서는 너무나 조명 받지 못한 춘암 박인호 선생 중심으로 펼쳐졌던 내포지역 동학혁명운동의 전개과정을 살펴봄으로써 내포동학혁명이 갖는 의미와 춘암 박인호 선생의 위상을 제고(提高)함과 내포동학혁명운동에 대한 연구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2) 『금번집략』 「별계」 7월 3일자 기록을 보면 6월 27일 성환에서 일본군에 패한 청군의 행패에 관한 기록이 있으며 광시 운산리 출신 안희중(安熙中1844~1917)의 「입성경란기」에 청군의 표략(剽掠)행위를 방지하고자 대홍군수 이창세는 소를 잡고 술을 대접했는데 이는 동학지도부의 비난을 받았고 농민군의 반외세 저항을 불러 일으켜 결국 '대홍 관아습격사건'으로 이어졌다.

2. 박인호의 출생과 포덕활동

춘암 박인호는 덕산군 장촌면 막골(지금의 삼교읍 하포리 114)에서 1855년 2월 1일 밀양인 박명구(朴明九)와 온양 방씨 사이에 큰 아들로 태어났다. 아명은 용호(龍浩)라 하였고 자는 도일(道一)이고 나중의 도호는 춘암(春菴)이다.

그의 부친은 가난한 살림으로 전형적인 평민이며 소작농이었다. 막골은 낮은 구릉지의 끝자락에 위치한 김해김씨, 경주최씨, 임씨 등이 집촌(集村)을 이루고 마을 앞 펼쳐진 삼교천유역의 기름진 옥토를 경작하는 전형적인 농촌마을이다. 삼교천, 성리천의 풍부한 용수로 농업생산력의 발달을 일찍 가져왔고 또한 삼교천 건너쪽 구만리 평야와 함께 내포 최대의 곡창지대였으며 육로운송이 발달하기 전에 포구의 이점(利點)으로 조세로 거둔 곡물운송과 수산물의 교환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포구마다 장시가 번성했던 곳이다 .

이중환의 『택리지』³⁾에서도 살기 좋은 곳으로 기록했을 정도로 내포의 가장 풍부한 농산물과 지리적 이점을 가지고 있던 하포리 주변 지역은 일찍이 양반사족이 정착했으며 이들은 신분적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토지의 소유집중화를 통해 주변의 성리, 용동리, 구만리 등의 토지를 인근 평야지역 농민들에게 당시 농지제도였던 지주전호제(地主佃戶制)⁴⁾의 불합리한 봉건적 토지관계를 맺고 있었다. 농민들은 봉건적 토지관계의 모순 구조 아래 억압된 신분제 그늘 속에서 착취와 수탈을 당하는 이종고에 시달리며 살았다. 내포지역 세곡운반을 담당했던 전운사의 횡포와 수탈은 갈수록 심하였고⁵⁾ 내포지역 곡창지대는 탐관오리들

3) 이중환의 『擇里志』에서 언급한 가야산 주변의 19개 고을을 의미하며, 내포의 기준이 되는 浦는 삼교천의 由宮津으로 오늘날의 삼교천과 무한천이 만나는 지점이다. 그러나 예산지역을 중심으로 사용된 내포는 작은 규모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輿地圖書』에서 도로를 설명하는 가운데 “無限川路에서 德山界까지 12리 인데, 곧 내포로 가는 大路이다”라고 하였다. 현재에도 삼교읍 하포리에는 포내, 내포, 개안 등의 지명이 있다.

4) 지주전호제(地主佃戶制)란 전호라 하는 지주에게 토지를 빌려 경작하는 지기 봉건사회 및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신이 소유한 토지를 남에게 빌려주고 그 농민들이 생산한 것의 절반, 또는 그 이상을 받아내는 제도인데 국가에서 세를 걷어 관리들에게 월급을 주는 관수관급제가 사라지고 대신 등장한 것이 지주전호제이다. 가장 큰 특징은 양반의 토지집중을 통한 소유이다.

5) 세곡의 징수 운송 수납을 관리하는 책임자로서 전운사를 두어 충청도, 전라도, 경상

이 가렴주구를 일삼던 곳이다.

여기에 조선후기부터 개항 이후로 이어지는 잦은 민란과 물밀듯이 들어오는 서양문물과 이를 앞세운 서양세력의 조선침탈 행위는 민중들에게는 큰 위기의식을 불러 일으켰다. 이러한 소식은 신문물의 유입이 빨랐던 내포지역의 민중들에게 급속도로 전해졌다.

당시 예산지역에서 동학농민혁명이 전면전으로 확대될 때 이를 저지하기 위해 유림들로 조직된 대흥유회소 부대 일남면(一南面) 책임자 안희중(安熙中)⁶⁾이 봉건관리들의 탐학실정을 기록한 「임성경란기」를 보면 다음과 같다.

“군수와 방백들의 탐욕으로 공평하지 못하였고 침탈과 학대가 여러모로 자행하니 각 고을에 민란이 때를 같이 하여 연발로 퍼졌다. 민란이 동비 때문이라 구별할 수도 없고 동비가 민란 때문에 이상해진 것도 아니다. 소리가 같으면 서로 응하는 법이다. 공(公)과 사(私)가 모두 괴리되었으므로 드디어 난운이 된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 혼돈위기의 상황에서 구원의 소식으로 동학사상이 1880년경 급속도로 내포지역 농민들에게 전파되었다. 춘암 박인호는 어릴 적 동네 글방을 다녀 1883년 동학입도 전에 유교적 소양을 갖추었으며 위기의식이 폭넓게 퍼져 있던 당시의 시대상황을 인식했을 것이다. 여기에 1868년(고종5) 오페르트(1832~?)가 덕산에 있는 남연군 묘를 도굴하려다 실패한 ‘남연군 분묘 도굴사건’은 그 정박지와 사건 경로, 약탈의 피해지역이 하포리와 인접했던 같은 군내지역으로 바로 옆 동네에서 벌어진 사건이어서 당시 서양인들의 침탈과 야만적인 행위에 대한 이곳 농민들의 경각심은 매우 높았다.

도의 세곡, 즉 전세 대동미 뿐만 아니라 각종 명목의 잡세미도 거두어 서울로 운송하게 하였다. 전운사 밑에 감관(監官),포구의 배주인 등이 가렴주구 함으로써 농민혁명 당시 전운사의 혁파를 주장했다. 남접에서 집강소를 통해 탐관오리의 징계를 주관할 때 당시 전운사였던 조필영은 순천부사 이수홍, 전라좌수사 김철규 등이 동학농민군에게 체포되어 곤장을 맞았으며, 여산부사 김원식은 피살되었다. 전운사는 갑오개혁으로 세금이 급납화 되면서 혁파되었다.

- 6) 안희중(安熙中 1844~1917)은 본관은 순흥이며 안구열(安龜烈)의 장남으로 광시면 운산리에서 출생. 위정척사사상을 지닌 전통적인 유림 집안이며 서숙을 설치하고 향촌에서 유학을 가르쳤다. 후일 광서유림학풍의 조성과 을미 병오 의병전투를 주도한 유림세력에게 사상적 영향을 주었던 인물로 보여진다.

춘암 박인호가 동학사상을 처음 알게 된 것은 기록에 1883년(포덕24년) 김월화라는 여인이 경영하는 예산읍내 오리정 주막집에서다.⁷⁾ 월화의 남편은 박씨이고 이미 동학을 믿고 있었으며 이곳 주변(주교리)지역과 예산을 비롯한 내포지역은 정부의 동학탄압 시기인데도 1883년 이전에 이미 동학사상이 들어와 교단조직화는 형성하지 못했지만 조직의 맹아적 성격을 띠며 비밀포덕활동⁸⁾을 펼치고 있었다.

춘암은 1883년 3월 18일 의암 손병희와 함께 불원천리하고 해월 최시형선생을 찾아가 동학에 입도했다. 이듬해 해월의 명에 따라 내포지역에 적극적인 포덕을 펼치기 위해 의암성사와 함께 1884년 공주 가섭사(迦葉寺)에서 해월의 지도 아래 49일간 기도 수련을 했으며 여기에서 육임제의 접(接)조직을 이어받아 춘암 박인호는 내포지방의 포덕에 정력을 다 바쳐 활동했다.

그는 기도 후에는 농사일을 하는 한편 의관을 정제하고 어육주초를 금하면서 10년을 정하고 독공과 연성을 행하였는데 연성을 하는 동안 잠을 잘 때는 낫자루를 베고 잠을 잤을 정도로 성(誠)과 경(敬)을 다하였다고 한다.

춘암은 당시 덕산포와 예산포의 경계 위치에 있던 하포리를 중심으로 덕산포 지역의 고덕구만리 최병헌(崔秉憲 1851~1917), 이진해(李鎭海 1873~1933), 용리 마준성(馬駿成), 임세영(林世榮), 덕산 북문리 고운학(高雲鶴)등을 포덕했으며 예산포지역으로는 김명배(金蔘培),⁹⁾간양리 박덕칠(朴德七 1854~1938), 박응하(朴應河 1856~1894), 종경리 장석준(張錫俊 1875~1945), 대흥 차경천(車敬天) 등의 지도급 인물을 포덕하여 조직활동의 거점을 마련하였다. 이들은 내포 전지역을 상대로 꾸준한 포덕활동을 펼쳤다.

춘암 박인호는 관의 집요한 탄압과 지역 유림의 멸시와 반대를 극복하고 포덕

7) 이상재 「내 고장이 낳은 인물 춘암 박인호 연구」 -3.박인호의 동학입도
일명 '삼거리'라 불렀는데 현재는 오거리로 변했으며 남쪽방향인 예산중학교 하천 북개 한 입구 부근에 주막이 있었다. 주막 앞쪽은 오소리골에서 내려오는 냇가가 예산천과 합쳐 흐르고 읍내로 가기위해 커다란 목다리가 있었다. 후일 홍주성 패퇴 후 박인호는 월화의 도움으로 현 예산여고 부근 동편 야산에 토굴을 파고 삼동을 숨어 지냈다.

8) 해월 최시형은 1882년 苞제도를 신설하여 조직을 재정비하였다

활동 10년이 경과되면서 관내에 거포가 12포, 기타 포는 무수히 많았으며, 그 세력 규모를 보면 해미, 서산, 태안, 공주, 천안, 홍성, 결성, 당진, 평택, 송탄, 안성, 죽산, 연천, 진천 까지 포(包)조직을 갖추었고⁹⁾ 내포지방의 하나의 큰 세력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3. 교조신원과 광화문 복합상소

삼남지방을 비롯하여 박인호를 중심으로 한 내포 동학 교세는 지속적인 포교 활동에 큰 조직체로 성장하였다. 동학 교리에 포함된 개혁적 이념이 사회화하여 외세의 조선침탈과 이에 대한 위협과 불안, 부정부패의 척결 신분제의 타파 등을 요구하는 사회개혁의 주장이 높아가자 1892년 1월 충청감사 조병식은 동학을 금지하는 금령을 발표한다. 이에 동학 지도부는 보다 적극적인 활동을 모색해야 할 처지가 되어 농민과의 유대를 강화하고 연대성을 굳건히 하여 이를 토대로 동학교의 인정과 억울하게 대구장대에서 순교한 교조 수운 최제우의 신원을 요구하는 민소(民訴)형태의 교조신원운동이 필요했다.

1892년 서인주(徐仁周)¹⁰⁾ 서병학(徐丙鶴)¹¹⁾의 주도로 10월에 공주에서 처음으

9) 조석헌(曹錫憲 1862~1931)의 북점일기-『曹錫憲歷史』

태안군 원북면 신두리에서 출생. 예포 박덕칠(박희인)에 의해 동학 입도하여 1894년 '내포 10월 혁명'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였으며 홍주성 패퇴 후 박덕칠과 함께 도피생활을 함께했으며 동학혁명 봉기부터 1918년 까지 필자가 경험한 사실을 1908년 11월에 회고체로 정리한 것으로 서산 태안 10월 동학혁명 기포와 신례원 관작전투, 홍주성전투 등의 전투 기록과 도피과정에서 해월 최시형선생과의 만남, 동학재건활동, 1906년 이후 내포지역의 천도교 활동을 기록하고 있다. 굳건한 동학조직의 연원계통을 통한 내포북점농민군의 활동내용이 어느 기록보다도 풍부하고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10) 서인주(1851~1900) 일명 장옥(璋玉) 호는 일해. 수원사람이다. 원래 30여년간 불교 수양하였으나 1883년 강원도 인제에서 최시형을 방문한 이후로 동학의 지도자가 되었다. 교조신원운동 과정에서 해월의 교단 지도부와 자주 마찰을 빚었으며 전라도의 손화중 김개남 김덕명 전봉준을 제자로 거느리고 새로이 '남접(南接)'이라는 세력을 구축하였다.

동학혁명 2차봉기 때에 청주병영을 공격한 이후 행적을 감추었다가 1900년에 체포되어 교수형에 처해졌다.

11) 서병학(徐丙鶴 ???) 충주 출생) 1880년대에 서인주와 함께 최시형을 찾아 입교 동학 교단에서 의식을 제정할 때 유교식 禮敎를 많이 수용하게 하였다. 1893년 2월 광화문 복합상소에 참여하여 군대와 협동하여 정부 권세가를 숙청하고 개혁을 단행할 것을

로 이루어졌다. 공주취회(公州聚會) 또는 공주집회라 불리는 이 집회에는 지역적으로 공주를 중심으로 하고 서병학과 서인주의 영향력 아래에 있던 교도들이 참여했다. 박인호의 덕의포 교인들이 얼마나 참여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이 공주취회는 해월을 중심으로 한 교단 지도부의 공식승인 없이 이루어짐으로써 해월 최시형의 연원계통상 직계 범주에 속한 박인호의 내포지역 교인들이 참여하기엔 제약성이 따랐을 것이다.

공주취회에서 충청감사 조병식(趙秉式)은 “동학은 나라에서 금하는 것이니 동학한다는 것을 빙자하여 재산을 약탈하거나 잡아다 구타하는 탄압행위는 금하라”는 감결을 동학교인에게 하달했다.

춘암 박인호가 이끈 내포지역 동학교단이 집단적인 조직체로 교조신원의 요구한 것은 1893년 2월 11일 결행했던 광화문복합상소이다. 공주취회 후 남접과의 갈등으로 흐트러진 동학교단의 규합과 당면한 요구를 하기위해 곧바로 삼례취회를 해월 중심의 지도부가 개최하였는 데 전라감사에게 신원요구를 한 것에 확실한 답변이 없자 직접 한양으로 올라가 임금에게 교조의 신원과 포교의 공인을 얻기 위해 3일간 광화문 앞에 엎드려 통곡하면서 상소문을 올렸다.

『천도교회사초고』¹²⁾에 복합상소의 결행동기 기록을 보면 다음과 같다.

“해월 최시형은 1893년(포덕34) 계사 1월에 서병학 등이 선사의 원(冤)을 신(伸)키 위하여 상장규(上章叫)생 코져 하거늘 해월신사 왈 융사(隆師)의 도(道)에 성력(誠力)을 진(盡)할 뿐이오 가히 시기미지(時機未知)를 구(拘)할 바 아니라하시고 수(遂)히 허락하사 봉소도소(奉疏都所)를 청주군 송산리 손천민(孫天民) 가(家)에 정하시며 각지문도에게 통유문(通諭文)을 발(發)하시다”

주장하고 외세와 기독교를 축출할 계획을 세워 외국공사관과 교회에 그들을 배격하는 글을 붙이는 활동과 그해 3월 보은집회를 개최하는데 참여했다. 1894년 8월 보은에서 체포된 후 경리청 참모관 등의 관직을 받아 동학교인을 정찰하고 진압의 길잡이 노릇을 하였다.

12) 1920년 천도교청년교리강연부에서 교리강의안으로 작성되었다. 여기엔 내포지역 총두령 춘암 박인호의 령에 따라 예산과 고덕구만리 용리에서 동학혁명기포가 일어났다는 내용이 수록되어있다.

춘암 박인호는 해월신사의 복합상소운동이 뜻이 성사 될 수 있도록 각 포 교인들이 합심할 것을 담은 통유문을 받고 동년 2월 8일에 강시원 손병희 김연국 손천민 등의 교단 지도부를 비롯하여 내포지역 접주급과 교인들을 이끌고 과거 보는 옷차림으로 분장하고 한양남부 남소동 최창한(崔昌漢) 집을 봉소도소로 정하고 유숙하며 상소문 작성과 절차를 수립하였다. 이때 서병학은 봉소계획을 바꿔 대병(隊兵)과 협동하여 정부 간당을 소탕하고 전복시켜 개혁하자고 주장했지만 손병희 김연국 손천민 박인호 등이 '철저한 준비와 계획 없이 추진하는 것은 동학교도 전체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한다'는 이유로 서병학의 주장을 물리쳤다.

2월 10일에 박인호를 비롯한 지도급은 많은 교인들과 함께 치성식을 거행하고 다음날 광화문 밖에 일제히 엮드려 통곡하며 상소했다. 복합상소에 소수(疏首)는 박광호(朴光浩), 제소(製疏)에 손천민(孫天民), 서사(書寫)에 남홍원(南弘源), 봉소(奉疏)는 손병희(孫秉熙), 박인호(朴寅浩), 김연국(金演局), 박석규(朴錫奎), 임국호(任局鎬), 김낙봉(金洛鳳), 권병덕(權秉憲), 박덕칠(朴德七), 김석도(金錫道), 이근상(李根尙) 등 이었다.

복합상소를 주도한 40여명의 지도급 교인 중에 상소문 소수부터 봉소까지의 인물은 거의 북점 동학교인이 참여했으며 상소의 구성원이 아닌 전라도 출신도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김석윤(영조), 김낙봉, 남계천, 장경하, 조동현, 손화중, 배규찬 등이 그들이다.

광화문 복합상소의 봉소에 박인호를 비롯한 ,예포의 박덕칠과 소수에 박인호의 종형제간인 박광호였다는 것은 내포동학교단이 조직력과 역량이 상당히 강화되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또한 교조신원운동의 중심적 활동을 펼쳤고 어느 정도 북점의 주요핵심조직에서 대표성 그룹 위치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목숨걸고 광화문 복합상소를 했던 지도부에게 “귀가하여 안업(安業)하면 소원을 들어줄 것이다”라는 임금의 교지가 하달되었지만 이후 지방 동학교인에 대한 탄압은 이전이보다 더욱 심할 뿐이었다. 동학지도부는 지금까지의 신원운동과 상소 등의 온건적 방법은 이미 한계가 분명하게 드러났음을 알고 새로운 운동 방법을 모색하고자 보은취회를 열었다. 이미 복합상소운동을 통해 더욱 강성해

진 내포동학 교단을 비롯한 타지역의 동학교인들은 농민의 일반적 요구와 열강의 조선침탈 음모를 직시하고 폐정개혁을 부르짖고 보국안민의 기치를 내걸고 반외세 척왜양운동으로 치닫고 있었다. 당시 2월 서울거리에 게시되었던 방문 내용에 척왜양에 관한 기록을 보면

“금수 같은 왜양이 우리나라를 짓밟고 있는데 어찌 병이(秉彝)의 도리를 말할 수 있겠는가. 임진년의 원한을 다시 겪지 않으려는 충의지사가 있으면 함께 나아가자”¹³⁾

이와 같이 나라의 존재가 위태로운 상황에서 심지어 목숨조차 연명하기가 어려운 처지에 놓이자 손병희를 비롯한 교단지도부는 해월 최시형을 찾아가 “각지도인이 도탄에 빠졌으니 보유할 수 있는 방책을 지시하소서”¹⁴⁾라고 요청하였다. 그 결과 3월 10일 해월 최시형은 마침내 각지에 방문을 보내고 팔도 교인을 보은 장내(帳內)로 모이게 하였다.

춘암 박인호는 보은취회에 내포지역 많은 교인들을 이끌고 포명이 명시된 중기(中旗) 그리고 작은 오색기(五色旗)와 척왜양창의(斥倭洋倡義)라고 쓴 대기(大旗)를 앞세우고 참여했다.

복합상소에서 부터 전체 동학교단의 중심인물로 더욱 부상되었던 춘암 박인호는 보은취회에서 “덕의대접주”라는 포명을 해월 최시형으로부터 받았다.

보은취회에 내포지역 교도들의 활동내용을 엿볼 수 있는 기록을 보면 다음과 같다.

3월 29일 조

“다른 모든 깃발을 철거하였지만, 오직 척왜양기만은 남겨두어 자신들의 요구가 척왜양에 있음을 강조하였다. 같은 날 지도부에서는 노약자들을 진중으로부터 주변으로 철수시켰으나, 상주, 선산, 태안, 수원, 광주, 천안, 직산, 덕산 등지의 교도들은 오히려 장내로 몰려들었다. 수원접이 장재(壯才)에서 장내(帳內)로 진을 옮기었다. 12시경 광주 수백

13) 복합상소에 예산지역 교도들이 얼마나 참여했는지에 대한 기록 자료는 아직 찾지 못하였지만 봉소에 예포의 거장 상암 박덕철이 등장했다는 것은 그의 포덕활동 지역인 대흥 서산 태안 등지의 교인과 1890년 3월 16일 해월 최시형을 방문하여 입도한 서산 지극 최형순의 포에서도 참여했을 것으로 본다. 박덕철은 염주를 목에 걸고 승복으로 변장하고 태안지역 교인들을 포덕했다고 전해진다.

14) 「東學文書」 『叢書』 5, 76쪽

명이 네바리에 돈을 신고 왔다. 광주(廣州), 천안, 직산, 덕산 등지를 비롯한 많은 돈이 장내로 들어오고 길에는 쌀을 사고파는 사람들이 그치지 않았다.¹⁵⁾

이처럼 자료를 통해 보면 당시 춘암 박인호가 이끈 내포 동학교인들은 쉽게 해산하지 않는 강성조직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보은취회가 열린 3월 11일을 기점으로 보았을 때 초기에 참여한 기록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다만 춘암 박인호는 덕의대접주 포명을 받았지만, 내포지역 교도들이 기록은 3월 29일에 가서 나타난다. 보은취회 시기는 주로 평야지에 살고 있던 예산을 비롯한 내포지역 교도들에겐 바쁜 농사철과 모내기 준비때문에 많이 참여하기엔 다소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보은취회 동학지도부는 척왜양과 민씨축출건 등의 현실타개를 위한 6개항의 요구조건을 제시했다. 어윤중은 임금의 두 번째 효유문을 들고 다시 장내리로 찾아와 함부로 병위(兵威)를 써서 해산시키지 못하고 “조정에서도 교도들이 적자임을 인정하였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설득하여 결국 3일내 해산하겠다는 약속을 얻었고 이후부터 해산이 시작되었다.

4. 전면전 직전의 봉기와 전개

보은취회를 개최한 이후 탐관오리들의 횡포는 날이 갈수록 더해 가자 전봉준, 정익단, 김도삼 등이 1894년 1월 10일 고부성을 습격하여 관원들이 불법으로 징수한 곡식을 빼앗아 백성들에게 분배하여 주고 만석보를 파괴하였다. 이른바 고부봉기가 일어났다.

그동안 여러 집회를 통해 의식 수준과 역량이 높아 가던 동학교도에 대한 모진 탄압으로 농민층의 불만이 누적되어 서서히 농민봉기의 기운이 무르익고 있던 내포에도 이 소식이 전해지자 박인호가 이끈 내포동학조직에서도 봉기움직임이 일기 시작했다.

15) 1990년 간행 『천도교회사』 53쪽

지역사료인 『대교김씨가갑오피난록(大橋金氏家甲午避亂錄)』에 의하면 “소위 동학은 보은도회 이후에 그 치열한 모습은 달이 다르고 때가 다르게 마을마다 접이 만들어져 사람마다 주문 읽는 기세가 타고르는 불길과 같았고 물결치는 조수와 같았다”고 하였다.

마침내 1894년 2월 15일 덕산민란(봉기)이 일어났다. 내포동학교단 본부역할을 해오던 박인호의 하포리 이웃지역인 삼교천유역 구만리와 양촌, 합덕지역의 농민들이 봉기하여, 덕산에 사는 전 병사 이정규(李廷珪)의 가혹한 수탈과 탐학에 분노한 수천 명의 농민군이 집결하여 이정규의 집과 열 두 호의 집을 불태웠다. 이 사건 후 충청감사 조병호(趙秉鎬)의 장계에 따라 조정에서는 이정규를 평안도 선천으로 유배시켰고, 봉기를 주도한 나성뢰(羅成雷)와 방재성(方栽星) 김윤필(金允弼) 등도 함께 유배 보내거나 엄형을 가하여 농민을 효유하는 조치를 내렸다.¹⁶⁾

덕산봉기가 일어난 지역은 예산지역에서 가장먼저 동학사상이 유입된 곳이며 춘암 박인호가 초기 포덕활동을 펼쳤던 곳이어서 이후 예산지역에서 전면적인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나는 데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덕산봉기의 영향으로 4월 9일에는 덕산군과 서산군의 경계를 이루는 원평에서 봉기가 일어났다.¹⁷⁾ 이렇듯 박인호의 동학교단내 차별과 학대가 극심했던 양반사족의 향리층에 대한 응징이 봉기의 형태로 지역적으로 분산된 각 접주중심으로 크고 작은 소규모 봉기가 자주 발생하였다.¹⁸⁾ 충청감사 조병호가 조정에 보낸 4월 26일자 전보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16) 속음청사(續陰靑史) 癸巳 十二月 十六日 조 ✓

17) 원평에 사는 김윤식(金允植)의 기록. 서산사람 홍종식의 1929년 기록- 원평리 박준회(朴準會), 이운하(李雲夏 1876~?)등이 중심이 되어 운산면 용현리 보현동에 사는 이진사를 응징하기 위해 통문을 돌려 약3 00여명이 원벌에 집결하여 유숙하고 곧바로 개심사로 모여 회의를 한 후 평소 동학도를 탄압하고 소작관계로 마찰을 일으켜 민심을 일었던 이진사 집을 불태우고 전과를 사죄하고 죽기를 청한 이진사를 징치하고 효유하여 놓아 보냈다.

18) 봉산면 효교리 출신 계은(溪隱) 이정태(李鼎泰)는 전주이씨 명망가 집안으로 그의 나이 11살 때 동학농민군으로부터 기습을 받아 가옥이 불타고 재물을 약탈당해 구호지책으로 당곡리로 옮겨 살았다. 후일 이정태는 덕산군 내야면 면장을 역임했으며 동학군으로부터 피화 내용과 일대기를 『溪隱一生歷事』에 기록하여 남겼다.

“충청도의 동학농민군이 해산했으나 봉변을 당한 양반들 집에서 가동(家僮)수백 명을 모은 다음 동학농민군의 집만 골라 불을 질러서 수일 안에 다시 동학농민군들이 모여 소란을 일으킨다고 보고하였다”

위 내용을 보면 봉변당한 양반사족들이 농민군 해산 후에 농민군의 집에 방화를 하는 보복행위가 나타난다. 지역 향리의 양반사족층은 전면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유교적 통치사회에서의 양반사족의 사회적 신분과 특권을 유지하기 위해선 동학농민군의 ‘신분제 철폐’ 요구와 ‘인내천’ 사상에 동조할 수 없는 모순적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동학사상은 당시 양반중심의 신분제 사회에 큰 동요를 불러 일으켰다. 대중에는 유림층에서도 사회개혁의 필요성과 동학농민군 진압을 위해 들어온 청일양군의 침탈행위를 나라의 위기로 인식했던 진보적인 유림인사는 동학사상을 받아들여 박식한 소양을 기반으로 동학농민군을 이끌고 적극적으로 전투에 참여했다.¹⁹⁾

청일전쟁에서 패한 청군의 표략행위가 온양지역에서 자주 발생하고 일본군의 온양 주둔시 막대한 주둔비용을 아산 백성들에게 부담시켜 박인호의 동학교단 지도부에서 대응을 모색할 때 대흥군에서 동학교도 상투단죄 및 장살사건²⁰⁾(21)이 발생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박인호의 교단 지도부는 자극을 받아 동학을 반대하고 탄압하던 양반사족을 주로 밤에 집중적으로 응징했다.

이에 유림세력은 위기의식을 느껴 동학농민군에 대항하기위해 관의 지원협조 체제를 구축하며 대흥지역 유림세력이 총결집하여 호서 최초로 ‘대흥유희소’를 대흥향교에 설치했다. 이날이 음력 1894년 8월 7일이다.²¹⁾ 이후부터 예산지역은

19) 고덕 구만리 해주 최씨 거두였던 최병헌(崔秉憲 1851~1917)이며 그의 삼자(三子)는 동학혁명 당시 전사했다. 관작리 전투에서 사망한 간양리 박응하(朴應河 1856~1894)와 태안동학혁명의 거두 고수옥과 그의 아들 고정환(高正煥 1876~1963) 신암 종경리 장석준, 태안 방갈리 문장로를 중심으로 한 남평 문씨 일가 등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20) 1894년 7월 11일 발생한 이 사건은 대흥에 사는 동학교도 한명이 공당(公堂)으로 올라와 행패가 심하다고 하여 반농민군세력에 의해 체포되어 대흥관아로 끌려가 수백 명이 죽이려 했지만 군수 이창세가 만류하고 동학군의 머리상투만 잘라버렸는데, 다음날 읍촌사람들이 그를 밟아 죽였다. 이들은 군수 이창세와의 연대의식이 높았던 반농민군 입장에 있던 유림 향촌사람들이었다.

21) 『任城同苦錄』 大興儒會所 序

춘암 박인호의 동학농민군과 진압군세력과의 전선을 형성하며 준 전시상태로 돌입했으며 일대 접전을 예고하고 있었다.

춘암 박인호가 이끄는 내포지역 농민군들이 전라도와 마찬가지로 항일전을 펼치자는 주장이 높아가자, 사태의 심각성을 느낀 선무사 정경원은 8월 6일 홍주로 와서 박인호를 비롯한 인근의 동학접주들을 소집하여 타일러 설득했는데 농민군의 활동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더 모험적으로 확산되었다. 양민들의 피해가 따르자 명분 없는 봉기에 엄징을 하기위해 해월 최시형은 갑오년 8월에 교도들을 단속하기 위해 일반문도에게 「계칙문」을 발표하자 이를 받들어 전라도에서 운영하는 군 단위 집강소의 최고 책임자 집강(執綱)을 두어 곧바로 시행했다. 1894년 9월에 선무사 정경원이 일본군 충주 병참사령관 福富孝元에게 제보한 정보 가운데 박인호 포에서 임명한 집강 명단은 서산 이창구, 홍주 김영필, 아산 안교선, 온양 방화용, 결성 천대철, 면천 이화삼, 예산 박덕칠, 덕산 박인호, 청양 유진우, 남포 김우경, 목천 김형식 등 11개소이다.²²⁾ 집강에 임명된 이들에게 동학농민군의 금찰을 하고 봉기한 데 대한 군률의 책임을 지게 했다.

그러나 집강체제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그 원인은 4월에 부임한 홍주목사 이승우가 막객 흥건을 불러 동학농민군에 대한 방어대책을 수립하고 홍주성을 굳건히 쌓고 대포와 무기를 수선하고 ‘진압군 행동강령’인 <軍制>²³⁾ 까지 제정하는 등 동학농민군 진압준비가 치밀하게 이루어지자 7월부터 예산을 비롯한 내포 전지역은 기포단계로 들어가 있어 집강체제는 지역 동학농민군의 활동과 배치되었고 금찰행위는 지켜지지 않고 오히려 해당 접주들로부터 반발만 샀다.

9월 12일, 대홍군수 이창세는 날로 강성해가는 동학농민군을 유화책으로 관아에 성대한 연회를 열고 대소인민들을 다 모이게 하여 즐기고 마시게 하였다. 이 자리에서 임금의 반포내용과 국대공(홍선대원군)의 교유문을 낭독하며 가르쳤다.²⁴⁾ 이 말에 동학을 추종하려던 대홍군 인민들이 감동하고 그 덕을 칭송하였다고 한다. 그 후 대홍지역은 한 동안 소강상태였지만, 대홍 외 내포지역의 각 포 중심의 농민군 활동은 활발했다.

22) 『주한일본공사관기록』 2, 63~64쪽 내포지역

23) 『洪陽紀事』 해당 일자 참조-14개 조항으로 농민군 진압에 필요한 행동강령이다

24) 안희중의 『任城經亂記』

9월 14일에는 홍주 해안지역 농민군이 홍주근해에서 서울로 올라가는 호남의 세미를 빼앗고 홍주 서창에 쌓아두었던 쌀 수 백석을 탈취했다. 같은 날 안무사 김경제는 각 지역농민군 지도자를 또다시 홍주 관아로 불러 효유했지만 농민군을 진정시킬 수 없었다.

9월 23일경 홍주에는 농민군을 토벌하기 위해 일본군이 들어온다는 이야기가 전해졌다. 홍주목사 이승우는 일본군의 진입이 농민군을 진압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보고 마을마다 유계를 설치하게 하고 식별표를 발행하는 등 진압준비를 실행에 옮겼으며, 토벌의지를 천명하기 위해 농민군 지도자 정원갑, 이한규를 처형했다.

예산 대홍에서는 9월 30일에 와서 소강상태는 깨지고 본격적인 무장투쟁으로 이어졌다. 9월 30일 정부관군인 장위영 소관 백낙완이 예산을 비롯한 내포지역 동학농민군을 토벌하기 위해 경병과 일본군 2백 명을 거느리고 집결지인 홍주성으로 가기 전 대홍군에서 유숙을 했다. 이때에도 군수 이창세는 군계까지 직접 나가 이들을 맞이하고 술과 음식을 대접했고 그 후 순영(巡營)으로부터 보낸 영병군관 구완희(具完喜) 부대도 대홍군에서 유숙을 하였는데 이들은 군율이 엄정치 못하여 민가에 들어가 닭과 개를 노략질해가므로 인민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이 사실이 박인호의 동학교단 지도부까지 전해졌다.

동학지도부 박덕칠과 한영철은 대홍군수에게 1차로 비판서신을 보냈고 박덕칠은 “대홍군수 이창세는 백성을 사랑하지 않고 일본놈과 부동하여 선비들을 해칠 인물이다”라는 2차 비판서신을 영병군관 구완희에게 보냈다.²⁵⁾ 이에 발끈한 이창세는 분개하며 곧바로 대홍유림 안희중 박사준 신정조 등과 협의하고 순영과 초토영의 지원을 받아 동학농민군 토벌계획을 수립했다. 그러나 10월 7일 밤에 예포동학농민군의 선제공격으로 대홍관아를 습격 점령하여 대홍동학혁명의 횃불을 밝혔다.

25) 안희중의 『任城經亂記』

5. '10월 기포령'과 동학혁명 전투

9월 18일 해월 최시형의 기포령이 내려지자 이 곳 박인호의 덕의포에 9월 그믐날 하오 3~4시에 기포령을 기재한 '초유문'이 도달되었다. 덕의대접주인 박인호는 30일 자시(子時)에 드디어 철성을 울리게 하여 전면전인 내포동학혁명의 횃불을 밝혔다. 비밀 긴급 연락체계였던 철성소리는 인근 용리, 구만리포를 통해 신속히 합덕 서산 당진 태안 등 내포교단 조직 각 포에 전달되었다. 이에 따라 이종율, 최병헌, 최동신, 이진해, 고운학은 용리, 구만리포의 동학교도들을 농민군으로 무장강화시키고²⁶⁾(27) 먼천, 합덕 지역의 각 접주에게 기포를 알리고 덕포 동학농민군을 구만리에 총결집시켰다. 박인호는 전면전으로 확산된 혁명운동을 펼치기엔 협소한 하포리를 벗어나 인접한 동네인 목시(성1리) 장촌면소를 점령하여 '대도소' 설치계획을 알리자 이들은 농민군을 이끌고 장촌면소를 점거하여 예산에서 기포한 박희인의 예포동학농민군과 합류하여 혁명본부인 '예포대도소(禮包大都所)'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무장투쟁을 전개하기 위해 진을 갖추었다.

박인호는 진압군인 정예관군이 들어오는 것을 목격하고 이들과의 일대 격전이 뒤 따를 것으로 판단하고 농민군의 취약한 무기를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여겼다.

10월 3일 농민군은 해미, 덕산, 예산, 은양관아를 습격하여 무기를 탈취하여 고덕 대천리(지금의 구장터)에 무기고를 설치하여 저장시켰다. 이미 고현내면소(고덕면소)는 농민군의 수중에 접수되어 있었다. 10월 9일 자 『官報』에 실린 내용을 보면 “충청감사 박계순이 덕산군수 김병완(金炳琬)을 무기를 빼앗긴 죄로 파출하였다”는 보고내용이 있다.

박인호는 10월 1일 서태안지역도 기포케하여 태안 해미지역의 동학농민군 수천명이 일어나 서산군수 박정기(朴鎭基)가 이끄는 진압군과 접전하여 군수 박정기를 처단하고 서산관아를 점령했다. 다음날 2일에는 태안남부지역 남산리 고수옥이 이끈 농민군과 북부지역 방갈리 문장로의 주도로 만 여명의 농민군이 아

26) 『천도교회사 초고』 박인호의 기포내용 부분

침에 태안관아로 쳐들어가 불을 지르고 태안부사 신백희(申百熙)와 안무사 김정제(金慶濟), 이방 송봉훈(宋鳳勳)을 즉석에서 처단하고²⁷⁾ 수두령 21인을 처형 직전에 무사히 구출하고, 창고를 열어 그동안 농민들의 강제로 수탈한 식량을 빈민들에게 분배했으며 농민군은 더욱 단결되어 충남 전역에서 모두 일어나는 혁명운동이 되었다.²⁸⁾

10월 초 대홍군수 이창세는 유희군과 초토영군의 지원을 받아 동학농민군 토벌계획을 세우고 농민군과 침예하게 대립하고 있을 때 예포대접주 박덕칠은 대홍관아를 점령하여 군수의 계획을 미리 차단하고 군량미와 무기를 확보하여 장차 있을 전면전에 대비하기 위해 관아습격을 계획하였다. 10월 7일 밤 목천 유진수(兪鎭壽), 홍주 박성순(朴成順), 대홍 차경천(車敬天) 등을 앞세워 횃불을 들고 사방에서 모인 동학농민군과 함께 징을 울리며 포를 쏘며 군량창고와 무기고를 부수고 관아를 점령했다. 농민군은 탈취한 군물을 가지고 신속리로 운반하였다. 이날 밤 대홍군 관아를 점령한 농민군은 기세충천함을 보이며 징을 치며 돌아다녔고 반농민군 입장에 있던 양반들은 언제 들이 닥칠지 모르는 상황이어서 산속으로 피신하여 노숙하는 일이 다반사였다. 관아에 있던 군수 이창세는 차남을 데리고, 유럽대표 안희중을 비롯한 4인은 가까스로 담장을 넘어 봉수산 임존성 쪽으로 도피했다.²⁹⁾

내포유림들의 요청에 홍주목사 이승우는 전라감사 발령이 취소되고 10월 6일 홍주목사로 영임(仍任=留任)한데 이어 이튿날에 호연초토사로 임명되었다.³⁰⁾

호연초토사까지 명을 받은 이승우는 믿었던 대홍군 관아가 점령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신속하고 대대적인 농민군 토벌공격에 나섰다. 10월 8일 관군 정예 260명을 뽑아 김동현, 김석교, 이석범으로 하여금 광천시장에서 전투를 벌여 농민군 수십 명을 죽이고 9명을 체포했으며 탈취 당한 군기 외에 대포 40대 화약 수천 근 등을 거두었다.

27) 1894년 12월 12일 충청도관찰사 겸 병마수군절도사인 박제순의 장계내용

28) 조석헌(曹錫憲 1862~1931)의 북점일기-『曹錫憲歷史』

29) 안희중의 『任城經亂記』 대홍관아에서 구사일생으로 빠져나온 이창세의 당시 처절함이 기록되어 있다.

30) 『고종실록』 갑오 10월 6,7일조

10월 11일에는 중군 김병돈이 각 진에서 뽑은 용장 500명을 거느리고 박인호의 동학혁명본부인 '예포대도소'를 공격하기 위해 삼교 목소리(木巢里)로 출군하였다. 농민군 지도부는 갑작스런 관군의 공격에 패하여 서산 쪽으로 후퇴했다. 예포대도소전투에서 패한 농민군은 많은 군량미와 군수물자를 빼앗겨 큰 손실을 보았으며 농민군 토벌에 일본군까지 합세한 상황에서 물자부족과 추운겨울이라는 불리한 점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동학혁명운동을 펼쳐나가는 데 상당히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관군 유희군 민보군 등으로 구성된 홍주초토영의 토벌 진압군은 동민군의 기선을 제압했다고 판단하여 지속적인 색출과 탄압이 극심하게 진행되었다. 예포대도소 전투에서 패하여 혁명본부를 잃은 박인호, 박덕칠등의 동학지도부는 내포 서산 태안지역에서 재기포를 주도하였다. 이때 참여한 사람들은 노인 어린이 등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었고 각 촌에 총을 가진 사냥꾼까지 자진 참여하여 그 수가 6천에 가까웠다.³¹⁾

박인호는 예포대접주 박덕칠과 함께 농민군을 10월 22일 태안 동면 역촌리에 주둔했다가 23일 해미 귀밀리에서 유숙하고 24일 운산면 여미평에 집결했다. 동학지도부는 군량미 확보와 세규합을 위해 면천방향으로 행군했다. 오후 4시경에 승전곡에 이르렀을 때 일병 4백 명과 병정 5백 명, 유희군 수천 명이 길에 복병하였다가 일시에 돌출하여 양진이 서로 접전하였다. 이때 일병 10여명이 중상을 당하고 숫적 열세를 감당 못하고 패하여 도주하였으니 동학군의 대승이었다.³²⁾ 충청도에서 정예부대인 일본군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곳은 면천 승전곡 전투와 가흥병참부의 하라다(原田)소위가 인솔하여 패퇴 도주한 괴산 애재전투가 유일하다.

농민군은 곧바로 면천성을 점령하고 유숙했다. 다음날 25일 남산 문봉리를 거쳐 장천리(고덕 상장리)를 거치며 많은 농민군이 합세했으며 군량미를 확보하고 구만리(아래뜸)로 이동하여 유진했다가 오가 역탑리 일대에서 유숙했다. 수만의 농민군이 오가 역탑리에 주둔할 때 이 일대 지역농민들을 비롯하여 신암 종경

31) 『동학사』 174쪽에는 박인호, 박덕칠 등이 7천명으로 기포했다고 기록했다.

32) 조석헌(曹錫憲1862~1931)의 북접일기-『曹錫憲歷史』

리 지역 농민들이 밥을 제공하는 데 지게로 날랐다고 한다.³³⁾

다음날 농민군은 북상을 시도하기 위해 26일 신례원 후평 관작리로 이동 주둔하였다.(현재 관작리 산업단지 부근) 3만여 농민군이 일본군을 몰아내고 한양으로 올라가려는 북상계획에 당황한 홍주 초토영에서는 이를 막기 위해 급히 중군대장 김덕경에게 출전을 명했다. 김덕경은 관군 및 유희군 4~5천 여명의 토벌군을 이끌고 27일 새벽 관작리 빙현에 포를 설치하고 아침 해가 밝기 직전 농민군을 향해 집중 포사격을 감행하여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농민군은 흩어졌다가 다시 모여 관군 진영의 야산을 포위하고 점전하며 산을 정복하여 토벌군을 격퇴시켰다. 내포농민군의 최대승전으로 평가되는 관작전투에서 농민군 사망자는 4명이 밝혀졌고 관군의 피해는 중군대장 김병돈(덕경), 영관 이창욱, 주홍섭, 창섭 형제, 한량 한기경, 예산유생 홍경후, 김명황과 그의 아들 김한규, 덕산 의동 신태봉을 비롯하여 30여명이 목숨을 잃었다.³⁴⁾

농민군은 곧바로 예산관아를 점령하고 대진을 오가 원천리 주변 야산으로 이동 주둔했다. 이때 농민군 지도부는 “天不變道亦不變”이란 대장기를 원천리 성황당 당나무 옆에 세웠다고 한다.(지금의 당집 방앗간) 농민군은 분천리를 지나 목소리(목시)를 거쳐 덕산 역촌(삼교 역리)으로 이동하여 유숙했다.

삼교 역리 주변(송산리포함)에 3만여 농민군이 27일 유숙하고 다음날 인 28일에는 수운 대신사 탄신기도일이라 역촌 뒷고개에서 기도를 올린 다음 초토영과 일본군이 주둔하고 있던 홍주성 공격을 위해 신리방향으로 진군했다.

홍주성전투의 최초접전은 성 밖에서 시작되었다. 일본군은 분대병력을 빙고치 언덕에 배치하고 농민군의 한 부대가 서북문 방향 쪽의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 빙고치를 향해 진격해 오는 농민군을 향해 사격했다. 다수의 사망자를 내면서 계속진격해오는 농민군을 감당하기 어려워 일본군은 황급히 서문으로 퇴각하였다. 농민군은 서문방향을 공격하려고 진격했지만 일본군의 기관총 응사

33) 성암 문병석(文秉錫) 선생의 증언

34) 조석헌(曹錫憲1862~1931)의 북집일기-『曹錫憲歷史』에 의하면 “적군일등 장두 6~7인과 적군 7~8백여명을 몰살 소멸했다”고 적고 있어 진압군의 피해가 상당히 컸던 것으로 파악된다.

에 사상자를 내고 진격을 못했으며, 일본군은 북문 앞 덕산 방향 800미터 지점 고지에 진을 치고 있던 농민군을 포 공격을 감행하자 농민군은 두 대열로 갈라졌다가 다시 모여 간동 방향으로 이동하여 민가에 불을 질러 연기로 조준을 어렵게 하며 동문공격을 시도했다. 하지만 일본군의 일제사격을 감당할 수 없어 동학지도부는 긴급 대책을 세워 예포대접주 박덕칠로 하여금 힘이 있고 민첩한 농민군 200여명을 뽑아 결사대를 조직하여 대포를 동원하고 동문폭파작전을 감행했지만 실패하고 말았다. 성 밑에 짚단을 쌓아 성을 넘으려고 짚단을 가지고 돌격하다 죽고 쌓은 짚단이 불붙어 타죽는 농민군 등 죽는 자가 속출했다.³⁵⁾매천 황현은 농민군의 피해규모를 “농민군이 계속해서 그 자리에 쌓여서 시체가 성 보다 높아 마치 긴 독과 같은 것이 셋이 되었다”라고 기록한 점으로 보아 동학농민군의 사망자 수는 엄청나게 많았다. 박인호의 동학지도부는 열악한 무기와 전투물자 부족, 추위를 극복하지 못하고 농민군의 희생만 커지자 다음날 후퇴를 명하고 잔여 농민군을 이끌고 오가 역삼리와 덕산으로 이동하여 각각 분산 주둔했다.

이후 홍주 초토영의 관군과 일본군은 민보군을 앞세워 대대적인 농민군 추격전을 감행하여 색출 체포하여 홍주성으로 이송시켜 많은 농민군을 북문 앞에서 처형시켰다. 잔여 농민군은 해미성에 주둔했다가 관군의 기습공격으로 많은 사상자를 내고 서태안 해안까지 후퇴했다가 11월 10일 매현에서 최후의 항전을 펼치다 많은 사상자를 내고 패퇴하여 내포동학혁명은 사실상 소멸의 길로 접어들었다. 이후 관군과 일본군 유희군의 농민군 색출작업은 가혹했으며 체포된 농민군을 무자비한 방법으로 처참하게 처형했다.

6. 맺 음 말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춘암 박인호는 동학에 입도하여 10여 년 동안 꾸준한 포덕 활동을 펼치며 거대한 단일 연원의 교단 조직을 갖추고 1894년 내포동학 농민혁명을 이끌었던 농민군지도자였다. 그가 태어난 곳은 내포평야의 곡창지대로 나라의 기강이 무너져 탐관오리의 착취와 수탈이 심했던 그 대상지였고 그

35) 『갑오동학기병실담』

직접적인 피해를 당한 농민들의 삶은 희망을 잃고 도탄에 빠져 현실의 모순을 타파할 새로운 후천개벽을 열망하고 있었다. 유소년시절부터 한학을 배워 유교적 소양을 갖추고 힘과 용기가 남다르게 뛰어났던 춘암은 수 천 년 동안 억눌린 질곡의 역사를 지닌 채 희망을 잃고 살아가는 농민들에게 절실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이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춘암의 고뇌와 성품은 성장하면서 열강의 위협과 핍박받던 당시 민중들의 삶을 짓누르고 있던 기존의 신분제도와 기성 종교인 유교의 가치체제와 질서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의식변화를 동학을 접하면서 겪었을 것이다. 결국 인간의 평등에 대한 종교적 열망과 그 방법에 있어 수직적인 구도가 아닌 수평적인 구도로 전환시키고자 등장한 동학사상을 접하게 된 것이다. 춘암이 동학을 처음 접했던 곳이 예산읍내 오리정 월화가 경영하는 주막이었다. 월화라는 여인으로부터 “사람들이 하늘을 섬기고 바른 마음으로 믿어 이세상은 평화로운 새 세상이 된다”는 말에 춘암은 이제까지 그가 걸어왔던 생각과 크게 벗어나지 않는, 시대의 모순을 해결할 수 있다는 새로운 사상과 철학이라 믿고 진정 “새로운 세상이 오는 것”으로 생각하고 불원천리하고 해월 최시형을 만나 1883년 3월 18일에 동학에 입도하였다.

관의 지목과 탄압을 피하면서 내포지역 농민들을 상대로 거대한 12개 포의 조직을 형성하고 공주(公州), 삼례(參禮), 광화문(光化門), 보은(報恩)등지에 내포 많은 교인들을 이끌고 수운대신사의 억울한 죽음을 신원(伸冤)하고 동학을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도록 촉구하는 대집회에 참여했다. 이 집회는 매우 평화적이고 대중적인 방법으로 당시의 팽배된 민의를 결집시켜 중앙정부에 건의하였던 최초의 민주적인 집회이며 시위였던 것이다. 나아가 춘암이 내포교도들을 이끌고 참여할 때 ‘척왜양창의기’를 앞세우고 참여했다는 것은 열강의 침략 속에서 위기를 겪고 있던 우리나라와 민족을 구하고자 하는 강한 염원과 의식이 있기에 가능했다고 볼 수 있다. 충청도 관찰사의 여러 차례 회유에도 굴하지 않고 목숨까지 걸고 비폭력 방법으로 결행했던 광화문복합상소는 춘암 박인호의 신념과 의지를 확인했던 사건이었으며 내포동학조직의 역량과 위상이 어느 정도 북점의 대표성을 가졌던 중요한 사건이었으며 이러한 경험적 실천운동은 2년 후에 일어난 내포지역 갑오년 동학혁명의 불길로 이어졌다.

일본군은 왕궁을 점거하고 고종을 사실상 포로로 하여 일본의 괴뢰내각을 출범시켜 소위 갑오경장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일본군의 침략사실이 동학군에 전해지자 “보국안민” “척양척왜”의 기치를 들고 재기포가 일어났다. 이에 해월 최시형은 전국의 동학접주를 9월 18일 충청도 청산으로 모이게 하여 대일항전(對日抗戰)의 총기포령을 내리자 춘암 박인호는 내포동학 교도들에게 9월 30일 자시(子時)에 철성을 울려 기포령을 알렸다.

본격적인 태세를 갖추기 위해 ‘예포대도소’를 설치하고 혁명의 지휘본부 역할을 했지만 홍주 초토영의 기습으로 본부가 불타버리고 수많은 군수물자를 상실하여 박인호의 농민군 활동은 사실상 어려운 처지였다. 하지만 계속되는 관군의 무자비한 탄압과 처형은 내포동민군의 재기포의 단서가 되었고 박인호의 지도부들은 서태안지역 농민군을 규합해서 주력부대를 결성하고 먼천승전곡에서 일본군의 정예부대를 퇴각시켰으며 북상을 기도하기 위해 신례원 관작리에 주둔, 이곳에서도 관군과 유희군을 크게 무찔러 내포최대 승전지를 일궈냈다.

10월 28일 내포행정의 중심인 홍주성으로 이동 시산혈해(屍山血海)의 대혈전으로 공격에 나섰지만 일본군의 신무기와 화력을 당할 수가 없어 천추의 한을 남긴 채 처참하게 패퇴하였다.

반봉건 반침략주의의 기치 아래 일어난 동학혁명이 우리 내포지역에서 박인호를 중심으로 펼쳐졌다는 것은 우리역사의 거대하고 의미있는 운동이었으며 동시에 더 나은 세상을 열어가려는 열망과 의지가 담겨있다고 하겠다.㉞

1920년대 천도교의 민족운동과 박인호

임 형 진 (경기대학교)

1. 서 언

春菴 朴寅浩는 동학 천도교의 제4세 대도주로 수운, 해월 그리고 의암의 뒤를 이은 천도교 최고의 어른이자 민족지도자였다. 그는 이전 선배들의 뒤를 이어 민족종교 천도교의 전통을 계승하고 도법을 수호하며 일제시대 국내 항일운동에 있어서 민족 지도자의 위치에서 그 역할을 다했었다. 특히 동학을 계승해 천도교가 근대적 종교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단정비와 천도교 민족운동의 기반을 다졌다. 그리고 박인호는 의암 손병희의 사망이후 분열되는 교단을 수습하면서 1920년대와 30년에 걸쳐 6·10만세운동과 신간회 운동 그리고 멀왜기도운동을 주도적으로 추진하여 민족독립운동사에 커다란 족적을 남겼다.

그러나 이전의 교조들이 우리 근대사에서 수많은 민족운동의 중심에 서서 난관을 극복하며 민족진보에 기여한 바가 정직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비해 상대적으로 춘암 박인호에 대한 기록과 평가는 매우 빈약하고 인색한 형편이다. 이는 박인호 이전 천도교 지도자들의 업적이 한국근대사에서 워낙 큰 영향력을 미쳤기에 박인호의 활동이 가리워져 독자적인 활동상이 제대로 드러나지 못했다는 외적요인에 원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도 3·1운동 이후 천도교단의 신구파 분열 당시 교단의 주도권이 신파 쪽에 의해 장악되면서 상대적으로 구파 쪽을 대표했던 박인호에 대한 역할이 축소되거나 기록이 소실되는 등에 기인한다고 보여 진다.

3·1운동으로 일제의 대대적인 탄압을 받았던 천도교였지만 이후에도 여전히 민족운동의 중심에 있었고 최전위의 역할을 했었다. 당시 천도교는 종교집단이긴 보다는 하나의 민족주의 운동세력의 정점이었다.³⁶⁾ 천도교의 활동은 시대변혁과 민족진보의 전위로서의 역할을 마다하지 않았다. 어찌 보면 그 과정은 한 민족에게 비로소 한국민족주의의 자의식을 심어 주는 통과례였다고도 할 수 있

36) 이러한 내막을 알고 있었기에 일제는 천도교가 분명 종교단체임에도 총독부 학무국 관할이 아닌 유사종교로 취급해 총독부 경무국 관할로 두어 언제나 감시의 대상으로 삼았었다.

다. 이것의 실현을 위해 동학 천도교는 온몸으로 시대와 부딪치며 역동적인 삶을 살아왔다. 그랬기에 그들의 삶의 과정이 바로 한국민족주의의 실천 과정이라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천도교 제4세 대도주인 춘암 박인호는 그런 민족운동의 최정점에 있었던 인물이다. 박인호에 대한 새로운 접근과 재평가 작업이 요구되는 것은 민족종교인 천도교의 올바른 자리매김은 물론 그를 중심으로 한 천도교 구파들의 활동상황들이 제대로 밝혀져 역사에 기록되어야 한다는 당위에 입각한다고 할 수 있다.

II. 천도교단 정비와 민족문화운동

박인호는 1855년 2월 1일 충청도 덕산군(현 예산)에서 朴命九와 온양 방씨 사이에 큰 아들로 태어났다. 그는 아명을 龍浩라 하였고 자는 道一이고 나중의 도호는 春菴이다. 그의 집안은 전형적인 상민집안이었으며 빈농으로 매우 가난하였다.³⁷⁾ 그런 연유로 그는 11세에 돼서야 비로소 한학공부를 할 수 있었다고 한다. 아버지 명구공은 근엄하고 행동거지가 분명하였고 경우가 엄격하였으니 아들의 훈육에도 남다른 데가 있었다고 전해진다.

박인호가 천도교와 인연을 맺는 계기는 그가 단골로 다니던 예산읍내의 주막 주모를 통해서였다. 주모로부터 동학이라는 것이 영남에서 생겼는데 기름에 불을 붙인 것 같이 영남 호남에 크게 번지는데 그들의 주장은 사람을 하늘 같이 섬기고 바른 마음으로 한울님을 믿어 이 세상은 평화로운 새 세상이 된다는 내용을 들은 것이다. 19세기 중반 탐관오리의 가렴주구가 기승을 부리고 서학의 유습으로 가치관이 혼란스러워진 그즈음 대부분의 조선 백성을 희망을 잃고 정도령적 메시아의 출현을 기다리는 상황이었다.

박인호에게 수심정기, 보국안민, 사인여천, 포덕천하의 개념들은 이제까지 그가 가지고 있던 생각과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특히 그의 마음에 든 것은 인의 예지는 先聖의 所定이요 수심정기는 唯我更正이라 한 대목이다. ‘시천주조화정영세불망만사지’는 전혀 새로운 철학이었다. 1883년 3월 이러한 궁금증을 가지고

37) 홍장화, 『천도교운동사』, 천도교중앙총부, 1990, 89쪽.

박인호는 동학의 최고 지도자인 해월을 만나 입도를 하게 된다.³⁸⁾

동학에 입도한 이후 박인호는 광화문복합상소와 보은 장내리 교조신원운동의 참여로 교단의 중진 지도자로 부상하였다. 그리고 동학혁명에서는 덕산의 대접 주로서 승전곡전투와 신례원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다. 동학혁명 이후 교조인의 암이 도일하면서 국내 교단의 실질적 책임자로 교조의 빈자리를 메우는 역할을 충실히 했었다. 1905년 동학을 천도교로 개칭한 이후 송병준 등의 배신과 출교 그리고 그에 따른 재정적 압박 등으로 출범과 함께 매우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었다. 당시 박인호는 교단에서 교장, 고문, 금융관장, 경도사라는 여러 직책을 맡아 활발한 활동을 한 것이 인정받아 1907년 차도주에 이어 1908년 제4세 대도주가 되었다.

박인호는 대중적이고 서민적인 사람이었으나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는 거시적인 안목과 뛰어난 상황판단으로 고비 때 마다 큰일을 해냈으며 교계의 큰 희망적 인물이었다. 춘암이 첫 번째 시도한 것이 교의 체제정비였다. 한울님 밑에 교역자를 체계화하여 구체적 신앙체계를 세우는 것이 급선무였던 것이다.

그는 우선 중앙총부의 공의에 부처

(가) 계층구조의 확립을 위하여

①수운을 대신사로 ②해월을 신사로 ③의암을 성사로 추존하여 하이아라키(Hierarchy)를 세웠다.

(나) 교회를 중앙총부라 하여 남부 흥문동으로 이전하여 무거운 공기를 일신하였다가 3월에 대사동으로 이전하였다.

(다) 장실을 만들어 의암을 모시고 좌봉도에 김명배를 임명하였다.

(라) 중앙총부 고문에 오세창을

(마) 전제관장에 김완규를

(바) 금융관장에 윤구영을

(사) 신도사에 라용환을

(아) 법도사에 양한묵을

(자) 전제관장에 이병호를 임명하였으며

38) 박인호가 입도할 때 의암 손병희도 함께 입도했다. 기골이 장대하고 재치가 발랄한 청년들이 불원천리하고 찾아와 입도하니 해월은 크게 반가워하며 “오도에 새 운이 트는 구나”하고 외쳤다고 한다. 이상재, 『춘암 박인호 연구』, 예산문화원, 1997, 13쪽 참조

(차) 천지인 삼통대계를 세워 종문 삼대 기념일로 삼으니

① 4월 5일은 천일 ② 8월 14일은 지일 ③ 12월 24일은 인일로 정하고 ④ 3월 10일과 6월 2일은 기념일로 ⑤ 12월 1일을 교일기념일로 정하였다.³⁹⁾

또한 박인호는 이후 10여년 에 걸쳐서 규칙 개편을 단행하여 교단의 주문, 기념가, 축문, 법문, 각종 규칙과 제도, 교단의 체제, 대헌, 인사규정 등을 개편하였다. 1909년 8월에는 전국의 24개의 대교구를 설치하여 해당구역의 모든 교무를 관장하게 하였다. 이를 통해 천도교는 비로소 근대적인 종교의 모습을 갖추어나가고 나아가 3·1운동 당시 어느 종단보다도 강력한 결속력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박인호는 교단 정비가 어느 정도 성과를 이루자 이를 본격적인 민족문화운동으로 연결시켰다. 그것이 언론출판 사업과 각종 학교운영이었다. 그가 민족계도를 위한 문화사업에 적극성을 띠기 시작한 이유는 망국의 원인이 낙후된 민도에 기인한다고 판단, 범국민적 민중교육을 통한 민도의 고양만이 자주독립의 첩경이라고 내다보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범국민적 민중교육은 교육사업과 출판문화를 통한 대중계몽만이 가장 실효성 있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했다. 박인호는 1910년 7월에는 교리선전과 학술보급을 위해 중앙총부 내에 월보과를 창설하고 월보과에서는 다음 달 15일 『천도교회월보』를 창간하였다. 『천도교회월보』(이하 『월보』라 지칭함)는 비록 천도교의 기관지로 발행되었으나 그 의의를 결코 과소평가 할 수 없는 대중계몽적 성격을 강하게 지니고 있다.

즉, 『월보』가 천도교의 기관지로서 발행되었기에 때문에 천도교의 포교라든가 이념선양이 일차적인 목적임에는 틀림없으나 이념구현이 목표하는 바가 현실적으로 보국안민을 우선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기관지로서가 아니라 자주독립을 지향하는 민족도적 사명의식의 차원에서 출발하고 있었다. 따라서 『월보』는 처음부터 한글 전용을 원칙으로 하였다. 또한 창간호를 비롯한 초기 『월보』의 편집 방향을 보더라도 교리부·학술부·기예부·물가부·중앙총부 회보 등으로 짜여져, 특히 학술부에는 지리·역사·물리·경제 등에 대한 강의안이 중심을 이루면서 국제동향은 물론 당시 국민 대다수가 농민인 점을 고려하여 근대적 영농법도 아울러 다루고 있다. 더욱이 통권 제12호부터는 언문부편

39) 위의 책, 43-44쪽.

을 따로 두어 한문에 소양이 없는 대중을 상대로 대중교화를 본격적으로 전개해 나갔다.

이와 같이 『월보』는 이전에 만들어진 『만세보』처럼 범국민적 교육을 목적, 배일자주의식 고취를 위한 대중계몽지로서의 역할을 아울러 수행한 것이다. 그러나 신문지법에 의해 발행되는 『월보』는 예상했던 대로 순탄할 수가 없었다. 압수, 삭제, 발매중지, 발행중지 등 일체에 의한 탄압이 계속되다가 결국 통권 315호(1938년 3월호)를 끝으로 강제폐간 되고 말았다. 그것은 당시 천도교에서 극비리에 실시하고 있던 멀웨어운동이 1938년 2월 17일에 일경에 발각됨으로 해서 중앙 간부진이 강제 교체되고 천도교대헌이 폐기되는 강압 속에서 『월보』 역시 폐간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⁴⁰⁾

한편 성미제와 五款制⁴¹⁾ 등으로 천도교의 재정형편이 호전되었을 때 우리나라의 사학운영은 더욱 어렵게 되어 있었다. 왜냐하면 1906년 2월에 이미 일제는 국내에 통감부를 설치, 한일합병을 위한 준비공작을 진행시키는 가운데 1908년 8월 8일에는 사립학교령이 선포되고 10월 1일부터 이를 시행⁴²⁾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당시 대한매일신보(1908년 12월 6일자)에서 간악한 무리가 일 국민 지체의 개발됨을 장해코자 하여 이 불리한 법령을 제정했다고 논박하고 있는 점만 보아도 이 교육령이 한국인의 교육기회를 박탈하려는 악법임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사학의 경영난은 1910년의 한일합병 이후 더욱 가중되어 갔다. 이에 천도교는 학교의 신규설립보다 경영난에 허덕이는 기설 학교를 인수경영하기로 교육사업의 방향을 돌리지 않을 수 없었다.

당시 천도교가 인수 경영한 보성학원과 동덕여학교의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보성학원의 경우 이미 천도교에서 매월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었으나 가중

40) 김용조, 「천도교기관지의 변천과정」, 『신인간』 통권 40호, 1982년 8월호, 신인간사, 112쪽.

41) 성미제는 1907년 5월 17일 宗令 67호로 실시되어 교단의 재정난을 극복하고, 나아가 1911년 12월에 宗令 91호로 오관제를 정하여 이를 교인들의 의무실천의식으로 확대 실시케 했다. 특히 성미제는 매일 아침, 저녁밥쌀을 낼 때마다 내수도되는 분(부인)이 식구별로 한 숟가락씩 생쌀을 떠서 성미그릇에 모았다가 매월말 소속교구에 바치는 것으로 뒤에는 현금으로 환산해 바치기도 했다. 이것이 뒤에 교단의 물적 토대를 확보하는 계기가 되었고 나중의 3·1운동에서도 천도교가 자금을 댈 수 있었던 원천이 되었다. 홍장화, 「천도교교리와 사상」, 천도교중앙총부, 1990, 206-209쪽 참조.

42) 노영택, 『일제하민중교육운동사』, 탐구당, 1979, 38쪽.

되는 경영압박으로 폐쇄 위기에 처하게 되자 학교측의 요구에 따라 1910년 12월 21일 경영인수계약을 체결, 보성학원이 안고 있던 3만원의 부채를 정리하고⁴³⁾ 정식으로 경영권을 인수했다. 그 후 일제는 사립학교에 대한 탄압을 가중시켜 이듬해인 1911년 8월에 조선교육령을 발포하고, 동년 10월 사립학교령을 개정했으며, 다시 1915년에는 개정사립학교규칙을 만들어 민족사학에 대한 탄압을 강화해 갔다.⁴⁴⁾ 그러나 천도교에 의해 운영되는 보성학원은 이러한 강압에도 불구하고 착실히 성장하여 한국사학의 명문으로 육성되어 갔다.⁴⁵⁾

동덕여학교(당시는 동덕여자의숙)의 경우를 보면 1908년에 조동식에 의해 설립된 후 역시 경영난에 부딪치게 되자 처음에 천도교는 1909년 11월부터 매월 10원씩의 보조금을 지급했다. 당시 동교의 1개월 경상비와 학용품비가 18원이고 보면 10원은 적지 않은 액수였다.⁴⁶⁾ 뿐만 아니라 첫 달인 11월에는 특별기부금 100원을 회사하기도 했다.⁴⁷⁾ 1910년 12월에는 다시 동교에 매월 70원씩을 증액 보조하기로 하는 한편 관훈동에 있는 천도교 소유의 대지 209평과 32칸 와옥까지 기부하여 셋방살이 신세를 면하게 했다.⁴⁸⁾ 그래도 가중되는 경영난을 면할 길 없던 동교는 1914년 12월 27일 천도교대도주 박인호 명의로 설립자를 선임, 동년 3월 30일에 변경인가를 받음으로써 천도교가 정식으로 인수경영케 된 것이다.⁴⁹⁾ 그 후 사학에 대한 일제의 탄압으로 1910년 1,227개교였던 사립학교가 1918년에는 461개교로 격감⁵⁰⁾하는 가운데서도 동덕여학교는 168평의 2층 양육교사를 신축(1915년 9월)하고 1918년에 개교 10주년기념식을 갖는 등 꾸준한 발전을 보여왔다.⁵¹⁾

그러나 1919년 천도교가 3·1운동을 주도함으로써 해서 손병희를 비롯한 고위 간부 대부분이 투옥되고 재정상태 역시 악화됨에 따라 자연히 학교경영에 타격

43) 고려대학교70년지편찬실, 『고려대학교70년지』, 고려대학교70년사편찬위원회, 1975, 93-94쪽.

44) 노영택, 앞의 책, 40쪽.

45) 그러나 천도교는 보성전문학교를 인수한 뒤에도 천도교의 종교적 색채를 학교에 강요하지 않았다. 다만 중학과정의 修身시간에 천도교 교리를 강의하려 하였다 한다. 앞의 책, 『고려대학교70년지』, 59-60쪽.

46) 『의암손병희선생전기』, 의암손병희선생기념사업회, 1967, 287-289쪽과 김웅조, 「천도교의 문화운동」, 『인문과학연구』, 제2집, 성신여대, 1982년, 참조..

47) 『대한매일신보』, 을회3년 11월 24일자.

48) 『전기』, 289-290쪽.

49) 동덕 70년사편찬위원회, 『동덕 70년사』, 동덕학원, 1980, 66-67쪽.

50) 조선총독부학무국, 『조선교육요람』, 1928, 152쪽.

51) 주13) 참조.

을 받게 됐다. 그런 상황에서도 3·1운동이후 학교경영비가 계속 지급되어 오다가 1920년 3월 1일에 개정된 신사립학교규칙 제4조의 『사립의 전문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보통학교의 설립자는 그 학교를 설립유지하기에 족한 재산을 가진 재단법인이어야 한다』는 조항의 규제 때문에 재단법인의 설립을 서두르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에 재단법인보성전문학교의 구성을 위해 천도교 측에서 10만원, 진주부호 김기태가 15만원을 출연한 것 외에 민족사학의 장래를 염려하는 58인의 유지인사가 출연한 총 433,000원을 기본재산으로 12월 28일자로 인가를 받게 되었다.⁵²⁾ 이로써 천도교는 재단에 경영권을 넘겨주고 보성학원에서 손을 떼었다. 이로써 천도교는 12년여 동안 총 35만여 원의 막대한 교단재정을 투자하면서 희생적으로 경영했던 보성학원에서 물러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천도교는 물러나면서도 재단 구성시 중앙총부로 사용하던 송현동 소재 건물과 대지 615평 5합을 5만원에 평가 기증하기로 하고, 그 외 현금 5만원을 출연키로 되어 있었으나 처음 1만원을 지불한 것 외에 나머지는 재정 악화로 내지 못하다가 송인동 소재 천도교 소유의 상춘원 대지 10,165평과 동지상 건물로 대물 변제했다.⁵³⁾

동덕여학교 역시 3·1운동이후의 재정악화로 더 이상 경영을 감당할 수 없게 되어 1923년 12월 25일 경영권을 조동식 교장에게 넘겨주었다.⁵⁴⁾

그 외에도 1910년 이후 천도교에서 직간접으로 관여했던 사립학교 중에 지금까지 알려진 것만 해도 용산에 양영학교와 양덕여학교, 마포에 보창학교와 삼호보성소학교, 청파동에 문창보통학교, 전주에 창동학교, 대구에 교남학교와 명신여학교, 청주에 종학학교, 안동에 봉양의숙, 선천에 보명학교 등 수 십개 교에 이른다.⁵⁵⁾ 그리고 천도교는 박인호의 주도 하에 대외적인 육영사업뿐 아니라 대내적인 교육운동 역시 적극적으로 전개했다. 1908년 6월 10일 종령 10호에 의한 강습소규정을 공포, 전국 시군에 800여개소의 교리강습소를 설치했는데, 1910년부터는 이의 효율적인 관리운동을 위해 일련번호를 붙여 호칭했고, 또한 동년에 사범강습소를 서울에 설립하는 것 외에 지방 각 시군에까지 확대 실시했다.⁵⁶⁾

52) 앞의 책, 「고려대학교70년지」, 119쪽.

53) 이재순, 「의암성사의 업적 - 육영사업을 중심으로」, 「신인간」 통권 320호, 1974년 9·10월 합병호, 신인간사, 38쪽.

54) 동덕70년사편찬위원회, 「동덕 70년사」, 90-91쪽.

55) 조기주, 「동학의 원류」, 보성사, 1979, 270쪽 외에 「천도교회월보」 등 참조.

이처럼 천도교에서 키운 각급학교의 졸업생들이 전국적인 3·1운동의 중심적 역할을 했음은 당연지사였다. 박인호가 주도한 천도교의 민족문화운동이 이후 전개된 수많은 민족운동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III. 교단의 분화와 6.10만세운동

박인호는 천도교단 전체의 총력을 기울였던 3.1운동에서 의암의 지시에 의해 운동의 지원과 교단을 담당하는 등 2선의 책임을 맡았었다. 그는 3.1운동 민족대표 48인 중 1인으로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박인호는 1920년 10월 출옥한 이후 3.1운동의 자금마련을 위한 빌미로 추진하였던 대교당 건립에 박차를 가해 이듬해 2월 준공을 마쳤다. 그리고 1922년 1월에는 교주 취임식을 거행하여 실질적인 교단의 최고 지도자에 올랐다.

그러나 박인호의 교주 활동은 순탄치 못했다. 3·1운동 이후 천도교에 대한 일제의 탄압과 감시는 가장 극렬했다. 일부 지방교구라든가 전교실이 폐쇄되는 데도 있는 등 천도교의 3·1운동으로 인한 후유증이 심대하였다. 특히 의암 순병희의 사망 이후 교단의 분화는 가장 심각한 문제였다. 이미 1922년 천도교의 급진파인 천도교연합회⁵⁷⁾측이 분열해 나갔을 때 연합회파측에서는 청년조직인 청년당에 대항하는 천도교유신청년회를 결성해 지방을 순회 강연토록 하기도 했었다.⁵⁸⁾

56) 『천도교회월보』 통권 10호, 1911년 5월호 이후 『중앙총부회보』란에 계속 일련번호로 된 강습소가 소개되고 있다.

57) 천도교연합회측은 동학사상의 이념적 지향을 급진 사회주의사상으로 해석해 직접적인 행동으로의 표출을 주장한 집단이다. 이들은 1922년 의암 사후 교단의 급진적 개혁을 주장하다 실패한 후 그해 12월 마침내 '주의가 다른 이상 같이 할 수 없다'며 교단을 이탈했다. 이후 연합회는 1926년 이동휘 등과 함께 고려혁명당을 결성하는 등 한국공산주의 운동에 한 획을 긋는 역할을 하기도 했다. 이들에 대한 연구서로는 최정간, 『해월 최시형가의 사람들』(웅진출판사, 1994)과 조규태, 「1920년대 천도교연합회의 변혁운동」(『한국근현대사연구』, 제 4집, 한울, 1996) 등이 있다.

58) 천도교유신청년회는 지방강연 등을 통해 천도교연합회의 교리와 주의를 선전해 연합회측의 활동을 지원했다. 1922년 12월 12일 황해도 서흥에서 김봉국이 '세계적 요구와 종교의 장래', 강인택은 '생존상 2대 욕구'라는 제목의 강연을 한 기록이 있다.(『동아일보』, 1922년 12월 13일자) 그러나 천도교유신청년회는 본 연구의 주제가 아니므로 생

그러나 천도교의 본격적인 위기는 1925년의 제 4대교주인 춘암 박인호의 교주직 인정여부를 놓고 벌인 신구파의 분열이었다.

천도교는 1922년 종헌과 교헌 개정 등을 통하여 이미 전통적인 교주제를 없애고 민주적인 종리원 합의제로 교단을 이끌어 가고 있었다. 그러나 교단을 장악한 최린계열이 1925년 천도교의 기념일⁵⁹⁾을 정비하면서 박인호의 승통기념일을 제외해 버리자 오영창 등이 강력 반발하면서 교주제 부활을 주장하는 등 최린계열과 대립했다.⁶⁰⁾ 이 일을 계기로 천도교는 1925년 두 개의 신구파 종리원이 생기는 등 심각한 분열을 맞았다.⁶¹⁾ 천도교의 전위정당인 청년당도 지지입장에 따라 분열의 뒤를 따를 수뿐이 없었다.

당시 천도교청년당의 주류는 신파인 최린계열이 다수였고 또한 중앙교단의 간부직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이들은 '복구운동방지단'을 만들어 기존의 개정제도를 옹호하는 입장을 밝히고 '천도교청년에게 격하노라'라는 유인물을 배포하기도 했다.⁶²⁾ 그러자 구파 계열의 청년당간부인 박래홍, 손재기, 조정호 등과 일부 지회에서는 구파 종리원을 지지하며 천도교청년당을 탈퇴 1926년 4월 5일 천도교청년동맹을 만들었다. 청년 조직의 양분과 활동의 이원화가 발생한 것이다.

이후 이들은 구파가 비타협적 민족노선을 중심으로 민족운동을 전개하고 신파는 타협적 민족노선에 따른 자치론적 민족운동으로 전개되었다. 따라서 구파측의 운동이 소수의 운동가 위주의 적극적인 항일활동으로 탄압과 그에 따른

략한다.

59) 천도교의 기념일은 먼저 天日-4월 5일로 수운 최제우가 동학을 일으킨 날을 말하며, 地日-8월 14일로 해월 최시형이 수운으로부터 도통을 승계 받은 날이며 人日-12월 24일로 의암 손병희가 해월로부터 도통을 전수 받은 날이고, 道日-1월 18일로 춘암 박인호가 의암으로부터 대도주의 종통을 전해 받은 날이다. 매 기념일에는 수천명의 지방교인들이 서울로 올라와 성대한 기념식을 치렀다. 천도교 세력의 대 사회운동들은 이 행사들을 전후해 주로 일어났음이 의미 있다.

60) 이후 천도교인에서 교주제 부활을 인정하는 측을 구파로 그것을 거부하는 측을 신파로 부르기 시작됐다.

61) 천도교의 신구파 분열은 이후 분열과 통합을 거듭해 오다 현재의 천도교중앙총부로 통합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구파측의 교주제 부활은 수용되지 않았지만 4대 교주인 춘암의 위상은 교단내에서 의암의 뒤를 이은 대도주로 확고히 자리 잡았다고 할 수 있다.

62) 『조선일보』 1925년 8월 29일자; 『동아일보』 1925년 8월 29일자.

희생으로 나중에는 활동자체가 미진해 지는데 비해 신파측의 운동은 대중지향적 민중계몽의 문화운동에 치중함으로써 질긴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었다.⁶³⁾

교단의 분열 이후 구파의 민족운동은 6·10만세사건에서의 활동에서 두드러졌다. 당시 국내에서는 제 2차 조선공산당결성을 이룬 책임비서 강달영이 사회주의 계열과 민족주의 계열간의 제휴를 주장하며 민족주의 계열의 대표랄 수 있는 천도교 측과의 연대를 희망했었다.⁶⁴⁾ 따라서 조선공산당의 투쟁지도부는 6·10만세운동의 거사를 위해 천도교 세력과 연대를 모색해 갔다.

이무렵 조선공산당과 천도교 구파와의 연결은 고려공산청년회의 책임비서인 권오설과 박래원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었다. 박래원은 권오설로부터 6·10만세운동에 대한 임무부여와 함께 가장 먼저 권동진에게 이 사실을 알렸으며,⁶⁵⁾ 교주 박인호와 이종린·박래홍 등에게도 알렸다. 그리고 이들로부터 6·10만세운동에 대한 적극적 승낙을 받아낼 수 있었다.⁶⁶⁾ 드디어 1926년 3월 10일 구파측 지도자 권동진의 집에서 양측이 회동함으로써 실현되었다.⁶⁷⁾ 이들의 공통점은 비타협적 민족운동노선의 견지에 있었다. 이 자리에서 6·10만세운동이 공동결행의 신뢰가 이루어져 이후 양측은 거사를 계획하고 천도교 측의 청년동맹이 적극 참여해 특히 독립선언서의 인쇄를 맡기로 했다.

63) 천도교 신구파의 활동을 놓고 어느 쪽의 활동이 최선이었는지의 판단은 유보되어야 한다. 고 함석헌선생의 '민족이 바루처럼 쓰러지는데 누굴 탓하랴' 말처럼 그 시절 민족의 좌절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고 보아야 한다. 바로 그 시절 마치 불꽃처럼 열정을 불사르다 산화하는 모습과 들끓처럼 끈질기게 살아남아 의지를 속으로 승화하는 모습이 양 파의 비유적 모습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들이 이념적, 사상적 갈등으로 분열된 점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그랬기에 양 진영의 통합은 훨씬 수월했다.

64) 강달영의 정치목표는 민족-사회 양 운동가들을 통합하여 (중국의-필자)국민당을 조직하려 했다. 김준엽, 김창순 공저, 1986, 『한국공산주의운동사』 2, 청계연구소, 455쪽; 6·10만세운동의 계획을 구체화시켰던 조선공산당 임시상해부 역시 계획 초기부터 천도교를 가장 유력한 제휴세력으로 간주하고 있었다. 장석홍, 「조선공산당 임시상해부의 통일전선과 6·10만세운동」, 『한국민족운동사연구』 干松조동결선생정년기념논문총 2, 나남출판, 1997, 770-771쪽.

65) 「햇불은 흐른다 반세기의 증언」(박래원 회고담), 『조선일보』 1964년 4월 26일.

66) 표영삼, 「6·10만세와 천도교」(상), 『신인간』 1992, 11, 22-23쪽.

67) 참석자는 천도교 측의 이종린, 오상준, 권동진이, 조공 측은 강달영이, 일반인은 박동완(33인 대표중 일인), 유억겸(유길준 아들, 연희전문 학감), 조선일보 주필 안재홍, 천무 신석우 등이었다. 김준엽, 김창순 공저, 앞의 책, 455쪽.

공산당원인 권오설로부터 선언서 인쇄를 제외받은 조공당원이자 청년동맹원인 박래원⁶⁸⁾은 청년동맹의 대표위원인 박래홍과 집행위원 손재기 등을 만나 거사 내용을 토의하고 각도의 천도교인들이 봉기하기로 약속 받았다.⁶⁹⁾ 구파의 원로이자 33인 대표중의 일인이었던 권동진은 자금지원을 약속했다. 박래원은 인쇄기술자로 5종의 인쇄물 10만장을 인쇄키로 했다.

박래원과 관계자들은 인쇄된 선언서의 지방배포와 지방조직과의 연락을 위해 두 가지 방법을 세워놓고 있었다. 우선 선언서는 지방의 조선일보 지사, 개벽지사, 소비자조합, 천도교 교구, 기타 청년단체 등에 보내기로 하고 발송 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였다.⁷⁰⁾

전라남도(광주·목포·순천·광양), 전라북도(전주·군산·정읍·남원), 충청남도(공주·대전·예산·홍성·천안), 충청북도(청주·충주·음성), 경상남도(진주·마산·부산·하동·고성), 경상북도(대구·안동·상주·영천·포항), 경기도(인천·개성·강화·의정부·수원), 황해도(황주·해주·사리원·재령·신천), 평안남도(평양·진남포·안주), 평안북도(신의주·선천·철산·정주), 함경남도(함흥·정평·홍원·영흥·원산·북청), 함경북도(청진·나남·은성·웅기)⁷¹⁾

선언서의 송달방법은 『개벽』, 『신민』, 『신여성』 등의 잡지에 약간 매를 넣어 보낼 계획이었다. 또한 이들 지역에서의 만세운동을 추동하기 위해 책임자를 선정하여 파견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전국을 철도선에 의해, 호남선·경부선·경원선·경의선 방면 등 4개 지역으로 나누고, 박래원은 호남선 방면과 경부선 방면의 중심지인 대전, 민창식은 경의선 방면의 중심지인 사리원이나 경의선 방면의 중심지인 원산을 근거로 활동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었다.⁷²⁾ 그리고

68) 박래원은 청년동맹 창립총회의 13명의 집행위원을 선출할 때 5명의 전형위원 중 한 명이었고 규약기초위원회 3명 중의 한 사람이었다. 『천도교월보』, 1926년 4월호.

69) 박래원, 「六. 十만세운동의 회상」, 『신인간』, 1976년 6월, 제337호.

70) 장석홍, “천도교구파의 6.10만세운동”, 국민대 문과대학, 『북악사론』, 제4집, 1997, 8, 301-303쪽 참조.

71) 「박래원신문조서(1회)」, 1926.10.14(문서번호 100), 340-343쪽 ; 박래원, 「6·10만세운동 회상」 『신인간』 통권 337호, 1976, 15쪽 참조. 이들 두 기록은 조금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양쪽에서 지명되고 있는 지역은 모두 표시했다. 「박래원신문조서(1회)」, 1926.10.14(문서번호 100), pp. 347-348에 기록된 지역은 박래원과 권오설이 함께 지정한 것이다. 위의 글 재인용.

72) 「박래원신문조서(1회)」, 1926.10.14(문서번호 100), 338-340쪽.

서울 시가지에는 6월 8일 밤을 기해 배포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⁷³⁾

또한 천도교는 천도교청년동맹원을 통한 지방 확산 계획도 세워놓고 있었다. 이에 천도교청년동맹의 중심인사인 박래홍이나 손재기 등이 교인 동원에 약속 하였으며, 집행위원인 최병현과 김덕연 등이 6·10만세운동 직전에 자신의 고향에 내려가 있다가 일경에 가택 수색을 당하기도 했다.⁷⁴⁾

이러한 계획하에 박래원은 인쇄를 위해 위장 하숙집을 얻는 등 악전고투 속에서 예정대로 인쇄를 무사히 마쳤다. 그는 인쇄물을 보관할 곳을 물색하다 『개벽』사에 숨겼으나 당시 수시로 수색 당하는 『개벽』사의 현실로 인해 인쇄물도 함께 발각되고 말아 대거 검거되는 비극을 맞이해야만 했다.⁷⁵⁾ 이를 계기로 천도교 구파의 지도자 뿐 아니라 청년동맹의 박래홍 대표위원 등 다수가 연행되고 많은 수의 요인들이 일제에 의해 처벌 받아야 했다.⁷⁶⁾

즉, 일제는 6월 6일 천도교와 조선공산당의 계획이 탄로되는 것과 함께 동시에 전국에서 천도교 인사들에 대한 검색·체포를 실시하고 나섰다. 그리고 6월 7일과 8일 이틀 동안에 집중적으로 전국의 천도교 기관 및 관계 인사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검색에 나서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때 일경은 심지어 교인 명부와 청년회원 명부 등을 압수하면서 천도교인의 가택까지 수색하는 등 동태 파악에 집중적인 관심을 쏟고 있었다.

물론 일제의 탄압과 수색은 천도교 조직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었다. 전국 전 지역을 대상으로 사회단체를 대상으로 철저히 검색·체포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시기적으로 볼 때 일제는 천도교와 조선공산당의 계획이 발각된 이

73) 「박래원신문조서(1회)」, 1926.10.14(문서번호 100), 344-345쪽.

74) 『동아일보』 1926.6.10. 5,6.12.면 2면.

75) 완성된 인쇄물은 살포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지방 등예의 전달에는 적어도 1천원의 자금이 필요했고 박래원은 이를 공산당과 권동진, 박래홍 등에 부탁해 자금을 어렵게 모으는 중에 발각되고 만 것이다. 겨우 1천원의 돈이 없어 모든 노력은 물거품이 되었다.

76) 천도교의 6·10만세운동에서의 활동은 성봉덕, 「六十만세운동과 천도교」 『한국사상』 제23호, 한국사상연구회, 1996. 표영삼; 앞의 글, 「6·10만세와 천도교」 『신인간』 1992년 11월호, 12월호 참조바람.

틀 후인 6월 8일부터 전국의 거의 전지역에서 철야 경계에 돌입하였으며, 순조의 인산 봉도를 위해 상경하는 사람들을 저지함으로써 만세운동의 조짐이 지방으로 파급될 여지들을 철저히 차단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시내의 여관이나 음식점 등을 수색하면서, 조금이라도 수상한 기미를 보이면 검속하는 한편 사람의 왕래가 잦은 정거장 등에 일경을 배치하여 왕래객에 대한 철저한 검문검색을 단행하였다. 이와 같이 철통같은 경계를 펼치던 일제는 인산 당일인 6월 10일 새벽에 일제히 행동을 개시하여 요주의 인사들을 강제 구금하였다. 이는 혹시나 인산 당일에 만세시위가 일어날 것에 대비한 사전 방지책이었다. 일제의 경계는 인산이 끝난 뒤에도 늦추지 않았다. 오히려 주요도시에서는 인산 이후에 경계를 더욱 강화시켜가면서 만세운동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였던 것이다.⁷⁷⁾

6.10만세운동에서 박인호의 역할은 그의 아들인 박래홍의 활동으로 미루어 그가 깊숙이 개입하고 또 총괄 지시했음을 알 수 있다. 박래홍은 보성중학교를 졸업하고 보성전문학교에 다니던 중, 중국 북경의 북경대학을 1년여 다니다가 귀국하였다.⁷⁸⁾ 그와 같은 다양한 학력으로 인해 천도교 내에서 국제공산주의자로 지목되기도 했던⁷⁹⁾ 그는 천도교청년동맹의 대표로서 천도교 구파 청년조직의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 박래홍은 6·10만세운동 과정에서는 크게 들어난 행동을 한 것은 발견되지 않지만 사촌간인 박래원의 배후에서 지원하였던 것으로 파악된다.⁸⁰⁾ 그리고 박래홍의 배후 지원은 박래홍과 박인호와의 관계와 더불어 박래홍의 천도교 구파내 위치로 볼 때, 곧 천도교 교주 박인호의 승낙과도 같은 의미로 보아야 할 것이다. 격문에 사용한 인장을 박인호 교주의 집에 묻을 수 있었던 것 역시 그 같은 배경에서 이해되어질 수 있다고 하겠다.⁸¹⁾

또한 거사일이 임박해 오는데 자금이 없어 격문을 배포하지 못할 때 박래원이 권동진에게 1만원의 자금을 요청하니 쾌락했다는 사실과 천도교당내에 격문을 감춰 둘 수 있었던 것 그리고 만세시위에 천도교의 지방조직을 적극 활용하려 했던 사실 등은 곧 천도교 구파의 지도자들이 배후에서 적극 지원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이는 淵源에 기반한 천도교 조직의 속성을 통해서 충

77) 장석홍, 앞의 글, 306-307쪽.

78) 「현파군의 약력」, 『천도교회월보』 214, 1928.10, 23쪽.

79) 조규태, 앞의 논문, 42쪽.

80) 박의섭, 「나의아버지 현파 박래홍」, 『신인간』 1995년 12월호(통권 제545호), 72-73쪽.

81) 장석홍, 앞의 글, 296쪽.

분히 짐작될 수 있는 것으로, 박래원은 거사에 따른 모든 일을 절대 비밀리에 진행토록 지시를 받고 있었다.⁸²⁾

이처럼 6·10만세운동에서 천도교 구파는 특히 청년동맹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다만 구파 지도층의 참여는 상대적으로 적은데 그 이유는 당시 신파에 비해 열악한 교세와 지도력 등이 자칫 3·1운동의 경우처럼 지도부의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어 적극참여를 지양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결정 역시 구파의 최고 지도자인 박인호의 결정에 의했을 것이 틀림없다.

IV. 신간회 참여와 민족연합전선에의 꿈⁸³⁾

6.10만세운동의 실패 이후 국내에서는 민족유일당 운동과 함께 독립운동세력들의 통일전선과 민족연합전선 형성이 주요한 의제가 되었다. 그에 따라 1926년 12월 들어 천도교 구파의 권동진과 박래홍, 조선일보계의 박동완과 신석우, 불교계의 한용운, 사회주의계열의 홍명희와 최익환 등은 신간회 창립을 위한 협의를 가졌다. 이러한 움직임은 1927년 들어 한층 활기를 띄었다. 이해 1월 초순 권동진, 홍명희, 이갑성, 박동완, 한기악 등은 조선일보사에 모여 신간회를 발의할 것을 합의하고 즉시 발기인들과 접촉하는 한편 가입 승낙을 받는 동시에 강령을 초안하는 등 창립준비를 서둘렀다.⁸⁴⁾ 그 결과 강령을 다음과 같이 초안하였다.

- (1) 朝鮮民族으로서 政治, 經濟의 究竟的 解決을 圖謀함.
- (2) 民族的 團結을 圖謀함.
- (3) 妥協主義를 否認함.⁸⁵⁾

그러나 이 강령은 허가를 받을 수 없었으므로 당국과 절충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였다.

82) 「햇불은 흐린다 반세기의 증언」(박래원 회고담), 『조선일보』 1964년 4월 26일.

83) 성주현, “신간회운동과 민족주의 좌파세력”, 신간회 창립 80주년 기념학술대회 발표논문, 2007. 2. 15 발표논문 주로 참조.

84) 이병헌, 「신간회운동」, 『신동아』 60, 1969, 194쪽.

85) 「獨立運動終熄後ニ於ケル民族運動ノ概要」, 『제등실문서』 10, 高麗書林, 1990, 243쪽.

- 一, 우리는 政治的, 經濟的 覺醒을 促進함
- 二, 우리는 團結을 鞏固히 함
- 三, 우리는 機會主義를 一切否認함⁸⁶⁾

또한 신간회선언을 다음과 같이 초안하였다.

조선의 문제는 아직 그 해결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그 문제는 제 문제 가운데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들 조선인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 해결방법을 강구하고 또 실행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런데 외래사상의 복사적 변론과 정치간상의 농단적 행동이 문제의 핵심을 애매하게 하기 쉽다. 우리는 언제나 진지한 가슴과 냉정한 머리로써 핵심을 직시하고 정당한 방법을 파악하지 않으면 안된다. (중략) 우리는 계급보다 민족을 취하고 목전보다 장래를 생각한다. 정당한 방법은 오로지 우리들의 견지에 섰을 때 파악한다. 고식적 계획이나 공소한 이론으로는 문제의 해결을 기대할 수 없다. 무릇 우리의 이해는 개인적에 있지 않고 민족적에 있고, 우리의 이상은 고전적에 있지 않고 현대적 이해를 같이 하고 분자가 같은 이상 아래 단결하여 민족적 요구를 대표하고자 한다. 이제 우리의 행동문제에 대해서는 점점 우리의 이상에 벗어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문제를 문제로서 쌓아두지 않음은 간단히 두 세 개의 예를 든다면 때로는 이민문제를 문제로 하고, 때로는 해외동포의 산업적 발전적 문제도 문제로 하고, 때로는 문맹퇴치운동도 주창하고, 또 때로는 현하 교육제도의 결함을 지적하는 大概를 총괄하는 것은 우리의 이해와 현재 정치와의 사이에 근본적 모순인 이것을 민중에게 인식시킬 것을 노력하고자 한다.

- 一. 한글을 보급하여 문맹퇴치를 기한다.
- 一. 일본화본위의 교육을 배척한다.
- 一. 조선생산물 사용의 장려를 선전한다.
- 一. 일본 이민을 반대한다.
- 一. 농촌에 가내공업을 장려하여 농촌진흥을 기한다.
- 一. 조선역사의 교제가 되는 서적을 간행한다.
- 一. 경제적 실제 통계를 조사 연구하여 구체적 대책을 강구한다.
- 一. 만주이주동포의 산업적 실황을 조사하여 그의 원조책을 강구한다.
- 一. 남부 및 중부 농민의 북부 이주를 장려하여
가급적 국내인구밀도의 조사를 기한다.
- 一. 학생에 교육을 장려하여 사상적 혼돈을 둔화치 않게 한다.⁸⁷⁾

86) 『新幹會綱領及規約』

87) 조선총독부경무국, 『조선의 치안상황』, 不二出版, 1927, 86-88쪽.

신간회는 2월 15일 오후 7시 종로 기독교청년회관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회장에 이상재, 부회장에 홍명희와 간사 35명을 선출하였다.⁸⁸⁾ 그러나 홍명희의 사퇴로 17일 간사회에서 권동진을 선임하고 권태석, 이승복, 박동완, 신석우, 안재홍, 최익선, 홍명희 등 7명을 총무간사로 호선하였다.⁸⁹⁾ 그리고 2월 21일 총무간사회를 열고 서무부 등 7개부서와 간사를 결정하였다.

신간회에서는 합법적이고 타협적인 테두리 속에서나마 활동이 허용되었음을 감안하여, 민족자주독립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먼저 국내외에 지회를 설치하기로 하고, 7월 10일에는 서울지회를 설치하였으며, 지회장은 만해 한용운이 선출되었다. 서울지회 설립 후 신간회는 활발한 지회활동을 통하여 1928년 말에는 국내외에 143개의 지회와 3만 명의 회원을 확보하였다.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팽창하자 일제는 신간회를 탄압하기 시작해 단 한번도 대규모의 전체대회를 개최하지 못하게 압력을 행사하였다. 그러한 일제의 압력과 좌우익의 대립과 갈등 속에서도 신간회의 투쟁목표는 뚜렷하였는데, 이는 구호와 실천강령 등에서 엿볼 수 있다.

즉, 신간회는 민족적·정치적·경제적 예속의 굴레를 과감히 벗어나며 타협주의를 배격한다는 점을 먼저 천명한 뒤, 언론·집회·결사·출판 등의 자유를 쟁취할 것과 청소년·부인 형평운동을 지원할 것도 아울러 투쟁의 방향으로 삼았다. 뿐만 아니라 파벌·족별주의의 배격과 동양척식주식회사, 기타 이민을 강력히 반대하면서 재만·재일 동포의 문제와 국제주의도 포함시켰다. 근검절약과 민족혼을 되찾아 우리 얼의 건재성을 국내외에 과시하여야만 우리 민족은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또한, 광주학생 항일운동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하여 조사단을 파견함과 동시에 학생운동의 탄압을 엄중항의 하였으나 일제는 냉담하였다. 이에 이 운동을 전국적인 항쟁으로 확대, 파급시키기 위하여, 광주에 조병옥과 한용운은 비밀리에 찾아가 조사를 마친 후 서울에서 광주실정보고 민중대회를 열고 그 부당성을 규탄하기로 하였다. 1929년 12월 13일을 개최일로 잡고, 권동진·한용운·조

88) 『조선일보』, 1927년 2월 16일자.

89) 『조선일보』, 1927년 2월 19일자.

병옥·송진우·홍명희·이관용·김항규·주요한·이원혁 등 관계자가 민중선언서를 발표하고 대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일본경찰이 민중대회를 중지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묵살하고 강행하려 하자 일본 경찰은 한용운·조병옥·권동진 등 44명과 근우회 간부 등 40명을 연행, 구속하였다. 그 가운데 한용운과 조병옥 등 6명은 실형선고를 받고 1930년 2월 석방되었다. 이 일은 신간회 해소의 계기가 되었다.

즉, 최초의 좌우연합전선으로 결성된 신간회는 좌파 세력이 코민테른 제6차 대회에서 민족주의자들과 단절하고 적색노동조합운동 노선으로 전환을 결의하는 이른바 '12월 테제'를 발표하면서 결정적으로 분열과 해소의 길로 접어들었다.⁹⁰⁾ 한용운을 비롯한 많은 민족주의 진영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1931년 5월 16일 조선중앙기독교청년회에서 대의원 77명이 참석한 가운데 해소대회를 열고 해산을 결의함으로써 창립된지 만 4년 만에 막을 내렸다.

신간회에서 천도교 구파는 다른 어떤 단체보다도 적극적인 참여와 활동을 이어갔다. 이는 전적으로 당시 교단을 대표하고 있던 박인호와 밀접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물론 신간회에 대한 박인호의 견해나 행동이 분명하게 드러난 것은 없지만 중앙집권적 조직의 특성상 당시 구파를 대표하고 있던 박인호의 적극적인 의지가 없었다면 불가능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장로 권동진, 천도교회월보 발행인 이종린, 청년동맹 대표 박래홍, 청년동맹 집행위원 박완, 그리고 청년동맹 지육부장 이병헌 등 5명이 참가하였다. 특히 이병헌이 참가한 것은 신간회 창립자금을 관리하기 위해서였는데, 이는 창립자금을 천도교 구파에서 지원하였기 때문이다.⁹¹⁾ 그리고 이들 중 권동진, 이종린, 박래홍이 발기인으로 참여하였다.⁹²⁾ 또한 권동진은 2월 11일 신간회와 朝鮮民興會(사회주의 계열)와의 합동과정에서 홍명희, 신석우와 함께 신간회측의 대표로 활약하였다.⁹³⁾

1927년 2월 15일 신간회 창립대회에서 권동진과 박래홍은 최익환, 송내호, 이

90) 김삼웅, 『만해 한용운 평전』, 시대의 창, 2006, 320쪽.

91) 이병헌, 앞의 책, 194쪽.

92) 『동아일보』 1927년 1월 20일자.

93) 『동아일보』 1927년 2월 14일자 및 박명환, 『新幹會回顧記』, 『신동아』 54호, 1936. 152-168쪽.

동욱 등과 규칙심사위원으로 활동하였고,⁹⁴⁾ 창립대회에서 선정한 간부진에는 권동진이 부회장⁹⁵⁾, 이종린과 박래홍이 중앙위원으로 각각 선정되었다.⁹⁶⁾ 이어 박래홍은 총무부 간사, 이병헌은 조직부 간사, 박완은 청년부 간사에 각각 선임되었다.⁹⁷⁾ 그리고 권동진은 창립대회에서 선출된 회장 이상재가 3월 29일 사망하자 부회장으로 있던 권동진이 그 역할을 맡았다.⁹⁸⁾ 이후 본부에서 활동한 구과 인물로는 1929년 2월 정기대회 준비위원회가 구성될 때 이종린이 규약부장을,⁹⁹⁾ 박양신이 서무부 부원을,¹⁰⁰⁾ 6월 북대표대회에서 구성된 중앙집행위원으로 선출된 이용길과 중앙검사위원장으로 권동진이 각각 선임되었다.¹⁰¹⁾

이처럼 천도교 구과세력이 참여한 가운데 창립된 신간회에 구과의 전위단체인 천도교청년동맹은 동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신간회보다 약 1년 전 1926년 4월 3일 조직되었던 청년동맹은 이미 6.10만세운동에 주도적으로 참여 했으며¹⁰²⁾ 신간회 창립에도 청년동맹은 1927년 12월 25일 동맹대회를 개최하고 '민족적 단일당' 즉 신간회를 적극 지지할 것을 결의하였다.¹⁰³⁾ 이에 따라 천도교 구과는 청년동맹을 통해 신간회 본부뿐만 아니라 청년동맹 지부가 있는 지역에서는 신간회 지회 조직에 적극 참여하게 되었다.

천도교 구과 세력이 신간회 지회조직에 참여한 곳은 경성지회를 비롯하여 경서지회, 양구지회, 강화지회, 광주지회, 수원지회, 통영지회, 영천지회, 강진지회, 병영지회, 광양지회, 영암지회, 완도지회, 장흥지회, 정읍지회, 남원지회, 당진지회, 서산지회, 예산지회, 홍성지회, 음성지회, 구성지회, 선천지회, 용천지회, 철산지회 등 26개 지회에 이르고 있다. 이를 지역별로 보면 경기지역이 5개 지회, 호

94) 『동아일보』 1927년 2월 17일자.

95) 원래 부회장에는 사회주의계열인 洪命燾가 당선되었으나 개인사정과 會勢의 미묘한 사정으로 사임하였다.(이병헌, 앞의 책, 195면) 이는 아마도 신간회 창립과정에서 자금을 지원하는 등 적지 않은 역할을 하였던 천도교 구과에 대한 배려가 아닌가 한다.

96) 이병헌, 앞의 책, 195쪽.

97) 위의 책, 196쪽.

98) 『동아일보』 1927년 4월 28일자.

99) 『동아일보』 1929년 2월 9일자.

100) 『조선일보』 1929년 2월 4일자.

101) 『동아일보』 1929년 7월 1일자.

102) 『天道敎靑年同盟創立總匯會錄』, 『천도교회월보』 184호, 1926. 4, 39쪽.

103) 『天道敎靑年同盟大會의 件』, 『사상문제에 관한 조사서류(3)』, 종로경찰서, 1927. 12. 27(문서번호 鐘路警高秘 제14900호).

남지역이 8개 지회, 충청지역이 5개 지회, 관서지역이 4개 지회, 경북과 강원지역이 4개 지회로 분류할 수 있다. 천도교 구파세력은 신간회 지회에 참여하고 있는 세력 중 단일조직으로는 가장 폭넓게 한 것으로 보인다.

V. 민족운동과 박인호

19세기 국가의 누란지위 상태에서 등장한 동학은 당시의 시대상황을 누구보다도 예리하고 정확하게 분석하여 민족의 나아갈 바를 제시해 주었다. 동학은 민족전통사상을 계승하고 우리의 고유의 사유체계 속에서 창도된 종교로서 출발했지만 지극히 정치적이었다. 즉, 동학은 보국안민의 대내적 민족주의에 입각한 반봉건 반외세의 정치운동을 실천하여 후천개벽의 이상적 공동체를 실현하고자 했고, 대외적 민족주의로 포덕천하를 통해 도성덕립의 신인간 세상을 이루고자 했다. 그로 인해 동학은 창도 이래로 구한말과 일제시대를 거쳐 해방 후에 전개되었던 자주적 통일 민족국가 수립을 위해 많은 희생을 치른 이른바 한국 근대민족운동사와 일치되는 역사를 가지고 있다.¹⁰⁴⁾

일제 강점기에서도 동학은 천도교로 대고천하 한 뒤 여전히 강력한 항일정신에 입각해 갑진개화혁신운동, 민족문화운동, 3·1운동, 6·10만세운동, 신간회 운동 그리고 멸왜기도운동까지 국내 민족운동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 나갔다. 이 역시 시대상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분명한 노선정립에 입각한 운동이었다. 동학 천도교가 한국 민족주의 정치노선을 대표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실천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민족주의를 마루야마 마사오(丸山眞男)의 “민족의 독립과 발전 및 통일을 지향하는 이데올로기와 운동”¹⁰⁵⁾이라고 정의했을 때 모든 민족주의는 당사 민족¹⁰⁶⁾의 민족운동으로 구체화 된다고 할 수 있다. 민족운동의 담당자는 항상 역

104) 1860년 창도된 이래로 동학의 이름으로 이 땅에서 순도한 사람들을 아무리 적게 잡아도 40만 명이 넘는다. 순교의 대명사 천주교의 순교자가 1만 명에 이룬다고 하니 천도교의 희생규모를 짐작할 수 있다. 내용적으로도 천주교의 순교자가 거의 종교자유만을 주장했다면 천도교의 순교자는 종교자유를 넘어서는 사회변혁을 외치다 희생당한 순교의 질적 차이를 보이고 있다.

105) 丸山眞男, 『現代政治の思想と行動』(増補版, 未來社, 1973), p274.

압과 수탈의 대상에서 벗어나고자 몸부림치는 민중들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들의 요구는 언제나 전체 민족의 자주자립과 해방이라는 요청과 합치된다. 따라서 민족운동의 담당자로서의 민중의 민족주의가 그 나라의 민족주의로 실체화될 때만이 민족의 자주자립, 통일된 민족국가의 수립과 발전이라는 민족주의적 요구의 실현이 가능해진다. 그러므로 진정한 민족주의는 민중중심의 그들의 요구가 절박하게 제시되고 있는 민족운동에서 가장 극렬하게 표출된다.

또한 진정한 민족운동에는 그 민족의 양심과 역량과 지혜가 총동원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민족주의는 종교 또는 종교적인 것을 바탕으로 하는 경향이 있다. 종교 또는 종교적인 것을 바탕으로 삼지 않으면 생명을 걸고 싸울 수 없기 때문이다. 일제 강점기 천도교의 민족운동은 이러한 측면이 강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정점에는 천도교의 4대 교조인 춘암 박인호가 있었다.

1908년 제4세 대도주가 된 박인호는 교단의 중앙조직을 개편하였다. 박인호가 시행한 교단 개편은 크게 교당의 이전과 개편, 인사변동과 관련한 조직개편과 교단의 주문, 각종 규칙과 제도, 교단의 체제 등과 관련된 규칙개편으로 진행되었다. 조직개편은 1908년부터 1918년까지 10년이라는 기간동안 이루어지는데 이를 통해 천도교는 비로소 근대적인 종교조직으로 탈바꿈하게 되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박인호는 교육문화운동을 진행하는데 그것이 1910년대 이래의 천도교 출판문화운동과 교육운동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배출된 인재들은 향후 천도교 발전의 근간이 되었으며 나아가 3·1운동과 이후에 전개된 민족운동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박인호의 민족운동은 1922년 천도교가 신·구파로 분열되어 교주직을 사임한 후에도 계속되어 그의 조카인 박래원이 주도적으로 참여한 6·10만세운동에 필요한 선언서의 인쇄와 자금 지원 그리고 지방의 조직동원과 운동참여까지 제반 지원을 적극적으로 보조하였으며, 1927년에는 아들인 박래홍을 비롯한 많은 교

106) 민족과 민족주의의 발생과 관련한 서구학계의 영속주의자들(perennialists)과 근대주의자들(modernists) 사이의 논쟁에 대해서는 A. D. Smith, "The Problem of National Identity: Ancient, Medieval and Modern?", *Ethnic and Racial Studies*, vol.17, no.3(1994) 참조.

인들을 신간회에 참여시켜 활동하게 하였다. 신간회의 지방조직이 대부분 천도교 지방교구와 중복되고 있음을 보아 당시 천도교의 신간회 참여 정도를 알 수 있게 한다. 그는 지병이 악화되어 활동이 자유롭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1938년에는 자신의 마지막 민족운동인 멸왜기도운동으로 최후의 순간까지 조국독립에 모든 것을 바치었다.

1920년대 박인호의 민족운동에서 주목되는 것은 박인호가 3·1운동의 실패에서 얻은 교훈이었던 민족운동진영의 대동단결이었다. 즉, 3·1운동 당시 주요 종교인을 중심으로 한 운동본부를 구상했었지만 추진과정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보여준 무력함과 나약함 등은 향후 독립운동의 힘이 될 수 없음을 확인한 것이다. 이에 보다 강력한 실천력과 추진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철저한 이념을 기반으로 한 독립운동 세력과의 연합은 필수적이었을 것이다. 이런 의식 하에서 박인호는 민족주의 세력과의 제휴 및 연합의 대상을 국내 사회주의 단체를 지목한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독립운동을 위한 새로운 통일전선단체의 결성을 목표로 했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6·10만세운동의 추진체로 탄생한 것이 '대한독립당'이었다. 격고문의 명의 주체인 대한독립당은 물론 정식으로 결성된 조직은 아니었지만, 6·10만세운동의 추진 주체들이 '사회주의·민족주의·종교계·청년계의 혁명세력을 총결집하기 위한'¹⁰⁷⁾ 통일전선의 상징적 조직이었다. 이에 따라 6·10만세운동의 주체들은 혁명세력의 결집에 힘을 기울여 나갔고, 그 가운데 천도교 구파는 가장 유력한 세력이었다.

천도교와 조선공산당 등이 추진한 6·10만세운동의 계획은 결행 직전에 비록 불발로 그치고 말았지만, 이 과정에서 보여준 통일전선의 정신과 기운은 국외의 민족유일당운동과 국내의 신간회로 계승 발전되어 갔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니는 것이었다. 민족의 자주독립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 이상 이념과 노선의 차이는 얼마든지 극복될 수 있는 문제라는 것을 박인호의 민족운동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민족의 민족대연합전선의 완성을 향한 노력은 동학시대 이래로 민족주의 운동세력의 오랜 지향점이었기 때문이다.

107) 강덕상 편, 『현대사자료』 29, 425쪽, 장석홍, 앞의 글(1997), 재인용, 298-299쪽.

VI. 맺는 글

춘암 박인호는 평생을 동학과 천도교의 역사와 함께한 인물이었다. 그는 새로운 세상이 온다는 동학의 이념에 끌려 동학에 입도하고 반봉건과 반외세를 위해 투쟁하였다. 박인호는 동학혁명 이후 붕괴된 동학교단을 다시 일으켜 세워 300만 교도를 만들고 나아가 천도교가 민족운동의 구심점이 될 수 있게 한 결정적 공헌자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그는 교단이 분열되는 위기에 교조로서의 기득권을 고집해 교단이 황폐화되는 것을 막았으며 민족운동에 있어서도 천도교라는 특정 종교에 매몰되어 유아독존적 운동노선을 고집하지도 않았으며 오히려 대의를 위해서는 자신을 한없이 낮출 줄 아는 진정한 민족 지도자의 면모를 보여 주었다.

3.1운동 이후 박인호는 분열되는 교단에서 일부 지도층의 일제 타협노선인 민족개조론, 실력양성론 그리고 자치론 등을 단호히 거부하였다. 그랬기에 그는 교조이면서도 다수파인 신파에 동조하지 않고 소수파이지만 올바른 선택을 한 구파측의 좌장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항일민족운동의 전위에서 묵묵하게 민족과 교단을 끝까지 수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박인호의 선택과 노선은 동학의 민족주의 이념이 우리 근대사에 있어서 진정한 민족주의로서의 역할을 이을 수 있게 해준 것이었다. 그리고 오늘의 천도교가 민족종교로서의 이름에 부끄럽지 않을 수 있도록 해준 것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나아가 박인호에 대한 부실한 연구 역시 하루빨리 개선되어야 할 과제이다. 천도교단에서 그가 한 역할이 어디까지인지가 체계적으로 규명되어야 함은 물론 1920년대 민족연합전선체 결성을 위한 그의 노력과 그가 이념이 다른 사회주의자들과의 공동전선결성에 쉽게 합의한 요인들은 무엇인가가 연구되어야 한다. 우리의 근현대사가 오랜 기간에 걸쳐 이념대립과 갈등을 지속해 왔기에 그리고 그 결과가 민족 전체에 매우 부정적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상 우리는 80여년 전 이미 같은 고민을 극복한 박인호의 사례에서 그 해결책을 습득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박인호에 대한 재평가는 천도교 대화합의 상징과도 같은 과제이기에 교단 전체가 그 어느 것보다도 시급한 과제임을 인식하고 보다 적극적인 노력과 자세가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㉞

춘암 박인호와 무인멸왜기도운동

성 주 현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 머 리 말
2. 1930년대 식민지 동향과 민족운동의 흐름
3. 무인멸왜기도운동의 전개
4. 맺 음 말

1. 머 리 말

춘암 박인호는 의암 손병희로부터 제4세 대도주의 승통을 이어받은 후 손병희의 뜻을 받들어 인내천의 종지와 천도교의 신앙보급, 교육사업, 사회사업 등을 통해 천도교의 발전을 도모하였다. 뿐만 아니라 1930년대 들어 일제의 교활한 탄압과 회유 속에서도 추호의 흔들림 없이 천도교의 지도자로서 민족운동을 지도하였고, 특히 천도교인에게 올바른 신앙의 가르침과 희망을 주었다.

춘암 박인호는 1855년 충남 예산군 덕산면 막동리에서 출생하여 1883년 천도교에 입교하였다. 입도 후 10여 년간을 밤낮으로 의관을 정제하고 수련으로 일과를 삼았고, 정직을 으뜸으로 삼고 실천하였다. 1893년 보은척왜양창운동에서 덕의대접주로 임명되었고, 이듬해 1894년 동학혁명에서는 호서지역 동학군을 이끌고 홍주성 전투에 참여하였다. 이후 갑진개화운동과 3·1운동, 그리고 1920년대의 신간회운동, 1930년대의 멸왜기도운동 등 민족운동의 중심에서 늘 자리하고 있었다.

본고에서는 춘암 박인호의 민족운동 중 1930년 후반에 전개되었던 무인멸왜기도운동과 관련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1930년대 식민지 지배의 동향과 민족운동의 흐름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1930년 후반에 전개되었던 무인멸왜기도운동을 이해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이다. 즉 1930년대는 일제의 지배정

책이 만주침공과 중일전쟁으로 전시체제로 전환되었을 뿐만 아니라 내선일체, 황민화정책을 통해 민족말살을 기도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1930년대의 동향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어 당시 천도교 구파의 최고지도자로서 1936년부터 전개하였던 무인멸왜기도운동을 전개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무인멸왜기도에 대해서는 아직 제대로 연구된 사례가 없다. 다만 단편적으로 연구가 시도된 적은 있었다.¹⁰⁸⁾ 본고에서는 기존의 연구성과를 토대로 하여 무인멸왜기도운동을 재조명하고자 한다.

2. 1930년대 식민지 동향과 민족운동의 흐름

1930년대 일제의 식민지 통치는 크게 두 가지 과제를 해결해야만 하였다. 하나는 산미증산운동의 실시와 중단으로 인한 식민지 농민들의 피해에 대한 대책이었으며, 다른 하나는 만주사변의 발발로 일제의 대륙침략전쟁이 본격화되면서 역시 식민지 조선에 대한 변화였다.¹⁰⁹⁾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약 10년간 급속하게 성장해온 자본주의 경제는 1929년 10월 세계금융의 중심지인 뉴욕 월스트리트 증권가의 주적폭락을 맞아 미국을 비롯하여 유럽뿐만 아니라 일본에까지 영향을 미쳐 전 세계 경제를 혼란 속으로 몰아넣었다. 이처럼 1929년 시작된 세계 대공황과 1930년 대풍작으로 일본 내의 쌀값의 폭락하게 되자, 일제는 1934년 산미증산계획을 중단하였다. 그동안 식민지 조선을 식량공급지로 인식하였던 일본 농민들의 이해관계와 정면으로 충돌하였다. 이로 인한 산미증식계획의 중단은 결국 대공황의 피해는 식민지에 전가하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식민지 조선의 농민들은 몰락을 재촉 받게 되었다. 그 결과 농민들의 투쟁은 더욱 격렬해졌고, 특히 공산주의 영향을 받은 혁명적 농민조합이 활성화되면서 식민지 지배체제는 더욱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일제는 식민지 체제의 안정을 위해 지주적 농업정책에서 농민적 농업정책으로 전환하였다. 그 과정에서 '조선소작조정령', '조선농지령' 등 법령을 만들어 농민들의 식민통치에 대한 저항을 완화시키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일제는 1933년부터 '동촌진흥운동'을 대대적으로 실시하여 피해를 농민의 구제와 농가경제의 갱생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108) 이상재, 『춘암 박인호 연구』, 예산문화원, 1997; 정을경, 『일제강점기 박인호의 천도교활동과 민족운동』, 충남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109) 한국근현대사연구회, 『한국독립운동사강의』, 한울아카데미, 1998, 48-55면.

이러한 정책의 전환은 다른 한편으로는 농민들을 정신적으로 갱생시킨다는 의미를 포함한 '물심일여'의 운동으로 전개되었다. 즉 식민지 체제의 안정을 위해 농민들의 경제적 몰락의 원인을 농민 자신들에게서 찾도록 함으로서 식민지 통치에 대한 저항을 왜곡시키는데 있었다. 뿐만 아니라 권력기구를 총동원하여 농촌진흥운동을 진행시키는 한편 천도교의 조선농민사운동과 기독교의 농촌계몽운동을 탄압하거나 왜곡시키기도 하였다.

또한 1930년 들어 일제의 독점자본의 식민지 조선으로 진출이 본격화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이미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시작되었으나, 1929년부터 시작된 경제공황을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투자지로서 뿐만 아니라 1931년부터 시작된 대륙침략의 병참지로서도 주목받았다. 이에 따라 일본 독점자본은 식민지 조선 공업화의 주체로 등장하였다. 이 시기 조선에 진출한 일본의 독점자본은 전기화학공업의 경우 일본질소를 비롯하여 미츠이(三井), 비츠비시(三菱), 노구치(野口), 이토(伊藤忠), 닛산(日産) 등 일본에서도 우수한 기업들이었다. 이들 기업은 조선총독부 지원 아래 조선의 모든 산업을 장악하였다. 이러한 일본 독점자본의 진출은 결국 조선인 자본의 몰락으로 이어졌다. 즉 조선의 자본은 일본 기업들의 진출이 확대되면서 자본의 규모, 금융지원, 노동과 기술의 공급, 원료의 확보 등 모든 면에서 급속히 위축되었다.¹¹⁰⁾

이러한 식민지 상황의 변화는 민족운동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특히 공산주의와 연계된 혁명적 농민조합과 노동운동은 1920년대 보다 크게 확대되었고, 그에 따라 일제는 더욱 탄압을 가하였다. 일제는 1934년 치안유지법의 개악과 1936년 사상범보호관찰령을 통해 대부분의 민족운동과 관련된 인사들을 장기간 구금 또는 감시할 수 있게 하였다.

더욱이 1937년 중일전쟁이 도발한 이후 일제는 '국가총동원법'을 제정하면서 전시동원체제를 법률로서 성립시킨 1938년의 시점은 식민지 조선에 대한 식민지 지배정책을 크게 변화시킨 또 하나의 전환점이었다. 국가총동원법이 조선에도 확대 적용되면서 식민통치는 더욱 확대되어 일제의 침략전쟁을 뒷받침하기 위해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을 전쟁에 동원하기 위한 국가총동원체제를 구축하

110)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50, 2001, 31-41면.

였다. 이에 따라 일제는 식민지 조선에서 지배와 수탈체제를 더욱 강화해 갔고, 1930년대 중반부터는 내선일체, 황국신민화의 구호 아래 창씨개명과 신사참배를 강요하면서 민족말살정책을 강행하였다.¹¹¹⁾

한편 1930년대 민족운동은 일제의 식민지배의 강화로 적지 않게 위축되었다. 1920년대 중반 민족주의와 사회주의의 통일전선으로 결성된 신간회가 해체된 이후 국내의 민족운동의 중심은 학생운동과 농민운동이 주류를 이루었다. 그리고 운동방법은 일제의 군국주의 통치 아래 주로 비밀조직의 형태로 전개되었다.

앞서 살펴본 경제공황으로 몰락한 농민층을 배경으로 고양된 대중운동은 혁명적 농민조합운동과 노동조합운동으로 발전하였다. 이에 따라 이들 운동은 식민지 지배체제를 타파하는 정치투쟁으로 발전하였다. 이러한 대중투쟁은 조선공산당 재건운동과 밀접하게 결합되어 전개되었다. 1928년 조선공산당 해체 이후 공산주의세력은 조선공산당 재건운동에 착수하였으며, 1932년에 이르러서는 혁명적 대중조직을 우선 건설한다는 방침 아래 대중투쟁에 투신해 갔다. 그에 따라 운동의 이념도 계급투쟁적 성격이 강화되었다. 그리하여 이 시기 대중운동은 국제주의적 계급혁명론이 민족혁명론보다 우선시되는 방향에서 추진되었다. 그러나 1930년대 중반을 넘어서면서 민족운동은 학생운동이 중심이 되었다. 학생운동의 이념은 독서회 등 사회주의적 성격이 없지는 않았지만 대체로 불 때 민족의식이 고조되면서 좌익 편향에서 벗어나고 있다. 이러한 점은 일제의 민족말살정책이 강요되는 상황에서 민족적 의식이 고양되는 동시에 1930년대 전반의 국제주의에 대한 내재적 반성도 없지 않았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1930년대 민족운동의 특징의 하나는 국학에 대한 관심과 발전이었다. 일제의 민족말살에 대항한 국학수호운동은 민족운동의 한 측면에서는 매우 의미있는 일이다. 3.1운동 이후 소위 문화통치가 표방되면서 1920년대는 전개되었던 문화운동은 인식에 따라서는 민족성을 호도하는 경우도 없지 않았다. 이에 비해 1930년대 문화운동계는 보다 분명한 태도로 일관성을 보이고 있다. 1920년대 조직된 조선어연구회가 1931년 조선어학회로 개편되면서 ‘한국맞춤법 통일안’을 제정하여 조선어 편찬사업을 전개하였다. 또한 1932년 조선민속학회

111)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50, 42-50면.

와 1933년 조선경제학회의 조직, 1934년 진단학회의 설립, 그리고 1931년부터 신채호, 백남운, 문일평, 정인보 등에 의해 조선학운동이 일어난 사실 등은 그동안 침체되었던 국학계의 안정되게 정비되었다.¹¹²⁾

여기서 1930년대 천도교의 상황을 살펴보자. 1920년대 천도교청년당을 전위조직으로 신문화운동을 전개하였던 천도교는 1920년대 중반 이후 교조 인정 등의 갈등으로 구파측 천도교중앙총리원과 신파측 천도교중앙총리원으로 각각 분화되었다. 그러나 이 분화는 오래가지 않아 1930년대 초에 양파가 합동을 하였지만, 채 2년을 지나지 않아 다시 분화되어 1930년대는 각각의 교단을 유지하였다. 즉 구파측은 천도교중앙교회, 신파측은 천도교중앙총리원으로 각각 운영되었다. 이에 따라 신문화운동을 주도하였던 청년당도 구파측은 천도교청년동맹으로, 신파측은 천도교청년당으로 각각 분화되어 민족운동에 참여하였다. 천도교청년동맹은 사회주의와 통일전선을 형성하여 6·10만세운동을 비롯하여 신간회운동에 적극 참여하였다. 신간회 창립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청년동맹은 1927년 12월 25일 동맹대회를 개최하고 '민족적 단일당' 즉 신간회를 적극 지지할 것을 결의하였다.¹¹³⁾

이에 따라 천도교 구파는 청년동맹을 통해 신간회 본부뿐만 아니라 청년동맹 지부가 있는 지역에서는 신간회 지회 조직에 적극 참여하게 되었다. 청년동맹이 신간회 지회 조직에 참여한 곳은 경성지회를 비롯하여 경서지회, 양구지회, 강화지회, 광주지회, 수원지회, 통영지회, 영천지회, 강진지회, 병영지회, 광양지회, 영암지회, 완도지회, 장흥지회, 정읍지회, 남원지회, 당진지회, 서산지회, 예산지회, 홍성지회, 음성지회, 구성지회, 선천지회, 용천지회, 철산지회 등 26개 지회에 이르고 있다. 이를 지역별로 보면 경기지역이 5개 지회, 호남지역이 8개 지회, 충청지역이 5개 지회, 관서지역이 4개 지회, 기타 경북과 강원지역이 4개 지회로 분류할 수 있다.¹¹⁴⁾ 신간회 활동에 적극 참여한 청년동맹의 세력을 크게 확장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1931년 신간회가 해체되자 이를 반대하였던 이종린은 신간

112) 『한국독립운동사강의』, 66-68면.

113) 「天道敎靑年同盟大會의 件」, 『사상문제에 관한 조사서류(3)』, 종로경찰서, 1927. 12. 27(문서번호 鐘路警高秘 제14900호).

114) 성주현, 「1920년대 천도교의 협동전선론과 신간회 참여와 활동」, 『동학학보』 10, 2005, 197-198면.

회 해소 이후 "해소에 반대하는 支會는 支會끼리 解消可決한 支會會員 中에도 여기 반대하는 회원은 회원끼리 따로이 자연결성하고야 말 것인즉 解消派만이 新幹會에서 물러나가서 완전히 戰野가 분화될 것"이라고 하여, 신간회 연장론을 제기하였지만 뜻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¹¹⁵⁾

이종린은 신간회의 해소 이후에도 신간회 해소의 원인이었던 지방열과 파쟁 타파론을 비판하고 있는데, 이는 신간회와 천도교 분규의 경험을 통해 민족적 공적인 지방열과 파쟁을 강렬하게 타파할 것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즉 이종린은 "지방열과 파쟁의 頭領들은 자기 품안에 안기여 있는 아내 한 사람도 감화시킬 수 없는 그들이 전 민족을 포용해야 보겠다고 자른 팔을 아무리 벗었은들 이 품안에 안겨질 자 그 누구이라. 설혹 있다한들 그것들은 일전의 추파에도 정조를 팔리우는 淫婦인지라. 淫婦일사록 반드시 질투로써 유일의 정조를 삼는 까닭에 이간, 중상을 일삼나니 이에 무슨 단결이 있을 것이냐"고 지역분열과 파쟁을 비판하고 있다. 이어 "금후의 우리는 엇던 계급, 엇던 종파를 불문하고 그 파쟁이 진정한 主義로서의 어찌할 수 없는 싸움이라면 모르거니와 만일 권력 때문에 싸움 감정 때문에 싸움이라면 이것은 사회적으로 폭로시키고 민중적으로 제재하여야 할 것이며 그 제재의 방식은 그 파쟁의 중심 분자에게 상응한 기간을 거쳐서 그 기간에는 사회인으로서의 일체 권리를 許與치 아니하는 공약을 제정하여야 할 것이다. (중략) 그런 후이러야 우리 사회는 진정한 단결적 사회가 되어지고 우리 민족은 진정한 통제적 민족이 되어질 것이다"라고 하여 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¹¹⁶⁾ 신간회 해소 이후 천도교 구파와 청년동맹은 종교활동에 주력하면서 기독교계와 연대하여 연농사를 조직하여 계몽운동을 전개하였다.¹¹⁷⁾

한편 천도교청년당은 농민부를 비롯하여 유소년부, 학생부, 청년부, 여성부, 상민부, 노동부 7개부문운동과 이를 연결하는 전적운동을 전개하면서 민족중심세력으로 성장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이들 부문운동의 핵심은 농민부로 조선농민사를 통해 농민의 사회 경제적 이익을 위한 농촌계몽운동이었다. 조선농민사는 농민을 계몽시키는 사업뿐만 아니라 농민공생조합을 조직하여 생산이나 소비

115) 黃崗, 「新幹會解消와 運動線의 望展」, 『동광』 23, 1931.7, 18면.

116) 李鍾麟, 「民族的 公敵인 分裂主義者 撲滅, 地方熱과 派爭打破論」, 『삼천리』 4-2, 1932.2, 8-1면.

117) 한국사연구회, 『한국사 전환기의 문제들』, 지식산업사, 1993, 248면.

등 농민들의 협동사업에 크게 공헌을 하였다. 농민공생조합은 전국적으로 130여 개의 조합과 10만에 가까운 조합원을 가지게 되었으며 중앙에는 농민공생조합 중앙회를 두어 통일적으로 농민운동을 지도하였다. 그중 농민공생조합 평양지부의 경우는 농민고무공장을 설립하여 매일 1천 5백 켈레의 고무신을 생산하여 공급하였다. 또한 공동경작운동 등을 전개함으로써 우리나라 농협운동의 원형을 마련하기도 하였다.¹¹⁸⁾

청년당은 1931년 5월에는 조선노동사를 조직하여 노동운동을 전개하였다. 청년당의 노동운동은 노동자에 대한 교양훈련과 복지향상에 주력하며 활동하였다. 조선노동사는 천도교의 유일한 노동운동기관으로써 1929년의 원산총파업이후 노동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발족하게 된 것이다. 이 조선노동사의 목적은 단순히 노동운동만을 전개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의 완전한 자주독립과 보국안민, 사인여천의 윤리와 사람의 존엄성을 강조한 인내천적 가치관의 확립, 민중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의 실현, 완전한 복지국가의 건설을 실현하자는 천도교의 이상이 궁극적인 목적으로 이의 실천을 위해 전위적인 임무를 수행하자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조선노동사는 기본적으로 노동문제를 연구하였으며, 노동하는 민중을 계몽하고 노동자들이 단결하도록 지도하며 생존권을 확보토록 하는 각종 투쟁을 지원을 주로 하였다.

이외에도 천도교는 여러 분야에 걸쳐 천도교의 전위조직인 천도교청년당을 중심으로 민족 신문화 창조에 선구적 임무를 다하였는데 이러한 움직임은 민족주의 운동으로서 항일투쟁으로 일관되게 추진하였다. 이와 같은 천도교의 일제하에서 전개한 민족운동에 관하여 일제는

조선에 있어서의 종교단체는 목하 30여개의 단체가 있으나 그중에도 동학의 비조 최제우로부터 나온 천도교가 가장 유력하며 ... 천도교는 조선의 종교단체 중 가장 오랜 연혁을 갖고 있으며 그 옛날 동학당으로서 전국을 풍미한 역사를 비롯하여 기왕의 중대사건의 이면에는 거의 모두 천도교도가 개재하지 않은 것이 없으며 오늘날에도 음연히 세력을 가족 있어, 국내는 물론 일본, 만주 및 민국, 하와의 등지에 이르기까지 수백의 종리원을 두고 교도 수는 실로 3백만에 이른다. 1932년 말 현재 천도교는 그 별동단체로서 청우당, 내성단, 농민사, 노동사, 청년회, 소년회,

118) 이현희, 『동학혁명사론』, 대광서림, 1994, 454면.

학생회 및 공생조합 등을 조직하고 농민·노동·청년·학생·소년·부인·소상공업 등 각 계층에 걸쳐 부문운동을 일으켜 대중 획득에 힘써 헤아릴 수 없다.119)

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천도교는 1930년대에 이르러 일제의 혹독한 탄압과 감시를 받게 되었다. 우선 1934년에 170여 명의 천도교도들이 일제 경찰에 연행되어 60여 일 동안이나 극심한 고문을 당한 오심당사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120)

당시 교단의 분화 속에서도 청년당의 김기전, 조기간, 박사직 등은 더욱 심해가는 일제의 감시와 탄압을 피하기 위해 두 개의 지역적인 비밀지하 핵심당을 결성하였다. 이들은 1929년 오심당을 조직하여 지하에서 민족운동의 재원을 얻기 위해 활약하였고, 주로 조선농민사를 통해 핵심당원을 확보하는 한편 활동을 전개하였다. 오심당의 조직원칙은 동학당 시절의 비밀 접조직으로 하고, 그 중심부는 평양에 두었다. 그리고 청년당의 본부가 있는 서울에도 별도의 본부를 두어 그 핵심당원을 불불당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이원화된 조직은 비밀결사조직이 발각되어도 연쇄적으로 와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다.121) 그렇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1922년 가을 김기전, 조기간, 박래홍, 박사직 등이 6명이 불불당이라는 비밀결사를 조직하고 꾸준히 그 세력을 키워 오다가 1929년 김기전, 박사직, 박래홍, 조기간, 김도현, 김병준, 김길수, 이도순 등과 회합하여 오심당으로 개편하였다고도 하고 있다.122) 이들은 다음과 같은 주의와 강령으로 비밀리에 활동하였다.

1. 조선○○운동(필자주:조선독립운동)을 일으킬 것.
1. 시기는 1935년과 6년의 일본의 국제적 정치위기를 기회로 할 것.
1. 당원은 천도교를 10년 이상 신봉한 교조 중에서 전형하여 입당케 할 것.123)

119) 조선총독부 경무국, 『최근에 있어서의 조선치안상황』, 1935, 114면.

120) 오심당사건에 대해서는 신일철, 「천도교의 민족운동」, 『한국사상』 21, 한국사상연구회, 1989; 유준기, 「항일비밀결사 독립운동단체 오심당에 관한 연구」, 『한국 민족운동사연구』 11, 한국민족운동사연구회, 1995를 참조할 것.

121) 신일철, 앞의 논문, 60-61면.

122) 표영삼, 「비밀조직 오심당사건」, 『신인간』 352호, 신인간사, 1977.12, 48면.

123) 『조선일보』 1934년 11월 21일자.

오심당은 조선민족의 독립을 달성하기 위해 특히 국제정세에 민감하게 대응하였다. 사실 청년당은 국제정세를 파악하고 이를 당 운동과 민족운동에 나름대로 활용하기 위해 1928년 정형연구회를 조직한 바 있었다.¹²⁴⁾ 그리하여 오심당은 기독교를 포함한 각 종교단체와의 교섭을 통한 국내정세의 파악과 더불어 조기간을 러시아로, 김기전을 중국으로, 박사직을 일본으로 파견하여 국제정세를 파악하는 한편 당 간부 개개인에게는 전문분야를 연구 분석케 하였다.¹²⁵⁾ 뿐만 아니라 당원에게도 다음과 같은 엄격한 규율을 지키도록 하였다.

1. 주문을 매일 105회 이상 묵송할 것.
1. 천도교 서적을 중심으로 매일 1페이지 이상 정독할 것.
1. 매일 30분 이상의 육체훈련을 할 것.
1. 침식 출입 동정에 당을 위하는 심고를 드릴 것.
1. 언제든지 당의 특정지령에 복종할 것.
1. 당의 경비를 자담할 것.
1. 포덕 및 당 활동에 일상적으로 노력할 것.¹²⁶⁾

그리고 모든 당원들에게 다음의 내용을 매일 외우고 실천하도록 하였다.

1. 吾心卽汝心
1. 六能者：能率奮(스스로 분발할 것), 能自新(스스로 새로워질 것),
能自動(스스로 활동할 것), 能自強(스스로 굳세게 나갈 것),
能自辦(스스로 판단할 것), 能自當(스스로 담당할 것)
1. 한울님을 모시고 한울님과 합일하는 신앙생활을 인식하고 체험할 것을 서원한다.
1. 각계 각층의 대중조직을 강행한다.
1. 소속되어 있는 대중조직의 훈련을 담당한다.
1. 궁극적 목표달성을 위해 정진할 것을 잊지 않는다.¹²⁷⁾

124) 『동아일보』 1928년 1월 9일자.

125) 유준기, 앞의 논문, 90면; 표영삼, 앞의 글, 48면.

126) 표영삼, 앞의 글, 49면.

127) 표영삼, 앞의 글, 49면.

이와 같은 내용으로 활동하였던 오심당 지방대표들은 1931년 4월 천일기념일에 서울에 모여 3.1운동에 버금가는 독립운동을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1935년과 1936년에 민족독립운동을 일으키기로 정하고, 이를 비밀리에 실행하던 중 1934년 9월 일제 경찰당국에 발각되어 청년당원 230여 명이 체포되었고,¹²⁸⁾ 이후 천도교의 민족운동은 완전히 지하로 들어갔다.

이러한 오심당 운동은 동학 창도[✓]이후 계속된 후천개벽을 위한 동학운동으로서 일제하의 우리 민족에게 민족의식을 고취시킨 애국운동이었다. 그러나 일제 경찰이 어떤 천도교인의 소위 불온 언동사건을 취조하던중 발각되어 수난을 당하였던 것이다.

이어진 사건이 1937년의 멸왜기도에 의한 항일운동으로 황해도 신천교구의 2백여명의 신도가 70여 일 동안 구속되어 고문을 받았으며, 수많은 교인들과 간부들이 심문을 당하면서 옥고를 치루거나 옥사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처럼 1930년대 민족운동은 제국주의적 지배체제의 위기가 고조되었지만 일제의 파쇼적 군국주의가 강화되는 가운데 국내 민족운동뿐만 아니라 천도교단도 어려운 상황에서 비밀운동을 전개하지 않을 수 없었다.

3. 무인멸왜기도운동의 전개 [✓]

1930년대 천도교는 구파와 신파로 양분되어 있었지만 늘 감시와 탄압의 대상이었다. 이는 천도교가 본질적으로 민족주의적 성격일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1934년 천도교인의 한 의식조사에 의하면 대부분이 “민족주의의 수행, 조선의 독립 후 특전적 지위 획득”을 신앙생활의 목적으로 삼고 있다.¹²⁹⁾ 또한 입교동기에 대해서도 “조선 민족에게 행복을 수행케 하는 단체는 우리 교를 제외하고는 달리 없으며, 다른 사회단체, 사상단체 등 많이 있지만 모두 유명무실하고 오직 우리 교만이 조선민족운동의 대표단체로서 활약한다”라고 밝혀 역시 민족주의적 성격을 그대로 보이고 있다. ¹³⁰⁾ [✓]

128) 『동아일보』 1934년 9월 22일; 『조선중앙일보』 1934년 11월 22일자.

129) 村山智順, 『朝鮮の類似宗教』, 조선총독부, 1935, 777면.

130) 앞의 책, 776면.

앞서 살펴보았듯이 1930년대는 일제의 전시통제체제의 강화로 민족운동을 드러내놓고 할 수 없어 비밀결사의 형식으로 지하화되었다. 그리고 종교에서는 기도를 통해 민족의식을 앙양하거나 일제의 멸망을 기원하였다. 그 대표적인 운동이 무인멸왜기도운동이었다.

3·1운동 이후 일제의 지배정책은 일단 헌병경찰통치에서 문화정치라는 회유 통치정책으로 전환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간교한 민족문화 말살책에 불과하였으며, 더욱이 1930년대에 들어와서 일제는 침략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우리나라를 병참기지로 삼아 중국대륙으로 진출하려고 하였다. 따라서 우리 민족정신을 뿌리 채 말살시키려는 식민주의 통치를 더욱 극심하게 자행해갔던 것이다. 이러한 시기에 식민지 조선은 고유의 말과 글, 또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성까지도 빼앗기고, 수많은 민족운동 지도자들이 투옥되거나 친일파로 변절할 것을 강요당함으로써 한민족의 역사가 단절될 위기가 심화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천도교는 일찍이 수운 최제우가 일제의 패망을 예견하여 남긴 교훈을 받들어 끊임없이 항일운동을 계속해 나갔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 같은 왜적 놈아 너희 신명 돌아보라
너희 역시 하륙해서 무슨 은덕 있었던고
(중략)

개 같은 왜적 놈아 전세 임진 왔다가서
술싼 일 못했다고 쇠술로 안먹는 줄
세상 사람 뉘가 알꼬 그 역시 원수로다.
(중략)

내가 또한 신선되어 비상천한다 해도
개 같은 왜적 놈을 한울님께 조화 받아
일야간에 멸하고저 전지무궁 하여놓고
대보단에 맹세하고 한의 원수 갚아보세¹³¹⁾

즉 수운 최제우는 일제의 침략적 근성을 비판하고 있는데, 이러한 인식은 동학혁명, 3·1운동 등을 통해 천도교인에게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었다. 그리고

131) 「안심가」, 『용담유사』

1930년대에는 무인멸왜기도로 이어졌다.

1931년초 신간회 해소로 민족운동전선에서 한발 물러나게 된 천도교 구과는 일제의 강압적 지배에 대해 종교적 방법을 통해 민족운동을 전개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당시 교단의 최고책임자였던 춘암 박인호는 일제의 중일전쟁을 준비할 즈음인 1936년 8월 14일 지일기념일을 맞아 지방에서 올라온 교회지도자에게 교인들로 하여금 극비리에 일제의 멸망을 재촉하는 기도를 하도록 지시를 내렸다.

스승님들께서 전통적으로 안심가에 있는 개 같은 왜적 놈을 한울님께 조화 받아 일야간에 소멸한다고 심고와 기도를 해왔지마는 이제는 일본 놈들이 망할 때가 가까워졌으니, 독신교인들에게 기도할 때나 조식으로 식고할 때 반드시 안심가의 그 구절을 가지고 기도를 하도록 하라.¹³²⁾

춘암 박인호로부터 이러한 지시가 있자, 평소 일제의 탄압에 적지 않은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앙교단의 대종사장 최준모, 봉도 한순희, 금융관장 김재계, 감사원장 김경함 등은 「안심가」에 들어있는 멸왜의 내용을 담은 ‘멸왜기도문’을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도록 황해도,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4개 관할 교인들에게 비밀지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교인들은 “개 같은 왜적 놈을 일야간에 소멸하고 대보단에 맹세하고 한의 원수 갚아 속히 독립 달성하겠습니다”라는 내용으로 매매사사에 기도를 하게 되었다.

멸왜기도의 활동에 대해서는 주로 황해도 홍순의의 수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그 과정은 다음과 같다.

1936년 1월 5일 천도교중앙교회의 금융관장 김재계가 황해도 은률군 북부면 가락리에 있는 홍순의 집에 가서 춘암 박인호의 지령을 전달하면서 그에게 멸왜기도를 실시하되 각 군에 독신자 두 명 내지 세 명에 한하여 우선 실행하도록 하고 후에 공식적으로 일반 교인들에게 멸왜기도운동을 선포할 날이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김재계는 모금된 특별성금 700원을 홍순의로부터 받아 다음날 6일 서울로 올라왔다.

132) 「좌담:멸왜기도사건」, 『신인간』 351호, 1977, 35면.

김재계로부터 춘암 박인호의 멸왜기도의 밀령을 받은 홍순의는 즉시 각 군을 순회하여 기도문의 요지를 알려주었다. 멸왜기도의 밀령을 받은 각 군의 교인들은 다음과 같다.

은율군 : 홍성인 정홍석 김준각 정기준
신천군 ; 이퇴석 김재선 이준선 김성오
송화군 : 최정현 손임수 우동익
장연군 : 강용렬 강종수 양태호
재령군 : 최재학 임창우 강병익
봉산군 : 오덕원 장명호
해 주 ; 최보흠 최덕삼 여운남
안악군 ; 박승도 김운학 이만유

이들은 일반 교인들과 함께 아침 저녁으로 식고 때마다 '멸왜'를 간절히 기원하는 기도문을 외우며 정신적인 민족운동을 전개해 나갔다.

황해도 신천교구의 경우, 회직포 연원주 이녀석이 홍순의로부터 중앙의 지령을 받아 한 밤을 이용하여 청년교인 수 명을 자신의 집으로 모이도록 하였다. 이날 이녀석은 먼저 '이신환성'에 대해 설교를 한 후, "중앙에서 이러한 비밀지령이 내려왔으니, 자네들만 알고 자네들은 이렇게 하도록 하게" 하면서 지시사항을 전달하였다. 즉 기도문을 아침 5시와 저녁 9시에 청수를 모시고 극진히 심고 드리고 주문 105회를 외우고, 또 심고할 때도 그런 뜻으로 똑같이 심고를 드리라고 하였다.¹³³⁾ 그리고 임실교구에서도 중앙의 지령이 전달되자 박영창, 최종정, 김한경, 정상렬, 박성언 등의 지도 아래 관내 모든 교인들이 105일 특별기도를 봉행하고 심고할 때 일제의 멸망을 기원하였다.¹³⁴⁾

이와 같이 1936년 8월 14일부터 멸왜를 기원하는 기도를 하는 가운데 춘암 박인호는 1937년 12월 1일 교일기념일을 맞아 "대신사께서 교훈가에 '내 운수 좋자하니 네 운수 가련할 줄 네가 어찌 알잔 말인가' 하셨는데, 이제는 우리나라 운수가 열릴 날이 멀지 않았다"고 하여 교인들을 독려하기도 하였다.¹³⁵⁾ 또한

133) 앞의 글, 37면.

134) 『천도교임실교구사』, 1982, 26면.

135) 김기삼, 『김재계의 독립운동연구』, 조선대학교출판국, 1994, 130면.

1938년 2월 3일부터 21일간 특별기도를 봉행하도록 하였는데 기도의 내용은 신사주문 1,050회를 묵송하고, '보국안민 포덕천하 광제창생과 개 같은 왜적놈을 한울님께 조화 받아 일야간에 소멸하고 대보단에 맹세하고 한의 원수 갚겠습니다'라고 심고하였다. 이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우리 교인은 이때를 당하여 수구여비병(守口如比瓶)하고, '시호시호 이내 시호 부재래지 시호로다'도 이때요, 아홉 길 조산할 때 한 소쿠리 더 할 때도 이때요, 합지 사지 출생돌아 보국안민 어찌 할꼬 할 때도 이때요, 십이제국 다 버리고 아국운수 먼저 할 때도 이때요, 뒤에 도적이 들어날 때 자기 칼로 자기 목을 찌를 사람이 많으리니 이때를 당하여 우리 교인은 더욱 진실한 독행으로 힘쓰라고 한 때도 이때인데, 이러한 때를 당하여 우리 교인은 퇴보하고 있느니 믿을 곳이 어디냐.¹³⁶⁾

춘암 박인호는 특별기도를 지시하면서, 급변하는 시기에 교인들이 자기관리를 잘 하고 그 책임을 다하도록 하였다.

천도교 구파는 멸왜기도운동을 전개하는 동시에 독립운동자금으로 특별성금 모금도 비밀리에 진행하였다.¹³⁷⁾ 이러한 성금은 중일전쟁이 일어나자 이 기회에 독립할 수 있을 것이라 믿고 그에 필요한 자금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에 모금운동은 전국을 4개 지역으로 구분하여 비밀리에 전개하여 나갔다. 이때 모금했던 성금은 중국에 있는 대한민국임시정부에 전달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이 멸왜기도운동의 종반에는 일제 경찰의 감시와 탄압을 피하기 위하여 기도문에 들어있던 '일제패망'이라는 구절을 '동양평화의 기초가 하루빨리 확립되도록 기원한다'라는 내용으로 변형시키게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멸왜기도는 2년 뒤인 1938년 2월 17일 일제에 발각되었다. 그렇지만 멸왜기도에 대한 사건은 4월 30일과 5월 1일에 가서야 보도되었다. 멸왜기도운동은 당시 중일전쟁을 치루고 있는 일제의 입장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사건 중의 하나였던 것이다. 따라서 언론에 보도통제를 함으로써 실상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던 것이다. 당시의 보도 내용은 다음과 같다.

136) 김기삼, 앞의 책, 130-131면.

137) 『경성일보』 1938년 4월 30일자.

금일 황해도 경찰부로부터 송국된 천도교 구과 불은음모계획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본적 전남 장흥군 대덕면 신상리 205
주소 경성부 원서정 4-37
천도교중앙교회 금융판장 김재계(51)

본적 경성부 팔판정 25
주소 경성부 돈암정 427
천도교중앙교회 장로 최준모(64)

본적 경성부 경운정 88
주소 경성부 인의정 117
천도교중앙교회 봉도 한순회(54)

본적 경성부 경운정 88
주소 경성부 명륜정 4-127
천도교중앙교회 감사원장 김경함(58)

본적 황해도 은율군 북면 가락리 124
주소 상동
천도교 황해도 연원대표 홍순의(49)

불은문 관계

김재계 최준모 한순회 등은 일찍 천도교에 의한 조선의 주권회득을 몽상하고 조선을 일본제국의 통치하로부터 이탈 독립시키려는 의사로 소화 9년(1934) 9월 이래 누누이 모의한 결과 조선에서 일본의 정권을 구축하고 조선의 독립을 기원하는 의미의 불은문을 작성한 후에 이를 독신자에게 교시하고 매일 식후 이를 읽게 함으로써 교도의 독립사상을 선동하고 그 정신적 결합을 도모하고자 결의하였다. 그리고 각각 이를 실행하기 위하여 홍순의는 김재계로 부터 이를 받아 다시 이에 말을 붙여 황해도 내에 배부 교도를 지도하고 비밀리에 이를 실행하였다.

특별회사금 모집

소화 12년(1937) 8월 10일경 최준모, 김경함, 한순회 등이 모의한 결과 이번 지나

사변의 전과는 예측하기 어려워 구과 천도교 연래의 염원인 국권회복의 호기로 이를런지 모르므로 이 겨우 활동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특별회사금이라는 명목 아래 이를 모집하기로 하고 전 조선을 4구로 나누어 전기 간부들이 각기 모집 담당 구역을 정하여 홍순의 등과 함께 유력한 독신교도들로부터 비밀히 324원을 모집하여 그 중 120원은 간부들이 마음대로 생활비로 횡령 소비하였다.

특별기도 관계

종래 천도교 구과는 특별기도라 칭하여 조선을 일본의 통치로부터 회복 독립시키려는 의미의 기도를 행하여 왔는데, 소화 12년 12월 20일 김재계, 최준모, 한순회 등은 소화 13(1938)년도 특별기도 실시에 대하여 협의함에 있어서 종전대로 한다면 관헌의 취체 탄압을 받을 것을 고려하여 동양평화의 기초가 하루빨리 확립되기를 기원한다는 문구를 표면에 위장하기 위하여 이를 부가하고 한편 교도에 대하여는 이를 관헌을 기만하는 수단에 불과함으로 소지에 동요를 일으키지 않도록 지도하고, 홍순의는 최준모의 지시를 받아 이를 황해도 배하 교도에게 교시 격려하였다.¹³⁸⁾

1936년 8월 14일부터 전개된 ~~1937년 7월~~^{1936년 7월} 신천교구 교인 최택선의 누설에 의해 일제에 발각되었다. 최택선은 위장교인이라고 알려지기도 하였지만 당시 독실한 청년교인이었다. 최택선이 비록 입교한지 얼마 안 되는 청년교인이었지만, 멸왜기도에 참여하도록 하였는데 결국 신천경찰서에 밀고를 하고 말았던 것이다.

그러던 중 만 2년만인 1938년 2월 17일에 멸왜기도의 움직임을 탐지한 신천경찰서 고등계는 일본인 경관 1명과 조선인 경관 1명을 홍순의 집으로 보내어 그를 체포하여 경찰서로 압송하고 동시에 교회서적 8권도 압수하여 갔다. 신천경찰서에 유치당한 홍순의는 그날 밤 심문을 당할 때 멸왜기도운동을 했다는 내용을 부인하자 일제 경찰은 죽도로 그를 때리면서 신천읍내의 교인인 방택기, 이준선 등이 이미 사실대로 자백하였다고 하며 심한 고문을 가하였다. 이에 완강히 부인하던 홍순의는 멸왜기도운동이 발각된 것으로 판단하고 멸왜기도의 내용을 자백하였다.

138) 『경성일보』 1938년 4월 30일자; 『동아일보』 1938년 5월 1일자; 『조선신보』 1938년 5월 1일자.

이렇게 심문을 받은 지 4일 뒤인 2월 20일에는 조선총독부의 삼교(森橋) 경무국장이 신천경찰서로 와서 멸왜기도에 대한 질문을 한 다음 그 기도문을 크게 읽어볼 것을 강요하기도 하였는데, 듣고 난 그들은 기도문의 내용에 놀라 당황하였다.

이런 21일부터는 각 면의 교인들이 차례로 체포되어 이 사건이 점차 확대되었다. 이후 최준모, 한순희, 김재계, 김경함, 홍순의 등 5명은 해주지방 검사국으로 송치되었으나 5월 20일에 불기소처분으로 출감되었으며, 나머지 교인들도 차례로 석방되었다. 이는 일제가 중일전쟁을 치루고 있던 중으로 사건이 중대하다고 판단하면서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될 것 같아 이와 같이 조치해 버린 것이다.

앞서 3월 4일 천도교 중앙교회 장로인 최준모는 교회 사무실에서 체포되어 황해도 사리원으로 압송되던 때, 교회 2층 건물 사무실에서 아래층으로 내려오는 순간에 한순희에게 조용히 말하기를

“70일 만에 우리가 석방되어 나올 터이니 안심하고 여행 갔다가 오듯 하자”

고 강화의 가르침을 말하였다. 그런데 최준모는 교인들과 함께 70일 만에 석방되어 나왔던 것이다. 최준모는 피검된 지 70일이 되던 5월 20일 아침 일찍 일어나 심고한 다음 ‘오늘은 출감하겠지’라고 하루 종일 출감소식을 기다렸는데, 오후 9시가 되어도 출감하라는 소식이 없었다. 이에 기도를 끝내고 나서 ‘한울님도 거짓말을 하시나’ 하고 속으로 생각하며 취침하였는데, 잠시 후 간수들의 감방문 여는 소리가 들렸다. 이윽고 멸왜기도사건으로 피검된 5명은 출감하라는 소리에 최준모는 과연 ‘한울님이시구나’ 하며 감옥 문을 나섰다.

이때 조선총독부의 경무국장과 법무국장이 나와 멸왜기도사건은 3·1운동보다 크기 때문에 죄가 무겁지만 지금은 중일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중이므로 도저히 처리할 수 없어 석방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천도교 중앙교회 대표 이종린은 최준모, 김재계, 한순희, 김경함, 홍순의 5명을 출교처분을 하였다.¹³⁹⁾

139) 통일촉진범국민협의회, 『꺼지지 않는 동방의 빛』, 67-73면.

그리고 그때 최준모는 다음과 같은 강시를 지어 읊었다.

물약운진아역진(物若云塵我亦塵)
칠십일간묵념중(七十日間默念中)
고아금오기이인(古我今吾豈二人)
쾌지천사감화덕(快知天師感化德)
약해겁회숙맹해(若海怯灰孰萌解)
온반삼시수불근(溫飯三時雖不飮)
무위이화자연력(無爲而化自然力)
무언올좌사공홍(無言兀坐似空紅)¹⁴⁰⁾

그 외에 각지에서 체포된 교인들도 이제의 중일전쟁 수행상 이 사건의 불확대 방침에 의하여 석방되었는데, 이때 장연군에 거주하는 강응렬은 조선독립을 주어야 출감하겠다고 5~6일간이나 출감에 불응하자 일제 경찰은 그에게 출감을 권유하는 한편 이미 석방된 교인들을 찾아다니면서 강응렬을 출감하게 해달라고 하는 일이 있었다. 또 신천군에 거주하는 김성오는 천포형인데 왜 자신은 검속하지 않느냐고 항변하면서 자진하여 구속당하기도 하였다.¹⁴¹⁾

이후 열왜기도에 가담한 천도교인에 대한 검거가 전국적으로 이루어졌다. 우선 황해도 연원대표인 홍순의와 장로 최준모를 비롯하여 김재계, 한순희, 김경함 등이 피검되었으며, 전국각지에 수백 명의 교인들이 투옥 당하였다. 이때 춘암 박인호는 노환으로 인해 병상에 있어 심문만 당하였다. 체포된 수백 명의 교인들이 혹독한 고문을 받았는데, 그 중 김재계, 논산교인 손필규, 해남교인 이강우, 신천교인 김정삼 등 4명은 고문으로 인하여 출옥한 후 곧 사망하였다. 특히 손필규는 신문과정에서 “내 것을 잃고 내 것을 찾았는데 무엇이 잘못이냐”하면서 절개를 굽히지 않았다고 한다.¹⁴²⁾

또한 홍순의의 수기에 의하면 당시에 검속 구류되었던 교인은 다음과 같다. 그러나 이들 명단은 후일 기록된 관계로 누락되거나 확인되지 않는 경우도 없지 않다고 본다.

140) 앞의 책, 74쪽.

141) 『좌담;명왜기도사건』, 37-38면.

142) 『좌담;열왜기도사건』, 36면.

신천군 : 김재선 권의주 김정삼 김윤하 이동호 이동만 김성오 김성록 강동제
 김자현 김인선 이형식
 안악군 : 박승도 김운학 김환주 이만유 오영찬 이홍서 현행복
 은율군 : 홍성인 정홍석 정돈근 김준각 김찬각 김권각 홍명용 홍한용 홍대의
 유봉주 홍성삼 정기준 정기현 김택봉 최형준 나종화 김의곤 황규원
 김창일 박인석 김창현
 송화군 : 손덕경 손임수 손인걸 우동의 이혼선 이정희 최정현 강용택
 장연군 : 강응열 강수중 양태호 김치명 최병삼 김승하 강원보 김기환 박도근
 양만훈 강홍주 강원암
 재령군 : 최재학 임창우 강병억 최원이 강제칠 박능화 양한조
 봉산군 : 오덕원 장명호
 해주부 : 안영석 안정석 최보흠 여운남 최덕삼 안학순 이승환 안상철 윤의효
 최승향 최원식 윤용칠 최영식 유종만
 웅진군 : 정한영 정근영 정관영 하택용 조동준 정운화 이화세 정운채 이원세
 경기지역 : 윤세원(양주) 이덕유(용인) 나천강(수원) 김윤환(인천)
 김영희(부평)¹⁴³⁾

이밖에도 전남지역에서 이강유 신명희 박윤배 곽동형 고현중, 전북지역에서
 유태홍 김종환 최종기 김한경 박성언 윤귀섭 최문갑 유창성 최맹언 김병두, 경
 기도지역에서 김정은 이용현, 충청지역에서 손필규 박병협 최병로 정환석 문병
 석 정희규 이규호 이보성 주병도 등이 확인되고 있다.

당시 일제 경찰은 구속시킨 교인들에게 일제의 패망을 기원하는 기도문을 여
 러 차례 쓰게 하고, 또 수 백번 이상을 밤새도록 크게 읽도록 하였는데, 이 때문
 에 경찰서 감옥에서는 기도문 소리가 퍼져 나오기도 하였다. 그러나 오히려 일
 제 경찰은 기도문 내용을 듣고 초조한 패색을 감추지 못하였다. 일제는 이 멀왜
 기도운동사건이 크게 확대될 경우 중일전쟁을 수행하는데 불리해 질 것이라고
 판단하여 일반 교인들은 모두 석방시키고, 최준모, 김재계, 한순희, 김경함, 홍순
 의 등은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구속하였다가 이들도 70여 일 만에 석방하였다.

그렇지만 멀왜기도운동 이후 천도교 구파는 더 이상 표면적으로 민족운동을
 전개할 여력을 갖지 못하였다. 이는 중일전쟁을 치루고 있는 일제의 전시체제의

143) 앞의 글, 40면.

통제와 당시 교단을 대표하여, ~~이종원이 전향성명을 발표하였기 때문이었다(144)~~

한계이 경향
①
6 전향성명
은 반문작성기
계분이양기
경시 경향
이 감응기
구성이양기
대중의심: 양

4. 맺음말

이 시대의 새로운 국면

1905년 부터 새롭게 출발한 동학-천도교의 민족운동은 수운 최제우의 동학 사상에서 핵심인 인내천사상을 중심으로 한 민족종교로서 항일의식을 고취시키는데 크게 기여하였고, 1919년 3·1운동을 주도함으로써 민족독립운동의 주동세력이 되어 마침내 상해에 대한민국임시정부라는 근대민족국가가 수립되는 근원을 마련하였던 것이다.

1920년대에 들어서는 『개벽』 『별건곤』 『어린이』 등 수많은 민족계몽을 위한 잡지를 발행하여 여러 계층의 민중들에게 민족의식을 고취시켜 사회주의사상 풍조로 인해 민족주의사상이 혼미함을 거듭한 상황 속에서도 천도교청년당을 창건하고, 조선농민사와 조선노동사를 통해 농민운동과 노동운동을 전개하였다. 특히 조선농민사의 농촌계몽을 위한 농민운동은 농민을 중심으로 한 민족주의 정당운동과 농민운동의 기원을 마련해 주었다. 그리고 민족독립을 위한 항일 민족운동을 극심해진 일제의 탄압을 피하여 지하에서 유지시켜 나간 청년당의 오십당운동도 천도교에 의해 막을 이어나간 민족운동이었다.

공간의 명칭
과 별지경향
의 갈래...

천도교는 국내에서의 민족운동이 일제의 탄압으로 한계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독립운동의 민중적 동원을 이룩하는데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였으며, 우리 민족의 정서를 담은 교리를 구국적 이념으로 승화시켜 정당운동이나 농민운동, 소년운동, 여성운동 등 정치적인 민족운동으로 발전시켜 전개하였다.

특히 1930년대 들어 일제의 전시체제의 개편과 황민화정책을 통해 민족말살을 기도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천도교 구파의 무인멸왜기도운동은 적지 않은 천도교 정신사에서 볼 때 적지 않은 역사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첫째는 일제강점기 민족운동사에서 가장 심한 수난기에도 불굴의 민족정신을 이어왔다는 점이다. 둘째는 민족말살의 위기에서도 불굴의 독립의지를 소생시키는 동시에 우리 민족의 저력을 과시하였다는 점이다. 셋째는 일제 말기 천도교의 민족의식을

144) 『동아일보』 1938년 5월 1일자.

계승 발전시킨 역사성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천도교에 의한 민족운동은 뚜렷한 민족종교이념을 민족정신을 보전하는데 공헌한 것이니 이러한 관점에서 실행되었던 밀왜기도운동은 아직 세상에 널리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나 우리 민족에 일제에게 당한 가장 극심한 수난기에 있어서 불굴의 독립의지를 나타낸 항일독립운동이었다.

✓ 따라서 이 천도교의 무인밀왜기도운동은 민족말살의 절대절명의 위기에서 우리민족의 독립의지를 바로 세워 한민족의 저력을 과시한 것이었으며, 민족정신사의 단절위기를 극복시킴으로서 천도교의 주체적인 독립성을 극명하게 나타내 준 항일 천도교정신사의 정맥인 것이다.㉞

총 평

김 한 식 (선경대학원대학교)

과거의 발자취를 더듬어보는 것은 지혜로운 일이다. 더욱이 그 흔적을 정확히 평가하여 좋은 점을 높이고 부정적인 면을 적나라하게 분석하여 미래를 향한 거울로 삼는 일은 안목을 가진 지도자의 자질임에 틀림없다. 오늘 우리는 내가 소속된 집단을 위해 자신을 내던진 한 선인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웃기를 여미게 된다.

바로 춘암 박인호 선생이다.

춘암에 관해서 기조강연을 포함해서 5개의 주제가 발표되었다. 그동안 널리 알려지지 않았던 사실이 소개되고 이에 대한 다각적인 관점이 부연되는 의미있는 발표라고 생각된다. 발표해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리면서 특히 주요 지적 몇 가지를 되새기고 여기에 본인의 관점 몇 가지를 덧붙이는 것으로 총평에 가름하고자 한다. (아쉽게도 “내포지역 동학혁명과 박인호”의 글은 미리 접할 수 없어 예외로 한다.)

김삼웅 독립기념관장님은 “동학 천도교의 민족운동 승맥(承脈)과 통일운동” 제목의 기조강연을 통해 동학을 1894년 동학농민혁명에 초점을 두면서 근대적 민족주의 운동으로 보고 있다. 이 근대적 민족주의 운동을 동학의 ‘보국안민’이나 ‘후천개벽’ 운동과 연관지우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민족주의를 남북통일의 열기로 승화시켜 통일문화 창조를 이룩하자는 미래지향적 가치를 제시하고 있다.

임형진 교수께서는 “1920년대 민족운동과 박인호”에서 춘암이 『천도교월보』를 창간하는 등 문화사업과 교육사업에 전력을 기울인 내용을 자세히 밝히면서 구파 쪽을 대표했던 박인호에 대한 역할이 축소되고 기록이 소실될 가능성을 우려하면서 천도교 구파의 활동상황을 제대로 밝혀져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춘암이 민족운동을 펴면서도 “천도교라는 특정 종교에 매몰되어 유아독존적 운동노선”을 고집하지 않고 대의를 위해서는 자신을 낮추는 민족 지도자의 면모를

지적하고 있는 점이 특이하다.

한편 성주현 발표자께서는 “춘암 박인호와 무인멸왜기도운동”제하의 논문을 통해 무인멸왜기도운동의 전개과정을 주변 상황과 결하여 민족운동과 관련해서 설명하면서 무인멸왜기도운동 의미를 일제강점기 민족운동사에서 가장 심한 수난기에도 불굴의 민족정신을 이어갔다는 점과 우리 민족의 저력을 과시하였다는 점, 그리고 일제 말기 천도교의 민족의식을 계승 발전시킨 역사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발표자들께서 춘암의 삶을 민족주의라는 관점에서 밝히되 각기 서로 다른 관점을 제시하고 있긴 하나 내용이 중복되는 점이 적지 않았다는 감을 가지게 된다. 그러나 이점 역시 주제의 성격상 불가피하지 않았나 싶다.

여기서 춘암에 대한 평가에 세 가지를 덧붙이면서 평가자의 의무에 가름하고자 한다.

첫째로 그는 민족을 축으로 하는 포용성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1910년 이후 폭압적인 일본의 무단정치에 항거하면서 사회 각 계층을 포용하려고 노력했다. 그는 1919년 3월 1일 항거 시에도 민족대표 48인 중 1인으로 기독교·불교 등 종교계 대표들을 규합하여 거족적인 만세운동을 시도하였다. 6·10만세사건이나 신간회사건에서도 사회주의계열까지 포함하는 민족적 단결을 도모하였다.

둘째는 그는 자주독립을 향해 매수되거나 권력에 유혹됨이 없이 일관하게 자신을 지켰다는 점이다. 독립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일제의 위협과 유혹이 드높아지는 상황에서도 자신이 속한 집단의 이익을 위해 자신을 버릴 수 있었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셋째, 그는 비폭력적 수단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문화·교육의 진흥에 정진했다는 점이다. 이 점은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다.

춘암의 일생에 가장 기본적으로 영향을 준 요인을 생각한다면 환경적 요인과

만난 인물의 영향이 아닌가 싶다. 그가 받은 환경적인 영향은 매우 분명한 것 같다.

예컨대 지리적 요인 만해도 그렇다. 그가 태어났고 자란 충남 덕산군 장촌면 막동(현 예산군 삼교읍 하포리)은 물이 합해지는 지역으로 땅이 기름져 농사짓기도 좋고 어업도 가능하여 풍요로운 곳이다. 그만큼 육로와 해로에 있어서 교통이 편리한 곳이기도 하다. 여기에도 농산물을 세금으로 바치는 하나의 통과거점인 것이다. 이러한 환경은 춘암에게 일찍부터 시대흐름에 민감할 수 있었고 외세의 문물을 눈여겨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애써지은 곡물을 누군가가 빼앗아가는 현장을 목격하며 어린 시절을 보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자연스럽게 저항심과 분노를 자아내는 심성을 가지도록 만들기에 충분했을 것이다. (치열한 전투가 있었던 신례원 역시 천안 장항 서산 쪽을 향해 교통의 중심을 이루며 곡물을 세금으로 바치는 거점이다.)

춘암이 만난 인물 역시 주목할 만하다. 춘암은 28세 되던 해 해월을 만나는 자리에서 손병희를 만나게 되어 두 사람의 관계는 동학운동의 근간을 이루었다. 여기서 춘암은 의암의 영향을 직접 간접으로 받으면서 교조신원운동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게 되었다. 1893년 광화문복합상소 시에는 종제 박광호와 함께 생명을 건 투쟁을 했던 것이다. 그의 역할이 커질수록 그의 투쟁의 심도나 영향력도 커져갔고 이러한 그의 영향은 아들 박래홍에게 전수되었던 것 같다.

이러한 영향요인은 춘암으로 하여금 그를 일관되게 투사로 만들기에 족했을 것이다. 그 시대 상황으로 보아 오히려 열렬한 혁명가가 되는 것이 정상이었을 것이다. 실제로 춘암은 초기에 의암과 손을 잡고 행동의 주역이었다. 그러나 후반에 접어들면서 그는 민족독립을 이뤄내기 위해 폭력적이 아니라 비폭력적 수단을 택하게 된다. 1904년 갑진개화혁신운동을 주도할 때도 한번에 16만 회원이 단발흑의(斷髮黑衣)를 단행하도록 이끈 데에서 잘 드러난다. 출판 언론 교육 등 문화사업과 국민계몽운동이 주를 이룬 그의 치적이 모두 그러하다.

오늘 우리는 춘암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된다. 한마디로 민족의 장래를 논하면서 편협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포용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㉞

< 부 록 >

춘암 박인호 약력

1855년 (을묘)

2월 1일 충남 덕산군 장촌면 막동(현 예산군 삼교읍 하포1리114)에서 부친 박명구와 모친 온양 방씨 사이에서 탄생. 밀성대군의 37대손이며 시조로부터는 66세손이다.

1864년 (갑자)

10세 때 한학에 입문하다.

1865년 (을축)

의령 남씨 부인을 맞아 혼인

1879년 (을묘)

25세, 부친상을 당함

1883년 (계미)

동학에 입도함. 의암성사를 처음 상면하시다

1884년 (갑신)

해월의 명으로 의암성사와 함께 공주 가섭사에서 49일기도식을 행하시다.
피나는 독공수련과 충청도 지방 포덕에 주력하시다.

1893년 (계미)

2월 10일 수운대신사(최제우)의 신원운동(伸冤運動)인 광화문복합상소에 손병희, 강시원, 손천민, 김연국, 박광호 등과 함께 수만의 교도를 거느리고 봉소하시다.

해월신사의 명으로 보은취회에 수천의 교도를 거느리고 덕의대접주로 참가하시다.

1894년 (갑오)

보국안민, 척양척왜, 제폭구민의 기치아래 부패한 봉건정치를 타파하고 외세를 몰아내기 위해 덕산, 신창, 예산, 면천, 당진, 서산, 태안, 홍주, 남포 등지에서 기포케하여 동학혁명군 5만을 선두지휘하여 면천승전곡에서 일본군을 패퇴시키고 10월 27일에는 신례원 관작리에서 관군과 유희군으로 구성된 진압군을 크게 격파했다. 28일에 일본군까지 주둔하고 있던 홍주성을 총공격하여 혈전을 거듭하였으나 일본군의 신무기를 감당하지 못하고 많은 희생자를 내고 후퇴하고 서산의 매현에서 최후의 항전을 벌였으나 패하고 후일을 기약하고 금오산 토굴 속에서 삼동을 지내시다.

1899년 (을해)

2월 23일 의암 손병희로 하여금 처음으로 입도식을 거행하시다.
3월 10일 의암 손병희로부터 춘암(春庵)이란 도호를 받으시다.
7월 20일 경도주(敬道主)가 되시다.

1900년 (경자)

모상(母喪)을 당하시다.
5월 1일 해월신사(최시형)의 묘소를 송파에서 광주 원적산에 이장할 때 유골을 광주(廣州)까지 운구하시다.

1904년 (갑진)

4월에 홍병기와 함께 일본에 건너가 의암 손병희와 함께 개혁운동을 협의하고 귀국하여 7월에 진보회를 조직하고 일조(一朝)에 16만 회원으로 하여금 단발흑의(斷髮黑衣)를 단행하시며 갑진개혁운동을 주도하시다.

1908년 (무신)

1월 18일, 제3세대도주 의암 손병희로부터 종통을 계승하여 제4세 대도주가 되시다.

1909년 (을유)

1월에 천도교의사기관(天道教議事機關)인 총인원(叢仁院)을 설치하시다.
3월에 사범강습소를 설치하시다.

1910년 (경술)

8월 15일, 『천도교월보』를 창간하시다.

가을에 중앙교당을 송현동에 신축하시다.

10월, 육영사업에 진력하여 보성전문,보성중학, 보성소학, 동덕여학교, 용산문창학교, 마포보창학교, 대구교남중학교, 일신여학교 등 8개교를 인수하고 청주중학 학교를 설립, 용산양영(龍山養英), 양덕여학교, 전주창동학교 등에는 보조금을 주었으며, 출판사 '보성사(普成社)'를 운영하여 문화운동의 기초를 세우시다.

1912년 (임자)

1월 19일 중앙에 종학강습소를 설립하시다.

6월 18일 우이동에 봉황각을 건축하여 교역자에게 역사의식을 심어주며 일제에 빼앗긴 나라의 주권을 되찾기 위하여 항일독립운동을 이끌 교인을 양성하였다. 민족대표 33인중 15명이 이곳에서 배출되었다.

1919년 (기미)

2월 28일 천도교의 '보성사'에서 독립선언문과 조선독립신문을 인쇄하시다.

3월 1일 조선독립을 선언하다.

3월 10일 왜경에 피체되어 서대문감옥에서 1년 8개월간 옥고를 당하시다.

1920년 (경신)

10월 21일 의암 손병희 출옥하시다.

10월 31일 춘암상사(박인호) 출옥하시다.

1921년 (신유)

2월 28일, 경운동의 대교당 낙성식을 거행하시다.

1922년 (임술)

1월 18일, 교주취임식을 거행하다.

10월 28일 대신사출세백년기념관을 건립하시다.

1927년 (정묘)

2월에 조직된 신간회운동에 전 교인으로 하여금 적극참여하도록 하시다.

1928년 (무진)

10월 5일, 선생의 독자로 신간회본부의 간사이며 천도교청년동맹 대표로 활동하던 현파(玄坡) 박래홍(朴來弘)이 피한 서울봉에게 피살되다.

1937년 (정축)

대종사장(大宗司長) 최준모에게 지시하여 명년 1월 1일부터 31일 까지 '멸왜특별기도(滅倭特別祈禱)'를 거행토록 하시다.

1938년 (무인)

멸왜기도를 1월 1일부터 전국교인이 시행케하여 거대한 운동이 되다

“포덕천하 광제창생, 보국안민과 개같은 왜적놈을 한울님께 조화받아
일야간에 멸하고서 대보단에 맹서하고 한의 원수까지 갚아
속히 독립달성하겠습니다”

4월 2일, 기도운동이 탄로(綻露)되어 중앙교회 및 지방교회의 교역자와 교인 등 3백 여명이 왜경에 피검되다.

4월 3일, 춘암상사 노환중이므로 병상에서 왜경의 신문을 받으시다.

1940년 (경진)

4월 3일 오후3시 15분 내수동(內需洞) 자택에서 환원하시다

묘소를 경기도 포천군 소흘면 무봉리 무봉산록에 이장봉안하다.㉔

